



특 간 호

9

주 체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9 호

(루계 제 611 호)



◆◆◆◆◆◆◆◆◆◆

## 차 례

◆◆◆◆◆◆◆◆◆◆

위대한 령도자 <b>김정일</b>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	4
조국이여 인민이여 앞으로 .....	5
나는 조국을 노래한다 .....	7
강성대국 나의 조국, 부강조선아! .....	13
<b>김정일</b>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	15
웨치노라! .....	15
강성대국문학건설로 21 세기의 태양을 모시렵니다 .....	16
조국에 바치는 사랑 .....	17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의 건국업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	18
공화국기발 .....	21
매혹 .....	22
안녕히 다녀오시라 .....	34
<b>정일봉</b> 의 우뢰소리 .....	35
인민의 목소리 .....	37
붉은 눈보라 .....	38
9 월의 하늘가에 나뭇기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	45
공화국과 더불어 50 년 .....	47
공화국기발과 함께 .....	48

반세기전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	49
하늘 .....	51
향도의 자욱을 따라 6 천리 .....	52
병사와 고운 새 .....	53
사령부와 함께 .....	54
내 눈가에, 내 마음속에 .....	54
빛나는 9 월 .....	55
세월의 년륜속에 .....	56
그날이 다시 온 밤에.....	66
어머니에 대한 생각 .....	67
승리 .....	68
강성대국건설에 헌신분투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	69
우리의 행군길에서 부르는 노래 .....	72
조국의 품이여 (외 1 편).....	74
내 사랑 능귀강의 흐름아.....	75
우리에게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 .....	76
피와 땀 .....	76
력사는 판결하리라 .....	77
피수는 너울을 벗어던졌다.....	77
우리가 승리한 그날엔 .....	78
공화국기 휘날리며 한생을 .....	79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 우리 당과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

주체혁명위업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는 장엄한 역사적전환의 시기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위업을 높이 받드시고 수십성상의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을 벌리시여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대양의 나라로 빛내여나가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는 역사적인 시각 전체 대의 원들과 회의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넘쳐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크나큰 영광이고 행복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대경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것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공인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하고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여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필승불패로 다지시고 선군혁명령도의 정치와 백전백승의 지략으로 **김일성**조선의 룡성과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반제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보란듯이 건설하여 21세기를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 위대한 시대로 빛내이려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신념을 뚜렷이 과시하는 일대 사변으로 된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 조국이며 인민이며 앞으로

오영재

혁명의 진군가를  
더 높이 부르노라  
온 민족의 환호와 걱정을 안고  
조국이며 내 그대를 부르며  
시대의 우렁찬 나팔소리를 더 크게 울리노라

모든것이 무르익고 열매를 맺는  
계절도 좋은 계절에  
땅우엔 흥겨운 춤과 노래  
하늘에선 우리의 첫 위성에서 올려퍼지는  
불멸의 혁명송가

환희로운 9월의 이날에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내 조국의 존엄을  
금성철벽의 방위력으로 펼쳐주시는  
강철의 최고사령관 우리 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더 높이 모시었나니  
새 세기의 문앞에서 진군의 대오를 지은  
조국이며 그대의 영광 끝이 없으라

올려라 환호여  
땅크의 포탑우에서  
함대의 갑판과  
비행대의 활주로우에서  
올려라 불타는 용해장  
날알익은 가을들판에서  
거리와 마을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하늘땅을 가득채우는 만세의 메아리

민족의 경사여라  
온 세상의 눈길이 모여오는 우리의 경사여라  
가슴에 차넘치는 최상의 이 행복을 안고  
큰걸음을 내딛자 조국이며 인민이며  
희망은 푸르고 신심은 드높다  
거창한 투쟁과 미래가 우리를 부른다

**김정일** 장군님의 걸음에  
천만이 하나같이 보폭을 맞추고  
심장의 숨결을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이다  
력사의 새 진군이다

못잊을 7월의 눈물바다에서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라 하시던  
수령님의 유훈을 새기고새기며  
눈물로 다지던 그 맹세가  
의리로 젖어있는 가슴들이다

신념으로 굳어진 가슴들이다

시련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던 길  
조국이며 우리  
장군님의 그 걸음을 따르지 않았다면  
험한 령은 어떻게 넘어왔고  
진필길과 깊은 강을 어떻게 건너왔으랴  
걸어온 세월의 굽이굽이마다에서 막아서던  
사나운 역풍을 어떻게 헤쳤으랴

그이의 위대한 그 걸음은  
백두의 천산만악을 거느리시고  
밀림의 눈보라를 옷자락에 휘감으시며  
걸으시는 걸음  
천만의 총창이 번쩍이는 번개를 안고  
하늘땅을 뒤흔드는  
기계화대군단의 우뢰를 터치시며  
걸으시는 령장의 걸음

그이 진두에서 날려주신 기발은  
억척같은 총대우에 그이 매여주신 공화국기발  
총대로 높이 든 우리의 기발처럼  
붉고 억세인 빛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제국주의원수들이 힘으로 압살하려는  
오늘의 세계에서 총대 아닌 그 무엇이  
이 기발을 끝까지 추켜들게 할수 있으랴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대동란의 지진파가 발밑에서 땅울림하고  
페르샤만에서 일어난 건 해일이  
우리의 바다기슭까지 밀려오고있을 때

조국이나 노예이나  
이 심각한 판가리계선우에  
내 운명도 조국의 운명도 놓여있을 때  
우리 장군님 그 무엇으로  
제국주의 련합세력을 무릎꿇리시였던가

불은 불로 다스리고  
총에는 대포를 맞세우는  
그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지  
참다운 무장력이 없었던 그탓으로 하여

민족의 과거는 얼마나 치욕스러웠고  
하소할곳 없는 피맺힌 원한을 안고  
암흑의 나락속에서 몸부림쳤던가

그러기에 우리 수령님

백두에서 높이 추켜드신것은  
혁명의 이 무장이었고  
침략자를 징벌하는 총포성속에서  
조국도 정권도 당도 태어났거니

틀어쥐면 승리하고  
놓으면 멸망하는  
총대는 혁명의 천하지대본  
총대는 유력한 력사의 추동력  
이 총대로 수호되지 않은  
평화와 행복과 번영이 이 세상에 있으랴

그렇더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동지  
그이는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시는  
우리 혁명의 최고령도자  
그이는 무적필승의 국방력으로  
내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그 걸음을 따랐기에  
우리 한번 비칠거린적도 헛디딘적도  
힘겹다고 쉬여간적도  
길이 험하다고 에돈적도 없이  
곧바로 이날까지 전진해왔거니  
심장을 격동시키는 휘황한 설제도를 펼쳐드시고  
장군님 나아가시는 그 길을 따라  
조국이며 앞으로  
인민이며 앞으로

어제도 따랐고 오늘도 따르며  
천만년 미래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장군님만 우리러 따를  
우리의 걸음이어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진정으로 혁명에 몸을 바쳐가는 그 마음들이  
순결한 량심으로 따르는 걸음이다  
순간의 담보와 후퇴를 모르고  
오직 뚫고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다

강철로 억세고  
진리로 참되고  
일심단결로 뜨거운 걸음  
불의를 짓부시며  
영원히 승리하는 주체의 걸음

통일의 광장에 피어오를  
축포의 꽃보라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개가를 올리며  
조국의 푸른 하늘 높이 휘날릴  
붉은기의 필력임을 안고가는 걸음  
새 세기의 광활한 대지우에 일떠세울  
정치대국 군사대국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걸음

력사가 따르고  
인류의 량심이 따르는 이 걸음앞에  
세계여 길을 열라  
원썬들아 전를하라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조선은 나아간다  
**김일성**민족이 나아간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백두의 령장을 따라  
가자 발구름높이 찬란한 미래으로  
이 발구름의 우뢰로  
새 세기의 문을 여는 력사의 진군이다  
21세기의 태양을 모시고  
수령님의 주체위업 길이 빛내여갈  
뜨거운 맹세의 걸음  
애국의 대진군이다

이 걸음으로 우리 어찌 승리하지 못하랴  
가자, 조국이며 인민이며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두려울것이  
없다는것을  
원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가는 길 험난해도 강행군길 어려워도  
래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주기  
위해

정의와 량심은 기어이 승리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위해  
전쟁의 검은 구름이 영원히 가셔지고  
평화의 봄이 깃들게 하기 위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

주체의 진군가높이 힘차게 내닫자  
**김정일**동지를 모신 나라는  
가장 빛나야 한다  
**김정일**동지를 모신 인민은  
가장 위대하여야 한다  
끝없는 영광의 길 번영의 길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조국이며 앞으로!  
인민이며 앞으로!

## 나는 조국을 노래한다

-이 시를 창건 50돐을 맞는 어머니조국에 드린다-

김만영

조국이며  
마음속으로 불러만 보아도  
애뜻한 정 샘솟아오르고  
푸른 하늘 바라만 보아도  
람홍색공화국기발의 펄럭임소리가  
가슴에 젖어오는  
나의 조국이며

내 그대의 이름을  
우리 말 배우던 그때부터  
어머니란 말처럼 익혀왔건만  
고백하노니, 내 지금껏  
내 조국의 그 의미  
그 참뜻을 다 알고 불렀던가

저 가없는 하늘에  
강성대국의 장엄한 포성을  
온 우주에 터치며  
주체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이 날아오른  
그 격동을 안고  
내 그 이름 다시 불러보나니

조국이며  
그대 빛나는 반세기력사우에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혼연일체로 묶어세우고  
금성철벽의 방위력을 펼치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  
그이를  
우리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기쁨과 환희  
9월의 하늘땅에 차넘치는 나의 조국이며

나는 아노라  
가슴을 들끓이는  
이 환희 이 기쁨이  
어이하여 그리도 크고 뜨거운지  
명절을 맞는 이 나라 강산이  
어이하여 그리도 공지와 자랑으로 설레이는지

그대 반세기력사를 더듬으며  
조국을 노래하려

한자루의 붓을 들고 편답의 길에 나서니  
내 눈앞에 열리는 하나의 길  
우리 장군님 걸어오신 전선길...

하여 내 걸었노라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그이 오르신 백두의 준령  
굽이굽이 험한 산을 넘고넘어  
그이 가고가신 자강땅의 산발들  
바람찬 성강의 철의 지구를

걸음걸음  
그이의 뜨거운 숨결이 어리고  
자욱자욱  
백두의 기상과 담력이 번개친  
동서천리  
최전연의 초소길을

이 길에서  
내 조국이 수호되고  
이 길을 따라  
내 조국이 걸어왔기에  
나도 이 길을 따라  
걸고걸었노라

어디에 가도  
어디에 서도  
내 조국의 존엄과 공지가  
가슴속에 용암처럼 끓던 걱정을 안고  
그이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은 내 여기 묘향산에 왔노라

비내리는 5월의 그날  
우리 장군님  
전선길을 이어 오르신 묘향산  
젖빛안개를 허리에 두른  
8만 4천봉우리를 거느리고  
장쾌한 폭포수에 산향기를 날리는  
이 나라 명산 묘향산!

아, 조국수호의 전선길

조국번영의 전선길  
 그 길우에 솟아있는 명산이여  
 휘휘세찬 눈보라를 다 막으시고  
 우리 장군님 안아오신  
 화화창창 묘향산  
 천하제일절경이여

×

푸른 하늘높이 추너를 펼친  
 국제친선전람관  
 단청무늬 학각지붕아래  
 거대한 대문이 소리없이 열리누나

물소리 새소리조차  
 삼가 저어하는 그 숭엄함이  
 산천에 깃들고  
 이 가슴에 흘러들거니

인류의 흠모와 경모의 정이  
 가득차흐르는 전람관  
 한결음한결음  
 층계를 오르고 내리며  
 생각도 깊어지는 이 마음

그 어느 진렬실이라  
 그 어느 진렬대이라  
 보면볼수록  
 신비스런 세계에 들어선듯  
 마음은 황홀해지고  
 이 가슴은 경건해지나니

빼앗긴 조국을 찾으시고  
 자유의 나라  
 인민의 나라  
 신생조선을 세우시는  
 청년장군 우리 수령님을 흠모하여  
 반세기전부터 보내온 선물들

숭엄함과 황홀함 끝이 없어  
 차마 걸음을 옮길수 없구나  
 대륙과 대륙을 넘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만민이 삼가 올린  
 수십만점의 그 선물들

이런 위인이 세상에 또 어디 있으랴  
 하루에 한점씩이라 하여도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290여년을 받으셔야 할  
 많고많은 그 지성품들  
 800여개의 그 훈장들

나라면 나라마다  
 민족이면 민족마다  
 사상과 신앙  
 사회와 제도  
 언어는 서로 달라도  
 마음과 지향은 대하의 흐름되어  
 여기 한뼘으로 흘러왔구나

선물들에 깃든 사연을 생각하며  
 내 걷고걸는데  
 해설원의 친절환 안내를 받으며  
 걸음걸음 경탄을 금치 못하는  
 저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

정숙이 흐르는 방안에  
 문득 들려오는 흐느낌소리  
 머리 흰 해외동포로인  
 진렬대의 밝은 유리우에  
 저도 모르게 떨구는 눈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손수건을 적시며  
 흐느낌속에 떨리는  
 그 목소리  
 -아, 이것이 내 조국이구나  
 우리의 조선이구나

탓하지 마시라 그 눈물을  
 지난날 나라를 빼앗기고  
 압록강을 건너 정처없이  
 현해탄을 건너 정처없이  
 눈물속에 뒤돌아보며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흠어져갔던 사람들

조국이 없어  
 가슴에 쌓이고쌓였던  
 설움의 얼음장  
 오늘은 여기서 다 녹아  
 흘러고흘리는 눈물  
 이 가슴도 그 눈물에 젖누나



정녕 조국은 무엇인가  
하늘이 있어 조국이던가  
땅이 있어 조국이던가  
태를 묻은 고향

선조의 무덤이 있어 조국이던가  
말해보자, 조선아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  
시일야방성대곡으로 터져오르고  
망국의 오욕을 안고  
민족이 이국의 하늘밑에 헤매일 때  
조국이며, 너는 어디에 있었더냐

너도 말해보자 묘향산아  
멀리 저 멀리  
세월을 거슬러오르면  
역사가 유구하여 5천년이건만  
조선아, 너의 존엄  
언제 이처럼 빛난적 있었더냐

일신의 안일과 영달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자들  
이 나라의 금은보화를 싣고  
큰 나라를 찾아갈 때  
비로봉이며, 너는 눈물봉이었더라

그 옛날 탐밀대사가 안심사를 세워놓고  
묘향산이라 이름지어 부른 그때부터  
어언 천년  
이 나라를 빛내달라고 빌고빈  
그 천년세월의 불공으로도  
그 행렬을 멈춰세울수 없었더라

재능있고 슬기롭고  
문화도 찬란한 민족이었건만  
인민의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에  
침략자들의 칼에 맞아 피흘리며  
뼈아픈 수모와 천대만을 받아왔거니

그 설음  
그 피눈물의 아픔을 당해보지 못한  
나라와 민족은 알수 없으리  
세상에 뗏뗏이 머리쳐들고 사는  
이 존엄 이 긍지를  
우리가 왜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지

다는 모르리  
평양을 향해 줄을 서서 달려오는

흙모의 행렬을 맞이하는 조국을  
우리가 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지

수령이 위대하여  
나라마다에서 보내온  
가장 값진 보물들이  
여기에 가득차거니  
정녕 우리 조선은 부자의 나라

한점한점의 그 선물들이  
억만가닥의 빛발이 되어  
이 가슴에  
내 조국의 위용 존엄의 참뜻을  
다 깨우쳐주는구나

수령님과 장군님을 우러르는  
존경과 신뢰로 높고높고  
정성과 지성으로 빛나 빛나는  
이 세상 가장 높은 경모의 봉우리위에  
이 선물들이 놓여있구나  
내 조국이 빛을 뿌리고있구나

결으면 결을수록  
한껏 차넘치는  
민족의 긍지와 자랑을 안고  
내 전람관의 로데우에 나서노라

청신한 골안을 울리는 물소리  
미풍에 실려오는 그윽한 숲향기  
비단필을 늘이는듯  
산허리엔 부드러운 감도는 흰 안개

끝이 깊어  
여기선 생각도 깊어지더냐  
해설원도 여기선 목이 메여 이야기하누나  
아, 우리 장군님  
멀고먼 전선길을 이어  
묘향산으로 오르셨다는  
그날의 그 이야기에 가슴은 뜨겁구나

수십만점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시며  
선물에 깃든 사연들을 일일이 헤아리시며  
천추만대 빛내주시는 우리 장군님

생각도 깊으시였어라  
오실 때마다  
감회도 새로워

한점한점의 선물들에서  
수령님의 한평생을 다 더듬어보시는 그이

나라없는 세월에 태어나시여  
나라를 찾고  
나라를 세우시느라  
우리 수령님처럼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신분  
세상에 또 있던가

백두의 빙설천지에서  
몸을 다 얼कु시고  
그 언뎡을 녹일새없이  
내 나라 내 조국에  
자신의 온기를 다 주신분

바라볼 하늘조차 없던 이 나라에  
공화국기 날리는 하늘을 주시고  
딘고설 땅조차 없던 인민에게  
사회주의 큰 집을 세워주신분

수령님은 받으신 선물만으로도  
이 세상 제일 큰 갑부가 되었을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외국의 벗들  
허나 이 많은 선물들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조국과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만민의 아버지 **김일성** 동지!

그런분이어서  
우리 수령님은 그런분이어서  
수려한 산천 한복판으로 시원히 뻗어간  
새로 건설된 향산도로에 오르실 때마다  
이 길에 한번도 수령님을 모시지 못한  
그 아쉬움이  
이날이때까지 내려가지 않으시여  
장군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우셨던가

우리 수령님 백두산에서  
빈 배낭 하나 메고오시여  
억만보화를 가득채워  
조국에 안겨주신 국보  
대를 이어 전해갈 민족의 국보

지구우에 단 하나  
국제천선전람관은  
그 푸른 지붕아래 온 세상을 맞아들인  
세계의 전람관

력사의 전람관  
오, 이것이 나의 조국  
오늘의 나의 조선!

내 여기서 다시 보노라  
이 조국, 이 조선을 지키시려  
풍파사나운 이 세기를 한손에 거머쥐신  
강철의 령장  
천하를 굽어보시는  
**김정일** 장군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이 땅에 밀려오는 제국주의 불구름을  
산산이 휘뿌려 던지시며  
어제도 오늘도 쉬임없이  
최전연전선길을 걷고걸으시는  
조국의 최고수호자  
무적의 최고사령관

눈오고 비바람부는 전선길  
걸음걸음  
내 조국의 존엄을 떨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자욱을 떠나서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이 땅의 물 한방울을 생각할수 있으랴

세상이 다 알고있어라  
우리 장군님 계시지 않았다면  
수령님을 잃은 그 시각에  
제국주의 사나운 광풍앞에서  
우리 조국은 열번도 더 무너졌으리  
우리 인민은 삶의 터전을 잃고  
열번도 더 노예가 되었으리

말하라, 전선길이어  
번개를 안으시고 천리  
우뢰를 안으시고 천리  
우리 장군님  
몸소 야전군용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넘으시던  
못잊을 철령이여, 네가 말하라

네가 다 말하라  
한척의 단정에 몸을 실으시고  
최전방 섬초소를 찾으신 그이를 우러러  
감격에 목메여 기슭을 치던  
초도의 파도여  
분계연선에 소리없이 흐르던  
판문점의 젓빛안개여

서리발 번쩍이는 총창우에  
우리의 푸른 하늘이 열려있고  
수령님 물려주신 붉은기  
정의와 진리가 있기에  
주체조선의 운명이 담보되기에  
우리 장군님 걷고걸으시는  
전선길  
전선길

이 전선길이 있어  
나라의 자주권  
공화국의 최고권익이 수호되고  
영광에 넘친 반세기  
이 나라 력사가 빛나거니

내 오늘 말하고싶구나  
국제친선전람관  
이 로대우에서  
내 조국의 어제와 오늘을 두고  
사회주의를 잃고  
조국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두고  
인민의 마음  
인민의 목소리로  
나는 력사에 웨치노라

조국이며, 너는  
하늘이 있어 조국이 아니더라  
땅이 있어 조국이 아니더라  
선조의 무덤이 있어 조국이 아니더라

들으라, 세계여  
끝간데 없는 청청하늘에  
광활한 대지우에  
력사여, 이 진리를 새기라  
수령이 없는 조국은  
인민의 조국이 아니다!

이는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고넘어  
승리와 영광을 수놓으며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반세기력사의 총화!

수령님과 장군님 지니신  
절대의 권위  
절대의 신뢰가  
그대로 조국의 존엄이 되고  
그대로 조국의 무게가 되고  
그대로 조국의 기상이 된

사회주의 내 나라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김일성**동지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공화국  
주체의 우리 조국이라 부른다

무상의 영광을 지녔구나  
나의 조국이며  
세상 천하 행복을  
네가 다 안았구나  
위대한 나의 조국이며

내 어찌 한자루의 붓으로  
그대를 다 노래할수 있으랴  
그대 지닌 그 숭엄함과 장엄함  
그대 지닌 아름다움과 슬기로움을...

이 나라의 아들 된 긍지로  
가슴부푸는데  
문득 산천을 울리며 들려오는  
그리운 그 음성

단풍도 붉게 물든  
묘향산의 가을날에  
여기 로대우에 오르시며  
이 나라 금수강산에 새기시며  
우리 수령님 읊으시던  
불멸의 시가여

로대우에 올라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 절경이야 래고부터 있는것을  
전람관 여기 솟아 푸른 추녀 내려퍼니  
민족의 존엄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

만산에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리  
로동당 새 시대에 해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고와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 수놓누나 이 나라 새 력사를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 력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아, 흥하는 로동당시대  
룡성번영하는 조국의 오늘이 그리도 기쁘시여

두손을 허리에 짚으시고  
우리 수령님 바라보시던  
조국의 자랑 민족의 자랑은  
만만대에 이어졌나니

9월이여  
하늘이 들리도록  
만세소리 터져오르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명절이여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살아온  
공화국의 반세기  
그 영광의 반세기가 있어  
유구한 반만년력사가 빛나고  
천만년 미래가 창창하거니

이 반세기를 이끄시고  
21세기 력사의 대문을 여시는  
강철의령장  
사회주의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그이 손들어 가리키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길  
그이 가고가시는 최전선길은  
조국이 최후승리를 떨치며  
강성대국으로 가는 길

하기에  
그이를 결사옹위하여  
천만이 총폭탄으로 일어서고  
그이를 따라  
고난의 길 천리  
강행군길 천리도  
우리 웃으며 가지 않느냐

보라  
공화국의 첫 위성에서 울려나오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들으며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들으며  
벗들은 경탄하고  
원수들은 전율하거니  
정녕 우리의 힘  
주체조선의 위력은  
그 무엇으로 계산할수도 헤아릴수도 없으랴

신심은 넘쳐라  
심장은 뚫어라  
그이의 안광이 비껴가는 3천리강산에  
해빛은 눈부시게 쏟아져내린다  
온 민족이 얼싸안고 울고웃을  
통일의 함성이 메아리쳐온다

나라의 룡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주의조국의 국방을  
국가정책의 첫째가는 중대사  
혁명의 제일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21세기앞에 거연히 나서신  
백두의령장

새 세기의령술자  
새 세기의 최고사령관  
강철의령장 **김정일**장군을 따라  
인민은 나아간다  
조선은 나아간다

아, 우리 겨레  
**김일성**민족이  
영원히 안겨살 만년터전  
세상에 오직 하나  
그 이름도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수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민족의 강철의 보호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손길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조국이 있나니

번영하라  
천년만년 무궁번영하라  
인민의 내 나라  
사회주의 내 나라  
수령님을 높이 모신  
**김정일**장군의 나라여

길이길이 떨치라  
강성대국 우리 조선  
부흥조선 우리 조국  
누리에 떨치라  
후손만대에 떨치리!

## 강성대국 나의 조국, 부강조선아!

안경철

지금 이 시각에도 우주공간에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들과 함께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전신부호가 날고있다. 이것이 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가 전송하는 부호임을 세계는 안다.

주체조선의 국력을 과시하며 세계최첨단수준에서 발사된 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

세계는 분명 강성대국의 첫 포성을 들었다.

세계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감에 지구상의 그 어떤 원썬도 단매에 짓부셔버릴 수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첫 포성.

사회주의가 정치, 군사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자본주의를 타승하고야만다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의 포성.

단 하루라도 남에게 빌붙어 남의 눈치를 보아가며 살아온적 없고 비록 오늘은 어렵더라도 래일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해온 궁지높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의 승리의 포성. 오, 장엄하여라,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계기로 높이 올려퍼진 조선의 위력한 포성이여.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경사가 터쳐올린 감격과 환희로 더욱 장엄한 포성이여, 그것은 정녕 절세의 위인을 모신 남다른 민족적자긍심과 행복을 누릴길 없어 우주를 향하여 터쳐올린 우리 조국의 영광의 포성이 아니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발휘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그가 이룩한 빛나는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그를 높이 존경하여 따르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에 불멸의 이정표로 아로새겨지게 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감격과 흥분이 세차게 끓어번지던 그 역사적인 회의를 우리는 잊을수가 없다. 주체87(1998)년 9월 5일,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인 만수대의사당.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회의장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지축을 울릴듯 오래동안 장내를 진감하던 환호성, 자애로운 시선으로 회의참가자들을 둘러보시며 답례를 보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아, 진정 그이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시였던가.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진두에서 뚫고 헤치시면서 우리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기상을 세계에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

회의참가자들의 눈가에서 뜨거운것이 번쩍이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헤쳐온 준엄한 혁명의 길, 우리 조국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 이날로 오기까지의 그 많은 날과 날들이 눈앞을 스쳐지났다. 아울러 공화국의 50년 력사가 응축되던 순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호하시는 우리 조국의 영광찬 반세기. 천지개벽한 조국의 전변의 력사를 두고 우리 인민에게는 추억도 많다.

50년전 맑고 푸른 하늘아래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부르던 그날로부터 불타는 고지에서 포연그슬린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전호숙의 나의 노래》를 부르던 그 날들, 전승의 열병식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웨치고 천리마기수의 영예를 온 세상에 펼쳐가던 환희의 나날들.

추억도 새롭다. 사회주의대전설장에 올려퍼지던 창조와 위훈의 노래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새거리의 해빛밝은 도로를 거닐던 그 기쁨과 감격이...

추억의 년대마다에 새겨지는 우리 인민의 영예와 자부심,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세상에 가장 위대한 조국, 위대한 인민으로 되였다는 영예와 자부심이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보다 더 위대한 조국, 더 위대한 나라를 모르며 그런 조국을 일떠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보다 더 위대한 수령을 모른다.

지난 반세기의 세계를 둘러보아도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령전바람, 압력바람, 개혁바람에 적지 않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의 자주권을 짓밟히였다. 그런데 우리 공화국은 어떻게 나라의 자주권을 억척으로 고수할 수 있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 사회주의를 일격에 쓸어간 그 모진 광풍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난

공불락의 요새로 세기우에 높이 솟아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추억은 말한다. 우리 공화국은 한 시대에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두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신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공화국이라고...

뜨거운 추억의 열풍이 끓어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에서 참가자들은 회의의 첫째 의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새로 앉혀진 헌법서문과 공화국주석제를 오직 수령님의 존함파만 결부시킴으로써 수령님을 영원한 주석으로 받들어 모실데 대한 숭고한 뜻에 접한 회의참가자들은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다.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수령님의 국가로 빛내여 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

회의참가자들의 격동된 심정은 회의의 둘째 의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추대》에서 활화산마냥 폭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령님께서 생전에 발기하시고 추천하신대로 변함없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받들어 모시었다.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오르던 그 시각은 획기적인 변혁의 새 력사가 시작되는 영광의 시각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 진정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 모심으로써 그 어떤 세계적인 동란속에서도 끄떡없이 그 어떤 력사적위업도 승리적으로 이룩하면서 강성대국의 위용을 높이 떨칠 위력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국방이야말로 국가정치의 첫째가는 중대사이며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생명선이다. 탁월하고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 련전련승하시였으며 생사를 판가리하는 일대 위기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총대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의 과시로 된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

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화국을 이끄시는 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불패이며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덤벼들수 없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상징이시다.

나라의 강성은 령토의 크기나 막대한 물력에 있는것이 아니다. 나라의 작고 막대한 물력이 없어도 사상과 총대가 강하면 세계적인 강대한 나라로 될수 있다.

커다란 령토와 막대한 물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사상에 병집이 들고 총대에 쏙이 쏘여 《대국》의 지위로부터 약소국의 처지로 굴러떨어진 그 가슴아픈 실례를 우리는 알고있다.

한푼의 딸라에 주눅이 들어 사상의 자부심을 잃을 때 총대의 과녁에서 원쑤를 잃게 되며 제국주의가 내두르는 《자유》의 광고판은 그들의 목을 조이는 울가미로 되었던것이다.

그 울가미를 쓴 민족들이 《2부류의 인간》으로 취급을 당하는 자기들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자기 나라가 《반식민지나라》로 되었다고 애타는 절규를 하고있다.

사상과 총대에 흔들림이 없을 때 그 민족의 존엄과 생사존망에 흔들림이 없는것이다.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으로 틀어쥐고 일당백, 일당천의 총폭탄으로 만드신것,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의 업적중의 업적이다.

사상과 총대를 강성대국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시고 우리 인민을 강성의 최절정에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민족의 속성을 보려거든 그 강성을 먼저 보라. 일시적인 안일과 호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래일을 위하여 사는 사상과 신념, 의지의 강자, 바로 이것이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김일성**민족의 강성이고 그 어떤 핵무기도 두렵지 않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성이다.

강성대국, 부강조선!

어려운 경제난관과 자연재해로 인한 애로도 놓여있지만 그속에서도 세계최첨단과학기술의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시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는 여기에 부강조선의 강성이 있다.

창공높이에 람홍색공화국기가 날리는 내 조국의 9월! 우리 공화국의 탄생 50돐을 알리는 이 력사의 날에 우리 인민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의 위성이 불변의 궤도를 돌듯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 승리의 그날을 생각하는가!

승리하리라, 강성대국 나의 조국이여!

영원무궁하라, 부강조선!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나라!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김일성

반향묵음

##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반세기의 영광넘친 년륜을 아로새긴 공화국의 창건절을 맞는 경사스러운 이 시각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우리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했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전체 시인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새로운 창작적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원고지를 마주하고 두볼에 흐르는 감격의 눈물을 씻을념없이 붓을 달리는 모습에서도, 서로 서로 창작한 작품들을 놓고 흥분한 얼굴들에도 장군님을 높이 모신 이 세상 가장 복받은 인민의 감격과 행복이 그대로 어려있다.

일찌기 경애하는 장군님의 슬하에서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는 고귀한 믿음을 받아안고 걸음걸음 주체문화건설의 보람찬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서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절감하며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게 된 우리 시인들에게 있어서 그 흥분은 남다른 것이며 그것이 창작하는 시작품들에 그대로 옮겨지고있다.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이 우주의 공간을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가득채울 때 시대의 령마루에 높이 서서 강성대

국의 위용과 존엄의 숨결을 안고 분출하는 시인들의 심장의 노래 또한 온 누리에 격조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파란많은 세계정세의 파동과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끊임없는 집중공세속에서도 끄떡없이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조국의 위상을 떨치며 백전백승의 한길로만 달려온 력사의 체험자들로서 장군님만 계시면 언제나 이긴다는 신심과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효의 한마음이 신념과 의리로 체질화된 시인들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어찌 뜨겁고 절절하고 열정에 충만되지 않으랴.

우리들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발표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오늘의 이 흥분, 이 열정을 안고 세계적인 걸작들을 더 많이 써냄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저는 창작지도일군의 한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시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하여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조

## 웨치노라!

나는 시인이 아니다. 가슴속에 끓고있는 기쁨과 감격을 격조높은 시어로 엮을줄도 웨칠줄도 모른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굵고 더 높은 목청을 가지고있는것도 아니다.

하지만 웨치노라! 온 나라의 환호성에 합쳐 웨치노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이 영광, 이 기쁨, 이 행복을 세계만방에 가슴터쳐 웨치노라.

사람들이 울고웃으며 환호성을 울리고있다. 도처에서 학생소년취주악대와 방송차들이 팡팡 기쁨을 터치고있다. 쾩파리, 북소리도 그에 지지 않는다. 내가 사는 광복거리에서는 100미터너비의 대통로를 짝 메우며 늙은이들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나가고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도 있다. 주름깊은 눈귀에 감격의 눈물이 어린 저 할

머니... 그 할머니도 웨치고있다.

웨치고있다! 벅찬 기쁨과 감격은 목갈린 웨침소리로만 터치는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전 항일혁명투사들은 백두광명성탄생을 만방에 알리는 환호성을 아릅드리거목들에 새긴 글발로 터치였었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적들의 총구가 눈앞에서 번뜩이는 관문점에까지 나가시였을 때 그곳 초병들은 두팔을 높이 쳐들고 만세의 환호성을 소리없이 터쳤었다.

그 웨침소리를 온 세상이 들었다. 심장의 더운 피를 내뿜는 그 웨침소리에 적들은 치를 떨었다. 지금도 나는 그 웨침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사람의 한생은 고고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한때

고리끼는 그 고고성을 《나다, 나다!》 하는 웨침 소리로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 고통속에 짓눌려살며 자기가 무엇때문에 태어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있으며 어떤 일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채 죽어갔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은 알고있다. 《나다!》하고 태어난 그 의미를 알고있으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알고있으며 자기의 생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잘 알고있다.

얼마전에 우리 인민을 격동시킨 조선인민군 17명 영웅들의 빛나는 삶에 대해서만이라도 상기해보라.

뜻밖의 산불때 온몸이 불타 쓰러지면서도 구호문헌들을 구원하고 쓰러진 애젊은 청춘들, 그곳부대 지휘관들중의 한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들은 모두 행복만을 알며 자란 새 세대들입니다. 남들보다 별로 뛰어난 점도 없는 평범한 병사들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한품속에 안겨 자라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키워주는 그 사랑, 그 은덕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의리심을 간직하고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은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한몸 서슴없이 바치게

했던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알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우리의 삶과 미래가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문무재력을 겸비하시고 특출한 천품과 비범한 령도력으로 지난 30여년간 우리 당과 혁명,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오신 장군님.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제국주의의 봉쇄와 압살책동,련이는 자연재해로 고난과 시련이 겹쌓였지만 어느 한시도 쉬임없이 천만리전선길을 걷고걸으시여 최후승리를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진정 그이의 사상에 매혹되고 그이의 신념과 의지에 매혹되고 그이의 비범한 령도와 덕망에 매혹되여온 우리 인민이었다.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에서 그이의 위인상을 목격하고 체험했기에 위인승배의 환호성이 지금 저 춤과 노래의 바다에서 폭풍같이 터져오르고있는것이다.

웨치노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승배심의 이 목메인, 웨침이 이제 쓰게 될 총서 《불멸의 향도》중의 장편소설 《최전선》의 글줄마다에 피처럼 진하고 붉게 새겨지리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크나큰 영광의 체험자, 그의 기록자가 된 이 행복을 가슴터쳐 웨치노라!

《**김일성**》계관인 소설가 정기종

## 강성대국문학건설로 21 세기의 태양을 모시립니다

건국의 어버이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신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우리 조국을 창건하여주신 50돐이 되는 이 뜻깊은 시각에 우리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우러러 모시게 되었으니 우리 인민과 우리 작가들은 이 세상 최대의 행운을 타고난 인민입니다.

지난해에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수위에 높이 모신 최대의 행복을 누렸는데 오늘은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는 경사를 맞이했으니 정말 우리는 만복중에서도 가장 큰 복인 수령복, 장군복을 받아안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어버이수령님의 건국업적을 영원히 빛내여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의 운명이시고 삶의 태양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가오는 21세기는 **김정일**세기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의 강행군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웅대한 구상을 하시고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령마루에 올라서고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강성대국문학건설로 21세기의 태양을 높이 우러러 모시겠습니다.

주체사실주의기치가 세계를 진감하며 높이 휘날릴 21세기의 강성대국문학건설에서 우리 평론은 선도자가 되어야 하며 척후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는 데서 나서는 미학리론적인 문제들과 창작실천적인 문제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문제성있는 평론들을 많이 쓰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으로써 우리 평론의 선도성을 더욱 강화하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론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학 령도업적을 빛내이는데서 최전연에 튼튼히 서있겠습니다.

은종섭



## 조국에 바치는 사랑

최영화

내 지금껏 바라보던  
우리 하늘의 푸른 빛도  
우리 땅의 모든 아름다움도  
그 감흥이 다 새로워지는 조국이어  
그 이름 조용히 부르면  
거룩한 영상이 마음가득 어리노라

우리 수령님  
반만년의 숨결이 끊어져가는 조국을 안고  
항일전의 불바다를 헤치신 그 피어린 길이  
오로지 인민의 조국을 위해  
국토가 닳도록 걸으신 그 한생의 길이  
그대로 주체의 혈맥이 되어 뿜히는  
위대한 나의 조국이어

그대는 진정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이노라  
그 품에 새 뿌리를 내리고  
그 품에 무성하게 자라 청청하게 설레이며  
주체의 년호로 세월의 년륜을 새겨가는  
아, 수령님의 조국

우리 장군님  
그 이름 **김일성** 조국이라 불러주시고  
수령님의 태양상으로 빛내시는 조국  
그대는 오늘 장군님의 광망속에  
얼마나 성스러운 존함으로  
얼마나 존엄높은 모습으로  
누리에 그 빛발을 날리고있는것이나

백두의 뉘를 지니고  
세계에 솟아있는 조국  
내 그대를 사랑하노라  
천지의 푸른 물에 행귀넌듯한

저 푸르디푸른 해빛의 하늘  
내 그 깨끗한 하늘종이에 붓을 달려  
이 시줄들을 옮겨놓고싶은 마음이노라

그대의 땅은 또 얼마나 창조로 끓는가  
산과 들을 가을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며  
한창 무르익어가는 구슬탄의 자랑찬 열매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을 따라  
얼마나 뜨거운 충효와 열정과 랑만이  
저 백두밀림의 끝없는 설레임처럼  
끊임없이 설레이며 물결치고있는것인가

조국이어, 사회주의로 끓는 우리 생활을  
나는 눈물겨웁도록 느끼며 생각하노라  
진정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였다면  
어찌 그대가 있고 그대가 빛나고  
어찌 그대가 강하고 무궁변영하랴  
그때문에 그때문에 우리 그대를

**김일성** 조국이라 긍지높이 노래하는것 아니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는 마음안고  
내 그대를 사랑하고 사랑하노라  
사랑하다 내 그 사랑을 안고  
한목숨 바쳐 한줄 흠이 된들 어떠리  
그것이 그대를 걸구는 밑거름이 된다면야...

위대한 **김일성** 조국이어  
내 그대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노라  
나는 그 무엇도 바라지 않나니  
다만 그대를 사랑하다 그 사랑을 부둥켜안고  
그대로 하나의 조각품으로 굳어질수만 있다면  
굳어져서도 내 그대를 사랑하며  
나의 조국땅우에 길이 살수만 있다면...  
이것만이 그대에게 바치는 나의 사랑이노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

최길상

우리 문학의 사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것이다. 여기로부터 우리 문학의 주제방향과 형상원천도 규정지어지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창작의 총적인 방향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형상하는데 있다. 모든 작품의 주제는 다 이 총적방향으로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문제들이어야 한다.》**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과 총적방향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본도이며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문학의 사상주체적지향과 구체적인 문제성도 여기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정서와 열정도 여기에 근본바탕을 두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이다.

사회주의조선, 김일성민족의 탄생과 승승장구성, 존엄과 위용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며 무궁번영하는 미래도 이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환경속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건하여 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공화국창건 5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지난 50년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가 온갖 력사의 시련을 뚫고 힘있게 전진하여온 승리와 영광의 50년이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남김없이 표시된 위대한 변혁의 50년이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김일성조선, 첫 태양민족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으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며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자주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무궁한것은 수령님께서 한평생 쌓아올리신 업적이 인류정치사상 전대미문의 위대한것이며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에 걸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이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그 무슨 말로도 다 칭송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그 하나하나가 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불멸의 재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도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영원한 지도사상이며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업적과 정권건설업적, 군건설업적을 비롯한 모든 업적들도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가면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만년재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그 어느 정치가도 견줄수 없는 이러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것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영원한 칭송을 받고계시며 수령님의 업적은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후손만대를 두고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원천으로 하고있는것은 우리 문학이 누린 최대의 영예와 특전이며 주체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의 영원한 생명력을 담보해주는 근본요인이다.

뜻깊은 김일성조선의 탄생 50돐을 맞는 우리 작가들은 지금 이 땅우에 사회주의조국을 세워주시고 부강번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문학형상으로 드높이 칭송할 창작적 열정과 흥분에 휩싸여 있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김일성민족의 아버지이시라는것을 기본문제성으로 하여 형상의 나래를 활짝 펴나가야 한다.

현대조선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오로지 우리 인민의 행복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천신만고를 다 헤치시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조국을 창건하시고 부강번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우에 자주적인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시고 이끄신 나날은 어느 하루 한순간도 휴식을 모르고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불타는 열정과 끝

없는 헌신성으로 수놓아진 나날이며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오신 나날이며 조국의 앞날과 후대를 위하여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신 혁명의 성인의 숭고한 력사의 나날이다. 사회주의조선의 탄생과 장성발전제로의 력사의 자욱이 새겨진 이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 겪으신 시련은 그 무엇으로써도 다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를 앞장에서 헤치시였고 건국의 초행길과 조국해방전쟁의 불비속도 진두에서 일어나가시였으며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난관도 과감히 뚫고오시였다. 조선혁명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결전장마다에는 언제나 우리 수령님께서 진두에 서계시였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과 혁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높은 책임성으로부터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언제한번 편히 쉬신 적이 없으시였다. 참으로 현대사회주의조선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이 빛나는 력사이며 오늘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이 누리는 모든 존엄과 긍지와 영예는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조선을 세워주심으로써 누리는 특전이다.

우리 작가들은 바로 사회주의조선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다양한 형상을 통하여 칭송하여야 한다. **김일성**조선의 시조를 모시고 위대한 력사의 순간들을 체험하였으며 **김일성**민족의 영예를 누린 첫 세대 작가들에게 있어서 자기 시조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영광은 없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이 땅위에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한생을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인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혁명을 령도해오신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이시라는것을 형상으로 힘있게 칭송하여야 한다.

인민들이 천세만세 높이 받드는 위인에게는 인민과 한덩어리가 되어 투쟁해온 숭고한 력사가 있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러 나라 정치지도자들이 인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것은 이러한 인민적인 력사를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이다.

80성상에 걸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사랑의 감동적인 서사시가 수놓아져있다.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좌우명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여기시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들과 무릎을 같이하시고 그들의 소박한 의견도 들어주시며 인민들의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으로 이끌

어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에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이 위대한 혼연일체가 이룩되고 끊임없이 강화되어온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업적이 그처럼 빛나는것이다. 우리 수령님은 인덕으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베푸심으로써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다함없는 존경을 받으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시였다. 우리는 세계정치사의 어느 갈피에서든 우리 수령님과 같은 인민적수령의 력사를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과의 혼연일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그 무엇으로써든 흔들어놓을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과의 혼연일체를 문학의 모든 형태와 다양한 형식으로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불패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안겨주는것으로써 우리 문학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큰 감화력을 가지고 만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더욱 높이 울려퍼지는것도 이 땅위에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위인상을 뜨겁게 노래했기때문이며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비롯하여 인민의 수령을 노래한 수많은 시가작품들이 강한 견인력으로 인민들속에서 높이 울려퍼지는것도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높이 칭송했기때문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해방된 이 땅에서 **《최명진》**(장편소설 **《새봄》**)이들을 만나 허물없이 그들의 소망도 들어주시며 땅에 대한 농민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이야기, 전후 빈터우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주용녀》**(장편소설 **《빈터우에서》**)와 **《로장섭》**(장편소설 **《철의 신념》**)들을 만나시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우리 문학에 형상된 인민들속에 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이 그토록 뜨겁고 자애롭게 우리의 심장속에 영원히 새겨지는것은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인민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수령님의 업적이 끝없이 숭고하고 위대하기때문이다.

우리 작가들은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등 모든 작품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운명개척에 미증유의 자욱을 남긴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며 우리 세대뿐만아니라 후세들도 천만년 높이 칭송할 인민의 자애로운 수령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의 건국업적을 높이 칭송

함에 있어서 현시기 우리 문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창작실천적인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튼튼히 고수되고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더욱 빛나고있다는것을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힘있게 부각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수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의 위대한 계승자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30여년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혁명을 령도해오시었다. 오늘 이 땅에 빛을 뿌리는 모든 전취물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력사와 그 후계자의 력사가 완전히 일치하고있는 이 위대한 현실을 형상원천으로 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이 지닌 최대의 행운이 있으며 영예가 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형상원천은 그에 상응한 새로운 미학실천적문제를 요구한다.

우리 작가들은 아직 인류문학이 대상해보지 못한 현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이 일치하며 그것이 더욱 빛나게 옹호고수되고있는 새로운 현실을 형상대상으로 하고있는것만큼 피타는 탐구와 노력, 사색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형상세계를 탐구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의 건국업적을 칭송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대성형상이며 수령의 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우리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열렬한 긍정이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은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는 수령의 특출한 사회적지위와 관련하여 자기의 고유한 생리가 있게 되며 문학의 본보기가 될만큼 최상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수령의 활동을 몸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수령의 위업을 받들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전반을 조직령도하는 과정에 누구도 허물수 없는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과 관계속에서 다같이 형상하는것은 깊은 탐구와 사색을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형상과제이면서도 우리 작가들만이 누릴수 있는 최대의 영광스러운 창작과제이다.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된 서사시들인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와 장편소설들인 《푸른 하늘》, 《영생》, 《력사의 대화》, 《평양은 선언한다》 등 많은 작품들은 현시기 우리 문학이 제기하고있는 미학실천적인 문제들에 훌륭한 해답을 주고있다. 이 작품들은 두분의 위대한 수령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과 활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부각하면서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를 보장하고있다.

최근 우리 문학에서는 작은 형식의 작품에서

두분의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기 위한 탐구가 엿보이는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고있는바 여기에서 단편소설 《우리의 하늘》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이 이룩한 경험은 매우 귀중하며 시사적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함에 있어서 작가들이 탐구와 환상의 세계를 중형무진으로 넓히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민의 하늘은 더욱 푸르고 인류의 태양은 더욱 찬연하다, 이것이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 세계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환희의 메아리인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량심과 지성은 우리 작가들을 부러워마지 않으며 조선의 작가들이여, 만민의 하늘, 인류의 태양 **김정일** 령도자를 부디 우러러 모시고 충효로 받드시라, 그리고 당신들이 살며 창작하고있는 인민 숭배의 사회주의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지키시라, 그러면 당신들은 먼훗날까지 인류의 미래, 인류의 희망을 가꾼 선인들로 사람의 기억속에 길이길이 남을 시대의 명작을 창작할수 있을것이라고 뜨겁게 소망하며 부탁하고있다. 우리는 이 뜨거운 시대의 요청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명작창작으로 적극 화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두분의 위대성형상에 탐구와 사색, 환상의 심도와 폭을 대담하게 넓히며 새로운 형상세계를 적극 개척해나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수령님의 위업이 빛나게 계승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창작하는 긍지와 행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가지고 문학형상으로 수령결사옹위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한별동지를 목숨으로 옹위한 혁명시인 김혁동지처럼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작가, 당의 작가로서의 신념과 량심을 끝까지 지켜야 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높으신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을 삶과 투쟁, 창작의 최고목표로 내세우고 한생을 **김정일** 동지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작가로 살아야 한다.

아버이수령님의 건국업적과 그것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잘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세대 작가들이 지닌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다. 이 과업을 후대에게 넘겨줄수 없다.

모든 작가들은 공화국창건 50돐이 되는 이 력사적인 시기에 시대와 혁명이 부과하는 무거운 창작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오늘의 강행군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는 우리 인민들에게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어야 할것이다.

# 공화국기발

최정용

50년을  
지구우에 나뭇겨온  
공화국기발!

50년을  
인류가 눈에 익혀온  
공화국기발!

승엄한 걱정애 사무쳐 우리르노라  
9월의 창공에  
이 아침도 긍지높이 퍼덕이는  
내 조국의 영광스런 국기여

나 또한 50년을  
공화국기발 머리에 이고  
조선의 아들로 살아왔거니  
새겨져있다  
이 기발아래에  
내 인생의 뜻깊은 첫자욱이  
흘러갔다  
이 기발아래에서  
복받은 내 삶의 추억깊은 나날들이

나는 살지 않았다  
인간이 아니라 돈이 말을 하는  
자본사회에서  
굴욕의 피눈물을 씹으며 씹으며  
세상에 태어난것을 오히려 한하는  
그런 짓밟힌 인생으로는

남의 피땀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성실한 노력과 땀으로  
맛보는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내 오늘 세상을 굽어보며  
뼈저리도록 느껴안나니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주인이 되어  
누구나 마음 편히 살아가는 나라  
뜻을 같이하는 동지로  
정이 통하는 벗으로  
누구나 형제처럼 다정한 사회주의 내 나라

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세상에 땃땃이 머리를 든  
축복받은 우리의 삶은  
이 기발아래서 꽃피었노라

불러 어머니처럼 정답고  
안기여 마음이 따뜻한  
사랑하는 내 조국의 기발이여  
너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기치  
너는 우리가 안고사는 영예의 기치  
너는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의 기치

오, 그래서였다  
이 나라 영웅전사들  
피흘려 쓰러졌다가도 다시다시 일어나  
공화국기발 높이 추켜들고  
불타는 고지로 치달아오른것은

진정 그래서였다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우리 수령님을 환호하여  
외국의 벼들 손에손에 나뭇기던 공화국기발을  
우리 뜨거움에 젖어 바라보던것은

이 기발 가슴에 품고  
사선을 넘어온 전사도 있다  
한생토록 간직한 이 기발 넘겨주며  
살아 기어이 장군님 품에 안기라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긴  
남녘의 로인도 있다

아, 람홍색 찬연한 공화국기발  
세상풍과 그 아무리 사납다해도  
이 나라 아들딸들 목숨같이 지켜가는  
너는 우리 운명의 기치, 신념의 기치

오, 어떤 원썩가 감히 건드리랴  
5백년 5천년이 흘러도  
지구우에 빛나리라  
공화국기발이여!  
인류만대가 우러르리라  
성스런 주체조국의 국기여!



## 매혹

김준학

## 1

로잘린 부인은 시골의 자연풍치에 어울리게 뽀족지붕을 이고 서있는 호수가의 별장앞에서 이윽도록 붉게 타는 노을을 바라보고있었다.

아무리 저녁노을이 아름다운것이라 해도 그것은 황혼에 불과하다고 쓸쓸하게 여겨오던 부인이였지만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는 고향의 노을이 여서인지 류달리 감회가 새로왔다.

부인은 금방 대륙과 대양을 넘어 동방의 나라 조선방문을 마치고 한달만에 고향 조지아주의 플레인즈마을에 당도한 길이었다.

보면볼수록 노을은 아름답고 장엄하였다.

미구하여 해가 슬픏해졌다. 미국 동남부특유의 시뻘건 적토우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깃든다.

부인은 연보라빛의 얇은 원피스자락을 가벼이 흔덕이며 방으로 향했다. 남편 지미 카터는 래일 오전에야 돌아올 예정이다.

그는 주소재지 애틀란타의 카터센터에서 열리는 《김일성주석과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시정》이란 제목의 토론회에 참가하여야 했다.

남편에 대한 두서없는 상념에 잠긴 그의 마음은 사뭇 착잡하기만 하였다.

푸른 양탄자가 깔려있고 질서정연하게 기물이 배치되어있는 넓다란 전실 한가운데는 검은색의 그랜드피아노가 놓여있고 그 옆의 탁자우에는 미국의 초대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흉상이 틀지게 자리잡고있었다.

그는 워싱턴의 흉상을 바라보았다.

그간 무엇인가 달라져보였다.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날밤 로잘린은 이 거룩한 워싱턴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부처에게 성공과 안녕을 가져다줄것을 기원했었다.

그는 여직껏 조지 워싱턴보다 더 선량하고 량심적이며 선견지명있는 위대한 정치가는 동서고금에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 그 확신은 별찌마냥 가뭇 사라져버린다.

(왜서일까. 내 마음속에 찾아온 변화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다가간 로잘린은 추연한 마음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방안의 전등불빛이 창유리에 반사되어서인지 그 무엇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의 눈앞에는 팔십이 넘은 고령이십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시고 활달하신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모습이 안겨왔다.

《<이민위천>, 이것은 정치가로서의 나의 한생의 신앙이고 지론이며 또한 민족의 아들로서, 인

민의 증복으로서의 나의 생활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서해갑문을 바라보시며 하신 주석님의 회고담이었다.

한없이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의 우주가 비껴있는 주석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자자구구 음미해 보며 로잘린은 창문을 열어젖혔다.

밤이 이슬했지만 화끈화끈 화독처럼 달아오른 대기에서는 아직도 한낮의 혈기방장한 적동색 태양의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후각에 마쳐오는 태양의 체취가 풀내음처럼 들크무례한지 혹은 꽃향기처럼 달금하고 향긋한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어쨌든 불가형언적인 그 거대한 존재는 세차게 약동하는 우주만물의 활력에 넘친 생명리듬과 호흡으로 하여 어둠속에서도 맥맥히 온몸에 느껴왔다. 심장의 세찬 박동을 느끼며 그는 피아노에 마주앉았다. 피아노에서는 빠르고 짧은, 높고 박력있는 음조가, 로잘린의 그 애잔하고 몽상적인 야상곡과는 전혀 다른 숨막힐듯한 열광적인 힘찬 선율들이 담벽과 기물들에 사방 부딪치면서 어둠의 세계로 울려 퍼진다.

로잘린의 열정에 불타는 그 선율은 태양의 인력에 이끌리듯 동방으로, 조선으로, 김일성주석님에게로 내려쳐가고있었다. 마치 꿈처럼 여겨지던 평양방문의 그 나날은 로잘린에게 있어 참으로 눈부신 빛의 낮과 밤이었다!

## 2

조선은 아름다운 나라, 꽃의 나라였고 활력에 넘치는 여름의 천국이었다.

길가에도 꽃, 숲에도 꽃, 정원에도 집집의 창가와 베란다에도 온통 꽃, 꽃의 세계였다.

로잘린은 꽃을 사랑했다.

인간의 말과 표현으로써는 너무나 무력한곳에 언제나 꽃은 그 안타까움을 대신하여 수줍게 피여있고 그 어떤 의미심장한 눈짓과 섬세한 표정으로든 뜻할수 없는 마음의 진실을 생동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내보인다.

평양에 도착한 카터일행은 초대소에 숙소를 정했다. 그는 이 세상 그 어느 지역에 가든 너인의 마음에는 웃는 아이와 꽃이 낫선 법이란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조선의 대지에 피여난 꽃들은 왜서인지 별스레 낯설고 생소해보였다.

그는 구름처럼 피여난 조선의 그 모든 꽃들이 뜻하는 꽃말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으나 통 알수 없었다. 로잘린이 한생을 몸담고그 숙달해온 서방의 《고상한 문명》과 《지성》은 정치

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강요이고 탄압이며 말살이라고 가르쳐왔다. 그런 《문명》과 《지성》의 시각으로 보면볼수록 난데없이 고운 꽃으로 단장된 조선의 신비한 수수께끼의 나라처럼 생각되었다.

(어쩌면 나는 활짝 피어난 이 나라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도 놀란단말인가?!)

숫제 자신도 이해할수 없는 의문속에서 로잘린은 이리저리 몸을 궁싹거리며 평양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다음날 오전, 지미 카터일행이 탄 차는 금수산의사당으로 달리고있었다.

잠시후 그곳에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일행과의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된다. 날씨는 좋았다.

항시 무덤고 습한 조지아주의 여름날씨에 비해 조금 건조한 편이었다.

로잘린의 마음은 자못 흥분과 불안으로 설레었다. 아무리 태연해지려고 애썼으나 이미 동요하기 시작한 마음은 그 관성으로 하여 쉬이 진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번 회담의 운명을 혼자서 다 책임져야하는 까닭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던 남편의 마음속에 잠복해있던 불안과 위구의 《비루스》에 그 자신 감염된 모양이다.

자존심이 매우 강한 로잘린은 남편의 명예와 관련된 일에서는 무엇 하나 소홀하지 않는 리지적인 안해로 알려져있다.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다심한 부모의 사랑이 있고 성공한 남편의 뒤에는 현숙하고 충성스러운 안해의 남다른 노력이 따른다.

남편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때 로잘린은 네자식을 거느린 모성의 몸으로 독자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면서 선거유세활동을 드세차게 벌렸는데 이런 그를 두고 사람들은 《강철의 목련》이라고 불렀다.

자그마한 키에 몸집은 체소하나 그의 온몸에서 섬광처럼 풍겨나오는듯한 폭발적인 정열과 불굴의 강기를 표현하는데는 꼭맞는 말이었다.

정치가의 안해로서 또 가정의 주부로서 여직것 남편과 단한번의 큰 마찰도 없이 리상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룰줄 아는 로잘린의 이 장점은 평시에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그의 기질과 함께 역대 미국대통령 부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에스빠냐계혈통의 정숙한 녀성이란 점을 더욱 부각시켜주었다.

그러나 대통령부인시절에는 《정치참여가 지나친 로잘린》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은 의연 호의적인편이어서 로잘린은 역대 미국대통령부인들의 평가순위에서 다섯번째였다.

만약 카터정권이 한기 더 존속하였더라면 로잘

린은 그 평가순위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할런지도 모를 일이었다. 부지불식간에 로잘린은 자신의 불안이 지미한테서 전염된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지금 지미와 자신은 건국 이래 줄곧 미국과 맞서있는 적성국가의 경토안에 들어와있는것이며 더우기 오늘의 회담상대는 미국주도의 《유엔군》을 일격에 타승한 백전로장이며 오래전부터 자기의 조국인 미국을 가증스러운 《세계제국주의의 괴수》로 로골적으로 지명공격하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도처에서 미국의 각을 뜯어낼것을 선동한 견결한 반제투사, 여차하면 미국을 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최후결전도 서슴지 않을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다.

그는 추위를 타는듯 으쓱 몸서리를 쳤다.

슬며시 지미를 결는질해보았다.

육감적으로 안해의 긴장한 시선을 느낀 지미는 차창밖의 풍경에 주었던 시선을 거두며 그를 향해 밝게 웃어보이려 했다. 로잘린에게는 남편의 그 웃음이 부자연스러워보였다.

이번 평양결음이 카터부부에게 여직 있어보지 못한 긴장과 위구를 불러일으킨것은 그것이 제3자로서의 《분쟁중재》인것이 아니라 그들자신이 접전일방에 속한 류다른 《외교적교섭》이라는데있었다.

이러테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전쟁을 할것인가 아니면 제재완화의 유화정책으로 이행할것인가 하는 운명적인 기로에서 동요하고있는 현 미행정부는 권위있는 중재외교가로 알려진 지미 카터부부를 평양에 급파하여 북조선측과 대화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종래의 중동전쟁에서와 같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영예로운 정전》같은것을 기대하고있었다.

그러나 전쟁에서도 대화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 아닌가?!

로잘린의 뇌리에는 떠나오기전에 있었던 유쾌하지 못한 생활의 한토막이 떠올랐다.

느닷없이 평양으로 함께 가자는 지미의 말에 로잘린은 처음 한동안은 어안이 빙빙했다.

《평양엘요?! 뭣하러 가시겠단말이예요?》

《당신이 그걸 몰라서 묻소?》

지미의 무뚝뚝한 반문.

《난... 싫어요. 오늘호 조간신문에도 우리가 양보를 하면할수록 북조선의 오만무례성은 더욱 극도에 달할것이라고 썼더군요.

나도 미소의 량국대결구조속에서 생존해온 북조선에는 나약한 <유다의 키스식 외교>가 아니라 보다 단호하고 무자비한 힘의 정책, 즉 <포함외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격한 선언조의, 그러면서도 다소 신경질적인 로잘린의 어조가 비위에 거슬리는지 지미는 이윽도록 응대가 없다.

《로잘린, 정치가를 움직이는것은 사랑이나 증오심따위의 감정이 아니라 자국의 리해관계요. 우린 꼭 평양으로 가야 하오. 명심하오. 길을 잘못든 사람에겐 되돌아나올 기회라도 있지만 적수를 잘못 만난 싸움군에겐 투항할 기회조차 차례지지 않는다는걸 말ियो.》

늘 지미의 오른쪽 푸른 눈동자에 내리드리워있던 한오리의 길다란 흰 눈섭이 성난듯이 곧추 일어서 로잘린을 겨누고있었다.

그는 애써 눈웃음을 지으며 지미의 유포한 그 눈섭을 옆으로 쓸어붙여주었다.

《당신 좋을대로 하지요. ...남들이 알면 늘그막에 우리가 다투는줄 알겠어요.》

오로지 남편만을 절대 공경하고 받들줄 아는 《착실하고 현숙한 부인》으로 알려져있는 로잘린은 지미의 의사를 따를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수마냥 밀려드는 생각, 고향마을의 반디불마냥 무수히 엇갈려돌며 마음을 짓누르는 상념에서 헤여날수 없었다.

남편의 충실한 방조자이며 조언자이기도 한 로잘린은 그날부터 회담상대인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구입하여 열심히 탐독하였다.

그러나 로잘린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 책에는 **김일성**주석님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대개가 잊지 못할 동지들과 전우들 그리고 이름과 주소, 생사조차도 모르고있는 고마운 못사람들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있기때문이었다.

오히려 의혹만이 더욱 짙어졌다.

(**김일성**주석은 도대체 어떤 정치가일까. 그 무슨 비결로 하여 동구공산권의 완전봉피에도 불구하고 30대 홍안시절부터 오늘까지 단 한번의 은퇴압력과 탄핵도 받지 않고 의연 집권하고있는것일까?)

현실은 법칙의 레외사항으로 성립되어있다고는 하지만 《북조선의혹》은 그의 마음속에서 눈덩이처럼 나날이 불어만갔다.

그는 그 《의혹》의 답을 변화에 보수적이고 옛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심이 강한 아시아인특유의 심리적타성과 잔인무도하고 교묘한 통치술리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도 추측했다.

그도 그럴것이 로잘린은 유럽인들의 《개성자유》위주의 정치의식과 농목축사회의 가부장제적인 가족관이 국가와 사회관계전반에까지 확대되어 화석화된 아시아인들의 정치의식은 그 변수의 차가 매우 크다고 여긴데로부터 동유럽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전면봉피를 창출시켰지만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도 《프로독재의 강화》와 《존보의 후퇴없는 체제의 강경고수》라는 극히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로잘린이 가까스로 찾아낸 지정학적결론은 그의 《의혹》을 해소시켜준것이 아니라 더욱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게 했으며 한점의 빛도 없이 캄캄한 미노스의 미궁속에서 자칫자칫 손더듬하며 헤매돌게 했다. 현대사를 상기해볼수록 로잘린의 머리엔 왜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줄곧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왔을가 하는 물음만이 떠오를뿐 중시 그 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던 미국이 40여년 동안이나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적략탈을 당하고 그나마도 량단된 반도의 북쪽지역에서 건국을 선포한지 두해도 채 안되는 요람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총력을 기울여 전쟁을 하고서도 참패했다는것은 도무지 리해할수 없는 상식밖의 괴이한 결말이 아닐수 없었다.

그는 이미 두번이나 평양에 다녀온적이 있는 빌리 그라함목사에게도 조언을 청했다.

목사는 로잘린에게 신의 섭리에 따라 평양에 간다면 천국을 보게 되리라고 했다.

그는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옵기만 해도 대번에 히말라야산정의 적설처럼 불어나는 모든 의혹이 풀릴듯싶어 그의 마음은 지미보다 더 앞서 평양으로 달렸었다. 하지만 운명적인 그 시각이 한 초한초 가까와올수록 로잘린은 좀처럼 마음의 동요를 진정할수 없었다.

미합중국이라는 거대한 전함이 침로를 잃고 어디론가 끌려가고있는듯한 불안을 느낄뿐이었다.

《여보!》

《?!...》

문득 자신이 공연히 남편을 찾았다는것을 깨달은 순간 로잘린은 방긋이 애무의 눈길을 보내며 지미의 오른쪽 푸른 눈동자에 내리드리운 한오리의 길다란 흰 눈섭을 조심스레 손끝으로 살짝 쓸어붙여주었다. 눈부신 해빛속을 뚫고 달리던 승용차는

어느덧 의사당정원에 멎어섰다.

정원 한열의 못가에는 흰두루미며 백조들이 한가로이 깃을 다듬고있었고 꽃밭에는 벌과 나비들이 꿀을 걷어들이느라 부지런히 날아예고있었다.

목가적이라 할만치 고요하고 평온스러웠다.

갑자기 어디선가 미풍에 이 고요를 깨뜨리는 야수의 울부짖음같은것이 멀리에서 실려왔다.

로잘린의 묻는듯한 얼굴을 일별한 조선측 젊은 안내원이 《저 앞산기슭에 중앙동물원과 중앙식물원이 자리하고있다.》고 재빨리 설명했다.

그러자 로잘린의 눈앞에는 웬일인지 긴 코를 쳐들고 달려드는 성난 코끼리의 환영이 떠올랐다.

불현듯 옛날 전쟁을 좋아하는 어느 한 나라 왕이 정화회담대표로 왕궁에 도착한 로마사신의 의기를 꺾어놓기 위해 장막속에 집채만큼 큰 코끼



리를 몰래 숨겨놓았다가 불의에 무시무시한 피성을 지르며 긴 코를 드리우게 했다는 고사가 생각났던 것이다.

마음이 긴장되면 별의별 환각과 기억이 다 살아오르는 모양이다.

카터부부일행은 금수산의사당의 넓은 홀에 들어섰다.

맞은편에서도 여러명의 사람들이 나오고있었다.

로잘린은 어렵지 않게 제깐 회색양복에 연한 밤색넥타이를 매시고 성큼성큼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넘치신 박력있는 걸음으로 마중나오시는분이 **김일성** 주석님이심을 알아차렸다.

나이에 비해 퍼그나 젊어보이는 그분의 얼굴은 온통 웃음으로 환히 빛났다.

지미와 조금 떨어져 걸던 로잘린은 자신의 발걸음이 쿵쿵 뛸뛸 심장의 박동에 맞추어 저도 모르게 빨라짐을 의식했다. 평시에는 들을수 없던 미미한 자연의 소음이 한꺼번에 들려왔다.

걸음걸이도 몸가짐도 모든것이 어색했고 부자연했다.

《먼길을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부부오누이라더니 카터선생과 부인은 의좋은 오누이같구만요.》

처음으로 듣는 **김일성** 주석님의 우렁우렁하신 육성이었다.

선의와 친근감이, 무척 섬세하고 부드러운 정리가 느껴지는 아니, 호방하고 깊고깊은 웅심과 정력이 대뜸으로 안겨오는 저력있는 장년의 목소리였다.

지미는 처음 한순간은 몹시 당황한 빛이었으나 그마저도 곧 돌부처처럼 굳어지고말았다.

그는 자기가 잘못 듣지나 않았는가 하여 다시 통역원과 주석님을 번갈아보았다.

보통의 외교관페에는 없는 뜻밖의 인사말이어서 가뜰이나 긴장했던 지미는 미처 거기에 맞는 인사를 올릴수가 없었다.

그는 입에 오른 극히 관례적인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주석님과 포옹에 몸을 맡겼다.

로잘린은 지미와 함께 자신에 대한 불만을 느끼었다.

이름 못할 속박감이 지그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었다.

존엄높은 미합중국의 외교사절다운 위풍당당한 태도로 첫 상면에서부터 상대방을 은근히 위압하던 그 자신만만함을 잃어버린 남편을 목격한 로잘린은 사뭇 마음이 허전해났다.

그는 상당히 만족한 웃음을 띄우고계시는 **김일성** 주석님과 첫 상봉의 악수를 나누었다.

도수높은 안경밑에서 빛나는 주석님의 눈가에는 옛지기를 다시 만나는듯한 다심한 정이 어려있었고 해빛에 탄듯 적동빛에 가까운 얼굴에는 살뜰한 인정이 어린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박애의

성정이 느껴왔다.

로잘린은 점차 자신의 감정이 리성을 배신하고 있음을 의식하고는 소스라쳐 놀랐다.

그는 줄곧 뢰쟁해지려고 애쓰며 회담락을 마주했다.

회담전과정 지미는 주석님의 말씀에 한마디의 의의도 표하지 못했다.

주석님은 마치 하느님이 온 천하를 굽어보듯이 복잡하게 뒤엉킨 모든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환히 꿰뚫어보시며 회담을 이끌어나가시었다.

격렬한 론쟁과 조소, 나아가서는 결렬이라는 극적인 상황까지도 각오하고있던 로잘린은 평온한 회담분위기에서 오는 안도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주석님의 의도에 따라 뜻을 올리고 노를 저어가는 턱없이 공손해진 남편에 대한 야릇한 반발심과 민망스러움이 일시에 솟구쳤다.

지미는 파수원에 몰래 기여들었다가 붙들린 장난꾸러기 아이들때문에 주인에게 사과를 하는 부모와도 같은 그런 자세였다.

그러나 국제적인 정치회담과 분쟁중재회담들에 참가하여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던 로잘린이 그를 대신한다 해도 달리는 어찌할수 없는 막다른 사면초가의 난경에 지미가, 아니 미국이 빠져있다는것만은 확연해졌다.

그는 어망결에 지금 회담의 본제로 된것은 결코 북조선의 《해문제》가 아니라 경각을 다루는 미국의 운명문제라는것을 새삼스레 발견한듯싶었다.

그 어떤 제재도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석님의 시종 자신만만하고 배심있는 태도에 로잘린 자신이 어느새 중압되었는지도 모른다.

첫날 회담은 지미에게 위싱턴과 협의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산적시킨채 시름겹게 끝났다.

《카터선생, 시간도 퍼그나 지났는데 점심식사나 함께 합시다.》

주석님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시었다.

순간 지미는 얼굴에 태연한 웃음빛조차 띄워보였지만 실상 그것은 선생의 숙제검열이나 질문을 두려워하던 학생이 때맞추 올리는 하학종소리에 후- 안도의 숨을 내쉬며 지어보이군하던 그런 류의 다행스러운 얼굴표정이었다.

때로 그 표정에는 선생에 대한 말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도 은근히 비껴있는 법이다.

일행은 모두 오찬회장으로 향했다.

로잘린은 매 장마다 놓여있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송이에서 물씬 풍겨오는 그윽한 꽃향기를 들이키자 긴장이 한결 풀리었다.

인사말에 이어 축배잔들을 쥘었다.

주석님께서서는 자신은 별반 음식을 드시지 않고시고 손님들에게 원심을 쓰시며 이름난 조선료리를 권하시었다.

주석님께서는 흥미진진한 동서양의 고사와 일화들을 섞어가며 분위기를 화기에애하게 이끌어 가시었다.

그이의 환대에 마음이 흥그러워진 지미는 평소에 그닥 좋아하지 않던 룡담까지 하며 쾌히 응대하곤하였다.

로잘린은 그러한 남편의 모습에 다소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앞에 놓여있는 꽃에 가닿았다.

유별나게 큰 진홍색꽃이 눈길을 끌었다.

《카터선생, 부인이 대단한 꽃애호가인 모양입니다.》

주석님께서 화제를 로잘린에게로 돌리셨다.

그통에 로잘린은 심중이 드러날가봐 저어하듯 황급히 뜻이 분명치 않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렇습니다, 주석각하, 아마 하느님께서 저의 로잘린에게 꽃과 남편- 이 둘중 어느쪽을 택하겠는가 묻는다면 서슴없이 꽃이라고 대답할겁니다.》

어지간히 취기가 오른듯한 카터의 응대였다.

《카터선생,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평생 선생을 도와드린 부인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카터는 선량한 웃음을 담은 미더운 눈길로 로잘린을 바라보며 오른눈에 드리워진 하얀 눈섭을 옆으로 끌어넘겼다.

그는 옷차림과 외모단장에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전형적인 미국남부지방 사람으로서 로잘린의 손길이 가닿기전에는 결코 제손으로 그 길다란 눈섭을 넘겨붙이는 법이란 없었다.

오히려 드리워진 그 눈섭으로 하여 대방에게 일종의 위엄과 로속감을 시위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것이 별로 성가신모양 그러기를 벌써 몇번째.

《카터선생은 왜 여성들이 꽃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름답게 피어났다가 속절없이 지군하는 꽃에는 바로 여성들의 운명이 비껴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까지 가는 봄꽃이 없듯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매력이란 한시절뿐이지요.》

물론 <강철의 목련>으로 불리운 저의 로잘린은 제외하고말입니다.》

그는 평시의 파묵하고 근엄한 표정과와는 상반되는 다소 조롱기가 어린듯한 야릇한 눈길로 슬쩍 안해를 바라보았다.

《로잘린은 저에게 <여성의 진짜 인생은 50대부터 시작된다>고 설교하고있답니다.》

그러니 그 셈법대로 하면 저의 로잘린의 당년 나이는 이팔청춘 꽃나이지요.》

좌중엔 웃음이 터졌다.

로잘린은 확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남편에게 《당신은 너무도 교만하고 수다

스럽고 뻔뻔스러워요!》 하고 쏘아주고싶었으나 발끈하는것도 한순간이었다. 여기는 애틀란타의 저택이나 플레인즈의 별장이 아닌것이다.

《꽃에 여성들의 운명이 비껴있다는 카터선생의 말에 나도 동감입니다.》

소담하고 아름답게 피여난 꽃들에는 바로 이 세상 만복을 다 누려야 할 모든 여성들의 복된 운명이 비껴있다고 할수 있지요.

여성들이야말로 사람의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인정의 향기로 영원히 인간생활을 풍미롭게 하는 꽃중의 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인생은 50대부터>라는 부인의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부인?》

《고맙습니다. 주석님!》

로잘린은 **김일성**주석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고마웠다.

그는 온 신경을 모아 주석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그이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단어와 표현에 내포되어있는 미묘한 빛갈마저도 저나름대로 분석해보려고 안간애를 썼다.

《나는 이날이때까지 우리 여성들과 인민들의 극진한 사랑속에서 살아왔답니다. .》

비장한 각오를 안고 혁명의 길에 나섰던 지하투쟁시기에도 그렇고 조국해방을 위해 손에 총을 들고 산에서 싸울 때도 그렇고 아마 이 세상에는 나처럼 여성들의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리 흔치 않으리라곤 봅니다.》

주석님의 눈길은 가슴뜨거운 추억의 빛으로 그윽해보였다.

《그래서 나는 조국이 해방되면 천대받고 멀리 받던 우리 여성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들로 되게 하리라 마음다졌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해방성전에 자기의 피와 사랑을 다바친 우리 여성들에 대한 인간적인 응분의 보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에 다진 그 맹세를 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장내는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다 아시다싶이 우리 나라에서 농사일은 의연 힘든 일의 하나입니다. 그런 험한 일을 거의나 다 여성들이 맡아하고있습니다. 왜냐면 젊은 청장년들은 조국보위초소에서 총을 잡고있기때문이지요. 내가 년중에 농촌에 많이 나가있는것은 바로 해벌에 타고 터갈라진 우리 여성들의 얼굴이 보고싶고 또 그들의 힘든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싶어서이기도 합니다.》

로잘린은 가슴이 찌르르했다.

그이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로잘린에게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거쳐 통역되지 않고 그냥그대로 자

신에게 리해되는듯이 생각되었다.

마치 그이께서 미국식영어로 세련되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루밤사이엔 조선말을 다 익혔는지 주석님의 섬세하고 풍부한 얼굴표정과 꾸밈없는 몸가짐이 특유한 음성과 어울려 그의 말씀의 뜻이 충분히 안겨왔던것이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비의 경지에 휩싸였다.

《지금도 내가 제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것은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복과 남에 헤어져사는 부부들의 그 정상입니다.

30여년전에 나는 전쟁시기 미국의 원자탄공갈로 하여 남편이 남조선으로 나가는통에 졸지에 생리별을 당한 한 젊은 여성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여성에게 조국은 머지 않아 꼭 통일된다, 동무는 남편을 다시 만나 가정을 이루고 깨가 쏟아지게 살게 될거라고 하면서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일을 더 잘 하라고 고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나는 뜻밖에도 그 여성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늙은 그 여성을 말ियो.》

흥분으로 하여 격해지신듯 주석님께서서는 잠시 숨을 튄으시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는 글썄 아직도 재가하지 않고 남의 아이들을 데려다 기르면서 남조선에 있는 남편을 기다리고있다는게 아니겠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조국은 통일되지 못했소. 나는 아직 그들부부의 상봉을 마련해주지 못했소.

카터선생, 나는 당신이 그 여성의 소원과 고통을 풀어주자고 이역만리 여기 평양으로 왔다고 생각하오!》

진정에 넘친 주석님의 말씀은 조용히 끝났다.

좌중은 침묵했다. 말씀은 평범하셨지만 거기에 담긴 뜻이 사뭇 심중해서인지 누구 하나 감히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었다.

로잘린은 구원이나 바라듯 자기에겐 시선을 향한 지미에게 난색을 지어보였다.

취흥으로 하여 혈색이 불그스름하던 그의 낮은 창백하게 질려있었다.

(지미, 이런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과 나는 오늘의 이 회담준비를 면밀히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당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지요.

...우린 벌써 지고있는것 같아요.)

피로운 내면독백이 담긴 로잘린의 눈길앞에서 지미는 그저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로잘린은 고결한 인간사랑의 정념으로 불타시는 주석님의 눈길을 마주보기가 면난쩍었다.

《카터선생 그리고 부인, 내가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한게 아닙니까. 주인이 손님들에게 이야기까지 받쳐서 한턱 낸다고 생각해주시오.

자, 잔을 넘시다!》

어성버성한 분위기를 감촉하신 주석님께서 술잔을 들어올리시었다. 좌중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로잘린은 생각이 깊었다.

그에게는 이 세상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헌신적인 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조선의 한 이름 없는 농촌녀성의 모습이 자꾸만 가슴을 파고들었다.

얼마후 오찬은 끝났다.

그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통령부인시절 남편의 공식적인 대리인으로, 북미합중국정부특사의 자격으로 온 세계를 메주 밟듯하면서 수많은 군주들과 국가 및 정부 수반들, 제노라는 외교관들을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류다른 감정이 로잘린의 온몸을 찌릿하게 했다.

형언 못할 감정에 휩싸인 그는 마음을 다잡아 가라앉히려는듯 방안에 진동하는 꽃향기를 한껏 들이켰다. 탐스런 붉은 꽃들이 모두 욕심났으나 자존심으로 하며 그는 종시 한송이도 뽑아들지 못한채 방을 나섰다.

그날 오후 카터부부는 시내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특히 평양산원참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저녁 숙소에 돌아온 로잘린은 다시한번 이외의 광경에 어리둥절했다.

방안의 창가와 탁자우에는 연회장에서 본 아름다운 그 꽃들이 놓여있었던것이다.

얼굴이 희말은 안내원처녀가 **김일성**주석님께서 보내주신 꽃이라고 설명했다.

로잘린은 기쁨으로 마냥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그 꽃의 이름을 물었다.

《**김정일**화입니다.》

《?!》

무의식중에 그는 호-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세상에 정치가의 이름을 단 꽃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후계자의 존함을 모신 꽃밖에 없는것을! 그리고 그 꽃들은 모두 이 나라 국민들이 아닌 외국의 국가수반과 원예학자들이 명명하여 삼가 드린 꽃들이라는 사실이 불현듯 상기되었던것이다.

그는 가슴가득 심호흡을 했다.

그윽한 꽃향기가 폐부로 스며든다.

평양에서 보고 느끼고 들은것은 모두가 새롭고 의미가 깊어서 어느것 하나도 똑바로 판별해낼수가 없었다. 그저 얼퍼름하기만한것이 최면술에 걸린것 같기도 했다.

지미는 이밤에도 회담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래일은 어떻게하나 상정시켜야 할 미군유골인도문제를 비롯하여 아직 선도 보이지 못한 여럿의 난처한 문제들이 남아있었던것이다.

방안은 꽃향기로 가득찼다. 고요하다.  
평양의 밤은 바닥없이 깊어가고있었다.

### 3

이른날아침 본국에서는 차후지시를 기다려 대기하라는 연락이 왔다.

부득불 회담은 다음날로 미루어야 했다.

지미는 매우 당황한 낮빛이었다. 초조한 표정으로 방안을 거닐고있던 그는 비스듬히 소파에 기대어앉아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그는 주석님과 첫 상면시에 벌써 그 풍만한 인정미와 대범스러운 풍모에 마음이 끌려 은근히 제반으로 성공을 기대하며 회담의 전망을 낙관하였었다.

그러나 멀리 대양 건너로 간곡히 그들부부의 등을 떠밀어보낸 미행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하여 이처럼 곤경에 빠지게 되리라고는 한번도 생각지 않았던 지미 카터이고보면 더욱 그러했다.

지난 회담에서 도를 넘어 발휘되던 남편의 활기와 명랑성 그리고 지나친 수다스러움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던 로잘린은 숨쉬는 미이라마냥 꼼짝 않고있는 그를 보자 불현듯 자신들이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지미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4년임기의 전직 미국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녕에 공헌하는 《영원한 대통령》이라는 남다른 자부심을 안고있었다.

세도당당한 현직대통령도 감히 어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자기밖에 없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 미행정부의 간절한 기대와 성의있는 준비가 그로 하여금 모든 불안과 동요를 강요히 억누르면서 평양행을 결심하게 했던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회담을 래일로 미루어야 한다니?!

로잘린은 하루밤새에 자신들이 불모로 된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돌이켜보면 지미가 정계에 나선것으로 하여 로잘린에게 차레진것은 영광과 명예보다도 쓰라린 좌절과 수치가 더 많은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대통령부인시절 로잘린은 점차 자기가 즐겨 연주하곤하던 그 《반디불야상곡》에 환멸을 느꼈었다.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 곁어보니 자연그대로의 인간의 순수함을 노래한 자기의 그 야상곡의 세계와 위선과 권모술수의 란무장인 미국의 정치풍토는 너무나도 상반되었던것이다.

마침내 백악관에서 물러나던 그 마지막날밤 그는 오랜 세월 보물처럼 고이 간직해왔던 야상곡의 퇴색한 악보를 깡그리 불태워버렸었다.

그는 남편결에 나란히 앉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지미의 얼굴은 부석부석했고 레의 그 길고 흰 눈썹은 시름겨운듯 맥없이 드리워져있었다. 로잘린은 백악관을 떠나 남편의 심신을 부축하여 대통령시기보다 훨씬 더

명성높은 인물로 돋우보이게 했던 그 작고 굳센 손으로 지미의 눈썹을 쓸어붙여주었다. 그 순간에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금발머리의 보좌관이 들어왔다.

《각하, 김일성주석께서 방금 각하를 방문하시려고 여기로 떠나셨답니다.》

《뭐요, 김일성주석께서?!》

로잘린은 저으기 놀랐다. 영문을 알아차릴수 없었다. 하긴 그닥 모를것도 없는 일이다.

그는 주석님의 뜻밖의 방문목적이 바로 아무 실권도 없는 회담상대를 수세에 몰아넣고 망석중 놀리듯 하려는것이 아닐가 하고 추측했다.

김일성주석께서 아무리 인자하고 너그러운분이라 해도 어쨌든 우리는 승패를 판가리해야 하는 적아쌍방이 아닌가.

지미도 그런 생각을 한 모양 몹시 당황한 빛이었다.

하지만 로잘린은 놀랍게도 점차로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감을 느꼈다.

예감하고있던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도리어 안심하게 되는것이 심리현상의 변증법이 아닌가.

이어 밖에서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들렸다.

어제와 같은 제진회색양복차림을 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승용차에서 내리시였다.

밝은 안색이시였다. 주석님께서는 황황히 현관으로 달려나온 카터부부와 인사를 나누시였다.

《카터선생, 안색을 보니 편히 쉬지 못했는가보군요. 부인의 안색도 그렇구요. 혹 침실이나 기후 때문에 그런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석각하, 밤늦게까지 회담준비를 하다니 잠을 좀 설쳤는가봅니다.》

《카터선생도 그렇고 부인도 이제 일흔고개에 들어섰다는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소. 선생의 건강은 선생자신과 부인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으로 될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면하게는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는 나에게도 귀중한 재산으로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

자못 근심어린 표정을 지으신 주석님께 로잘린은 《주석각하, 어제 저희들의 숙소에 꽃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심심한 사의를 포함합니다.》 하고 레의를 갖춰 말씀드렸다.

《주석각하, 돌보셔야 할 국사가 많으시겠는데 저희들의 숙소를 찾아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카터의 인사였다.

《나는 주인이고 선생부부는 나의 손님이 아닙니까. 주인으로서 먼길을 온 손님을 찾아보는것은 응당한 일이지요. 우리 저 시원한 그늘에 앉아 얘기나 나눕시다.》



주석님께서는 나비모양의 연보라빛 꽃송이가 구름처럼 피어난 등나무아래로 향하시였다.

주석님의 한한 웃음빛이 점점 가까와지자 벌과 나비들은 더 성수가 나서 날아였고 포도송이같이 칠칠이 드리워진 등나무꽃들은 금시 더 밝게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풍겨주는듯싶었다.

로잘린의 뇌리속엔 언뜻 주석님께서 한담이나 나누자고 찾아오지는 않으셨을것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주석님에 뒤이어 카터부부와 그리고 주석님을 수행한 통역원이 의자에 앉았다.

《로잘린부인, 내가 오늘 카터선생을 찾아온 목적은...》 하고 주석님께서 쉬엄쉬엄 부채질을 하시며 선선히 말머리를 뽐시였다.

로잘린은 대변에 긴장됨을 느꼈다. 잔주름으로 토들토들한 목심줄이 뻗뻗해났다. 바질바질 타드는 긴장감으로 하여 일각이 삼주갈았다.

《부인이 사랑하는 카터선생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생활에는 때로 구면인데도 정이 안통하는 사람이 있고 초면인데도 대변에 흥금을 터놓게 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카터선생의 누이동생과 친구였던 부인이 우연하게 미남자로 성장한 해군사관생시절의 카터선생의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듯이 나도 그렇게 끌린 모양입니다. 하하!》

주석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시며 정 깊은 눈길로 그들부부를 바라보시였다. 지미와 로잘린은 저도 모르게 수집은 빗을 떠였다.

그것은 사실이다. 세월의 언덕넘어 아득히 흘러가버린 옛시절의 애뜻한 추억이였다.

《주석각하, 각하의 마음이자 바로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와 로잘린은 각하의 이렇듯 허물 없는 환대에 진실로 감동되었습니다.》

속삭이는듯한 카터의 그 《고백》에 주석님께서는 《그렇습니까, 정과 정은 언제나 통한다고 했는데 선생도 나와 같은 심정이라니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두사람의 친분관계가 앞으로 조미사이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하시였다.

지미는 경건히 머리를 숙여보이며 깊은 동감의 뜻을 표했다.

로잘린은 유심히 남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가 지미의 얼굴에 썩여져있는 마음의 알파벳트를 읽는데 의하면 그는 **김일성** 주석님의 뜻밖의 환대에 감동된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끌려들어가고있음을 의식하는 그런 피로운 심경이 나타나고 있었다.

《저는 어제 주석각하를 만나뵈고 제가 대통령 재임중에 평양을 방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면 부끄러운 일이 많아진다니 저의 경우가 바로 그런것 같습니다

다.

결코 후회는 앞서는 법이 없습니다.》

《카터선생의 그 말을 듣고보니 나의 친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생각나누만요.》

주석님께서는 지미에게 담배를 권하시며 자신께서도 한가치 집어드시더니 불을 붙이시였다.

향긋한 담배연기가 하많은 추억의 안개가 되어 흐르는듯싶은 고요의 순간이다.

세상사람들이 현대정치사에 특기할 놀랍고도 이채로운 국제주의적우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열렬한 공산주의자와 봉건국왕사이에 오고간 감동적인 화폭들이 로잘린의 눈앞에 떠올랐다.

로잘린은 망명도중에 병사한 이란의 파흐라비 황제의 일이 생각났다.

카터와 파흐라비는 친분관계가 각별했다.

그후 이란에서 이슬람교혁명이 일어나자 파흐라비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카터에게 미국망명을 제의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그를 도와줄수 없었다.

그렇지만 카터는 파흐라비황제정권을 복구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썼다. 이런 미국의 노력은 내정간섭으로 되어 이란에서 《미국대사관인질사건》을 발생케 했고 인질구출작전이 실패로 끝나는데에 대국의 체면은 여지없이 손상당하게 되었다.

결국 카터는 대통령재선에서 패하였다.

로잘린에게는 그때의 사변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들부부를 바라보시며 잠시 동안을 두셨던 주석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와 시하누크는 그때 초면이었지만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서로 인간적으로 반하였고 매혹되었습니다. 나는 정치의 근본이 사람이라면 외교의 근본은 신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비록 망명객으로 날 찾아왔지만 나를 친형처럼 믿고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그가 더 미더웠고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천만금을 가지고 온것보다도 더 값높은 변함없는 우정과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내가 오늘 카터선생을 찾아오게 된것도 바로 선생과는 친구로 사귀수 있다고 확신했기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마어마한 유일초대국의 대통령으로 수많은 수원들을 거느리고 우리 나라에 왔다면 이렇게 당신과 허물없는 한담을 나눌 기회를 마련하기 힘들었을겁니다.》

《주석각하의 말씀을 듣고보니 제가 공연한 후회를 한것 같습니다. 저는 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보통 미국시민의 자격으로 귀국을 방문하여

주석각하와 친분을 두터이 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로잘린은 놀랐다. 지미는 분명히 달라졌다.

그에게는 미국이 부여한 《실권》이 아니라 주석님께서 안겨주신 우정이 있으며 안해인 자기의 사랑과 다심한 정만이 아니라 주석님의 사랑과 인정이 그의 심장속에 가득차있다.

우습게도 로잘린은 지금껏 실패의 번민과 좌절 속에 몸부림치는 지미를, 그가 다시 일떠서도록 안해로서의 사랑과 애무로 위로해주는데서 자신의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만 했지 그와 진정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데는 자기의 자리가 없다고 방심했다.

로잘린은 문득 지미와 기쁨을 함께 하는 안해가 되고싶다는 일방이 마음속에 사무쳐왔다.

남편이 정치계에 나선후 로잘린이 처음으로 느끼는 여성적인 심정인지도 모른다.

주석님과 지미의 대화는 마치 올림프스산정에서 베풀어지곤 했다면 신들의 주연처럼 흥겹고 즐겁게 흘러갔다.

카터가 그 무슨 취미이야기를 꺼내자 주석님께서 《나는 낚시질을 대단히 즐깁니다. 만약 내가 주석의 자리를 내어주고 은퇴한 다음 카터선생과 함께 알라스카에 편여낚시질을 가자고 부탁하면 <시간이 없소.> 하고 나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으시었다.

《아, 아닙니다 주석각하, 저도 낚시질을 즐깁니다. 제 한달이 아니라 장장 일년이라도 기꺼이 주석님의 낚시동무가 되어주겠습니다. 주석각하, 꼭 알라스카로 오십시오. 제 낚시도구를 준비해 놓고 언제까지나 주석각하를 기다리겠습니다.》

《내 꼭 가겠소. 약속합니다. 우리 조미사이의 적대와 불신의 동토대에 온갖 꽃이 피어나는 그런 좋은 시절이 오면 내 만사를 불구하고 낚시질하러 꼭 가겠소. 카터선생, 그때면 나도 내 불장을 좀 보아야겠단말이요.》

주석께서 선량한 얼굴에 일순 욕심스런 표정을 지으시자 카터부부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미가 한술 더 떠서 동을 달았다.

《주석각하, 한 1년 낚시질 하느라면 잡은 편어가 대단히 많겠는데 그 처리는 걱정마십시오. 알라스카는 북극의 천연냉장고여서 언제까지나 보관할수 있을테니 시장에서 값이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제 몽땅 팔아치우겠습니다.》

《허허, 카터선생이 머리를 쓸줄 아는데요. 그러니 나를 북극의 얼음판우에 낚시군으로 고용해 놓고 선생은 에스키모인들의 얼음집에 들어가서 뜨끈한 차나 마시면서 장사를 하고있겠다는겁니까.》

그러다가 선생이 그 돈을 몽땅 가지고 훌쩍 애틀란타로 가버린다면 어떡합니까. 공연히 나만 밀리지 않을까요?》

《제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주석각하, 저를 믿어주십시오!》

지미는 왼손을 가슴에 가져다댔다.

《통담입니다. 나는 카터선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잡은 연어를 한마리도 팔지 않고 우리 인민들에게 다 나누어주겠습니다. 내가 머나먼 북극에까지 낚시질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야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김이 문문 오르는 구수한 생선국을 맛보며 기뻐하는 우리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참말 우리 인민은 좋은 인민입니다.》

지미는 생각이 깊어졌다. 형제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대비되며 아버지의 사랑은 또한 자식들의 효성과 서로 대비되군한다. 하지만 그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는 주석님의 그 사랑은 그이를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과 대비할수 있을가.

주석님께서 로잘린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향하시자 그는 밝은 웃음을 띄우며 자기는 주석님을 미국의 북서부에 위치하고있는 아이다흐주 포커렐로시로 모시고가겠다고 대답했다.

그 도시는 《전체 주민들은 모두 얼굴에 웃음을 담아야 한다》는 법조항을 채택한 《미소의 도시》로서 해마다 한차례씩 《미소축전》이 성대하게 진행된다고 한다.

《주석각하, 지금까지 저는 남편 지미의 웃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변에 끌어당기는 제일 환하고 매력적인 미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석각하의 그 미소야말로 정녕 해빛과도 같은 미소입니다. 이제 주석님께서 그 도시에 가시면 온 시민들이 주석님의 그 미소에 반하여 열광적으로 환영할겁니다. 축전금상도 틀림없이 주석님이 받으실겁니다.》

그러자 지미가 《주석각하, 그러면 이젠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부러 신중한 낯빛이 되여 의견조로 말했다.

《중전에 주석각하께서는 로잘린한테서 저를 뺏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저에게서 로잘린을 뺏아가셨구만요. 그렇지 않소? 로잘린?》

부인은 곧 웃음이 함뿍 실린 얼굴을 끄덕이였다.

로잘린이 구면지기에게조차 통담과 익살을 모르고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자제하고 조심하는 엄격한 사람으로만 알고있던 남편에게서 또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변칙현상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카터선생은 부인과 자신을 갈라놓고 생각합니까? 부부일심동체라는데 내가 선생과 친구로 된다는것은 선생의 부인파도 친구로 된다는 뜻이 아닐가요?》

주석님의 《역습》에 카터는 말문이 막히었다.

이어 웃음이 터졌다. 주인과 손님의 호탕하고 진지한 웃음소리에 머리우의 등넝쿨이 들썩이였

고 한낮은 더 밝아진듯싶었다.

주석님께서도 아직까지도 회담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으셨다.

중낮이 되어오도록 끝이 없을상싶던 손님과 주인의 이야기는 갑자기 나타난 일꾼으로 하여 중단되었다.

(무슨 일이 생긴것일가?) 하고 로잘린은 생각하였다.

주석님께서도 매우 섭섭한 안색을 지으시며 급한 일이 있어 돌아가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흥분하시는것으로 보아 회담과 관련한 그 무슨 중대하고도 긴급한 정황이 생긴 모양이었다.

로잘린은 지금 이 시각에도 래일 회담준비에 여념이 없을 북조선측 성원들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은근히 조바심이 났다.

지미의 보좌성원들도 회담의 성공을 위해 과열된 머리를 식히지 못하고 휴식도 잊은채 갑론을박하며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고있을것이다. 그들 부부는 오래도록 현관앞에 서있었다.

(주석님께 무슨 일이 생긴것일가?)

로잘린의 마음 한구석에 다시금 가벼운 불안이 머리를 쳐든다.

지금 북조선측은 우리 미국과 서방세계가 경악할 《폭탄선언》을 준비하고 지체지삼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마저 끝냈는지도 모른다.

로잘린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흠칫 온몸을 떨었다. 딱히 적어말할수 없는 그 불안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것이기도 했다.

하루해가 저물었다. 칠혹같은 어둠속에서는 반디벌레들이 빛을 그리며 뿔뿔들을 유혹하며 날아예고있었다. 어린 시절 플레인즈의 밤하늘을 날아예던 그 반디불인지도 모른다.

그날밤 로잘린은 별안간 꿈속에서 《반디불야상곡》의 부드러운 선율을 들었다.

정계의 타류속에 지미와 함께 로잘린이 몸을 잠그있던 왕년의 그 시절에는 좀처럼 들을수 없었던, 아니 듣기에조차 역겨워 불태워버렸던 《반디불야상곡》의 그 선율이였다.

순간 회열에 넘친 로잘린은 귀를 멍하게 하는 그 추억의 선율로 하여 꿈에서 깨여났다.

그러자 별안간 엄습해온 허전함에 그는 마음이 쓸쓸했다.

새벽은 아직 멀었다.

(빨리 해가 솟았으면...)

그는 캄캄한 방안에 숨어있는 어둑귀신이 무서워 동생들과 함께 이제나저제나 해님이 솟아오르기를 안타까이 속구구하며 고대하던 순진한 그 시절의 로잘린으로 되돌아간듯싶었다.

어둠의 공간속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찬란한 태양과도 같이 눈부신 영상이 보여왔다.

주석님께서도 시종 인간애에 넘치신 매혹적인

표정을 지으시고 밝게 웃고계신다.

하지만 그처럼 인자하시고 고결하신 그분이 백년숙적으로 피맺힌 적성국의 수반이시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떠오른다.

도무지 종잡을수 없이 형클어진 감정으로 하여 그는 마음이 착잡하였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명백했다. 그것은 로잘린이 평양에서 자기를 잃어버렸다는것이다. 아니, 로잘린부인은 만사람을 뜨겁게 품안아주는 김일성주석님의 한량없이 넓은 인정의 대하에서 비로소 플레인즈시절의 자기를 되찾은것인지도 모른다.

## 4

상쾌한 아침이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고 여름의 향기가 진동하는 대동강은 아름다웠다.

푸른 하늘, 푸른 산이 아기의 맑은 눈동자마냥 력연히 비껴있는 대동강의 수면을 헤가르며 한척의 유람선이 떠흘러가고있었다. 김일성주석님과 지미의 일행이 탄 유람선 《모란봉》호였다.

주석님께서 지미의 남다른 취미를 헤아리시여 회담장소를 유람선으로 변경시켰던것이다.

《카터선생, 이 대동강은 이 땅에서 기원한 우리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가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강입니다.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도 이 대동강물을 마시고 웅지를 키워 동방에서 제일 선참으로 나라를 세웠으며 그 위용을 만방에 널리 선양하였습시다.》

주석님께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대동강의 풍치에 흠해있는 지미에게 하신 말씀이시였다.

《또한 불미스럽기는 하지만 조선과 미국사이의 첫 접촉도 이 강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수면에 반사되는 해빛이 어롱거리는 주석님의 안광은 회억의 빛으로 하여 더욱 그윽해보였다.

주석님과 길동그런 회담탁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로잘린은 그이의 말씀의 뜻을 알수 있었다.

대동강에서의 김일성주석님과 지미와의 상봉이 매우 뜻이 깊게 생각되었다.

주석님의 선조들은 미국남북전쟁의 명장인 사만장군의 이름을 단 해적선을 침몰시켰고 지미는 그 전쟁이래 백수십년간이나 사만장군의 양키후손들이 독점하고있던 백악관의 대통령권좌를 뺏아낸 남부지방출신의 첫 대통령으로서 어쩌면 사만장군을 이긴 사람들의 상봉이라고도 할수 있는 류다른것이였다.

그래서 오늘의 이 상봉이 매우 이상야릇하고 신비한 그 어떤 알지 못할 운명의 조화처럼 생각되었다.

《주석각하, 저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제도와 정치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것이 량국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는 아무런 지장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주석님께 정숙한 낮빛을 띄우며 지미가 말씀드렸다.

《카터 선생, 우리도 미국을 백년속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과 미국인민이 평화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회답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주석님께서는 미군유골인수문제를 비롯한 지미 카터의 제의에 흔연히 동의를 주시었다.

주석님으로부터 뜻밖의 《황금의 사과》를 받아안은 지미는 벅찬 희열로 하여 현기증조차 일으켰다.

감히 바랄수 없었던 대성과에 로잘린도 전율비슷한 환희를 느꼈다. 미국식 실용주의의 가치관을 터득하고 한생을 살아온 그들부부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쨌든 이 회답의 성과여부였던것이다.

허나 로잘린은 그 성공이 지미의 기발한 외교술과 미국의 힘을 배경으로 한 강한 설득력의 결과가 아닌것만은 명백히 의식하고있었다.

주석님께서는 유람선우에서 대동강을 배경으로 카터부부와 사진을 찍으신 다음 작별의 오찬을 마련하시었다.

지미는 성과리에 끝난 회답을 두고 만심환희하여 다시 한번 주석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우애와 친목감이 넘쳐흐르는 좌석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흥을 돋구며 오고갔다.

활기에 넘치고 하얗 밝은 웃음이 떠도는 로잘린은 여느때없이 쏘아보였다.

그는 이제 주석님께서 필경 회답준비때문에 그처럼 급히 자리를 뜨셨을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자기는 피해망상중에 걸린듯 지미에게도 말 못하고 은근히 오늘의 회담결과를 우려했었다고 스스로없이 자기의 생각을 내비쳤다.

《아, 어제일말입니까?...》

반문하시는 주석님의 안색엔 언뜻 난감한 빛이 어렸다. 이국의 사절들에게 한마디로 이루 설명할수 없는 그 어떤 가슴앓힌 만단사연과 이름할수 없는 정회가 애수의 그늘을 비껴놓은듯 조금전의 밝은 빛은 점점 사라져간다.

《아마 나의 한평생에는 어제처럼 기쁜 날도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글썽 60년전에 중국의 북만에서 헤어져 생사조차 알길 없던 량귀동너라는 옛전우의 딸이 머나먼 중앙아시아에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겠소. 내가 수십년세월 그토록 안타깝게 온 세상을 살살이 다 찾았는데도 나타나지 않던 그 애가, 나를 따라 백두산으로 함께 가겠다고 참새처럼 재잘거리던 9살내기 꽃망울 그 소녀가 문득 파파늑은 할머니가 되어 기적같이 내 눈앞에 나타났더라 말이요. 고달픈 시집살이에 시달려 모국어도 많이 잊고 또 그 나라 말도 온전히 번지지 못하는 촌놈은이가 되어가지고 말이요!》

평생을 고생으로 살아온 그 너인과의 너무나 때늦은 상봉에 대한 가슴아픔으로 해서인지 자감

에 젖어든 주석님의 눈가에는 한점 이슬이 맺혀 있는듯했다.

(아니, 그럼 그 너인때문이었던말인가?!)

로잘린에게 있어 주석님의 말씀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러니 주석님에게는 이 외교회담보다도 그 너인과의 상봉이 더 중대한것이었던말인가?!)

그이는 분명 미국이 운명을 걸고 주시하는 이 회담에 그 어떤 기대도 품고계시지 않으신다.

로잘린은 자기들의 존재가 한낱 티끌처럼 생각되었다.

감히 조가비로 바다를 재보려고 하다니...

《로잘린부인, 돌이켜보면 나의 한평생에는 나와 동지들사이 그리고 친구들과 벗들과 인민들 사이에는 언제나 상봉만이 있었지 리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카터선생과 로잘린부인파도 앞으로 상봉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믿고싶습니다.》

주석님께서는 그들부부에게 정어린 눈길을 보내시며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로잘린은 감동의 빛에 휩싸였다. 배는 드넓은 수면을 따라 질풍같이 내달리고있었다.

해군출신인 지미는 강바람에 희속희속한 머리카락을 흔들리며 무아몽중의 쾌감에 잠겨있었다.

환희에 넘친 로잘린의 얼굴에도 소녀와도 같은 천진스러움과 랑만이 밝게 비껴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석님께서 무엇이라고 이르시자 발동소리가 작아지면서 배의 속도가 더디여졌다.

모두의 의아한 눈길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서신 주석님께서는 달무리처럼 얇은 수증기가 끼인 강대안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었다.

《저기 기슭에서 사람들이 낚시질을 하고있습니다. 선생도 아다싶이 낚시군들은 배가 물결을 일으켜놓는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왜 그들의 눈먼 욕을 받겠습니까.》

로잘린은 세찬 충격으로 하여 불시에 눈앞이 아찔해왔다.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수 없고 감히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런 한없이 숭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체험하였던것이다.

그는 비칠하는 몸의 균형을 바로하며 배의 공간을 꼭 그러쥐었다. 배는 수면우에 미미한 파문을 그리며 고요히 떠흐른다.

그 까닭을 알리 없는 강변의 낚시군들은 여전히 한 자세로 낚시대를 드리우고 바위돌에 앉아있기도 하고 강 한복판으로 힘껏 낚시를 던지기도 하며 혹은 푸들썩 낚시에 걸려 요동치는 물고기를 익숙한 솜씨로 서서히 끌어당기기도 한다.

그러니 결국 주석님께서는 낚시군들의 기쁨을 위해 이 력사의 배를 멈추시켰단말인가?!

주석님께서는 장차 이 세계에 미증유의 거대한



정치적지각변동을 안아올 그런 사변적인 외교활동을 진행하고계신다는것을 잊고계신듯했다.

로잘린은 인간사랑, 인민사랑의 일념으로 혼신을 불태워오신 주석님의 한평생을 순간에 다 본 듯한 느낌이었다.

미국은 이 회담의 성과여부에 운명을 걸고 갖은 술책과 묘안들을 고안해냈지만 주석님에게는 통할리 없었다. 아니 영원히 통하지 않을것이다.

지미와 자신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주석님의 독특한 정치문법과 언어를 이제서야 비로소 한글자한글자 겨우 떠듬거리며 읽는 소학교학생 같았다.

그의 가슴은 산악같이 일떠서는 감동의 파도로 하여 세차게 높뛰었다. 과연 젊은 한시절을 배우에서 보낸 해군장교 지미의 눈에, 세계최초의 첫 원자력잠수함과 함선들을 타고 온 대양을 질주하던 그의 망막에 단 한번이나마 바다기슭의 낚시군들과 어부들이 보여왔을가.

대통령권좌에 올랐던 그때에라도 한순간이나마 《기슭의 낚시군》들을 보았다면 그는 워싱턴이나 링컨보다도 더 떠받들렸을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한순간 워싱턴의 흥상이 떠올랐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줄곧 정치란 백성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거두어주는 일이라고 외워왔지만 역사에 진실로 인민을 동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피눈물을 흘려본 정치가가 있으며 백성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준 그런 정치가가 있었단가!

은연중 그는 **김일성** 주석님과 지미를, 아니 미국력사에 이름있는 모든 정치가들을 함께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보았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을 주석님과 대비하면 할수록 혹은 하느님과 소년처럼 혹은 반디불과 태양처럼 너무도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는 마치 강이 바다의 품속으로 빨려들듯이 주석님의 친화력에 감화되어 경황없이 끌려들어가고있는 자신을 보았고 그 다심하신 인정에 매혹되어 끌려들어가면서도 헛되이 몸부림을 치는 민망스런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기가 한평생 숭상해온 서방문명의 한계와 그 지성의 종말을 목격하였으나 왜선지 그것이 때늦은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탁우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에 가닿았다. 불현듯 그는 조선의 대지 위에 피어난 꽃들이 왜 그처럼 생소해보였는지, 왜 그처럼 그 꽃말을 알수 없었는지가 이해되었다.

조선의 아름다운 그 꽃들은 모두 **김일성** 주석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피어난 꽃들이어서 그 꽃말은 바로 《태양》이 아닐가?

하느님의 자애에도 비기지 못할 주석님의 그 사랑의 정치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하며 그이를 볼

러 무엇이라 칭찬단 말인가.

정녕 주석님의 그 사랑은 설명이나 미사려구가 쓸데없는 은혜로운 태양의 사랑이며 주석님의 그 언어는 통역이 필요없는 거룩한 태양의 언어이며 주석님의 그 풍격은 거짓위엄이 소용없는 위대한 태양의 풍격이다.

해빛에 번쩍이는 대동강의 물결이 성스럽게 느껴진다.

평양에서의 마지막날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지미와 로잘린은 젊은 그 시절처럼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산보를 하고있었다.

로잘린의 손에는 지미가 선사한 **김정일**화 한송이가 들려있었다.

그옥한 꽃향기를 들이키며 로잘린이 말했다.

《여보, 만일 당신이 평양행을 거절했다면 어찌 될번했어요? 나는 **김일성** 주석님께 완전히 매혹되었어요.》

《나도 역시 그분께 완전히 두손을 들고말았소.

**김일성** 주석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오.

지난 반세기동안 백악관은 주석님의 나라와 열전도 랭전도 다 벌려보았지만 그때마다 패자의 고배를 마신것은 결국 우리 미합중국이였소...》

피로운 표정을 짓고 레감에 잠겨 지미는 말했다.

《설령 북조선에 핵무기가 있다 해도 진실로 미국이 공포에 전몰해야 할 그 무서운 무기는 결코 북조선의 원자탄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요, 지미. 대양건너 우리 아메리카의 신사들은 알수가 없지요. **김일성** 주석님을 만나뵙기전에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인정 많고 다정다감한분이시며 또한 평화애호적인 분이신가를 말이에요. 주석님의 나라, 주석님의 이 대가정을 구태의 연한 <포함외교>로 깨뜨려보겠다는것은 정말이지 닭알로 바위를 깨보겠다는것만치나 어리석은 만용이지요... 나는 당신이 행정부에 미국의 리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오직 대조선 정책의 즉시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시정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면 해요.

거센 약이지만 틀림없이 잘 들을거예요!》

로잘린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반디불이 날아에는 플레인즈의 밤길을 걷던 젊은 그 시절처럼 장밤 지미와 함께 인생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 속삭이며 끝없이, 어디론가 끝없이 걷고만싶었다. 내쳐 걷고걸어서, 산도 강도 바다도 그냥 걸어서 넘고 지나 대양건너 미국으로 고향으로 가고싶었다.

잠시후 불빛이 환한 숙소에서는 때아닌 피아노 소리가 울려나왔다.

로잘린의 황홀한 자태를 얼없이 바라보고있는 지미는 그의 연주곡이 한평생 귀에 익었던 《반디

불야상곡》의 선물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평소의 그윽하고 애잔한 야상곡의 가느다란 선물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음향- 태양광상곡의 장엄한 선물이 되성처럼 울려와 로잘린의 작은 심장은 터질듯이 쿵쿵 뛴다.

그 황홀하고 우아한 선물과 더불어 로잘린의 귀전엔 평양의 봉수교회당에서 드렸던 빌리 그라함목사의 기도가 들려왔다.

《아,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느님아버지이시여, 나는 보았습니다. 비로소 오늘에야 해쉴는 동방에서 나는 당신을, 이 땅에 강림하신 당신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아버지이시여, 사랑에 끌이 있습니까? 우주에 끌이 있습니까. 온 우주의 생명을 돌보시는 당신의 임기에는 끌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임기가 없듯이 김일성주석님에게 임기가 없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였습니다. 그이는 공약으로 인민우에 군림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정치만을 베푸신분이옵니다.

아 하느님이시여, 날개며 온몸이 해별에 끄슬리고 불탔어도 마침내 해님을 가까이에서 뵈고 기쁨과 환희에 넘쳐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옛말속의 그 반디불마냥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노복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로잘린은 머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후회가 불타올랐다.

그것은 김일성주석님과 작별하던 그 시각, 위대한 사랑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치는 그이의 그 넓은 가슴에 자기의 작은 손을 대고 그 심장의 박동을 생동하게 느껴보지 못한 후회였다.

×

불끈 아침해가 솟았다. 노을빛에 붉게 물든 방안은 어제와 퍼그나 달라져보였다.

워싱턴의 홍상이 놓여있던 탁자우에는 대동강에서 김일성주석님과 함께 찍은 그들부부의 사진이 놓여있고 열려진 창가의 원탁우에는 그이께서 선물하신 한쌍의 편이 수놓아져있는 량면수예가 세워져있었다.

그리고 로잘린이 방 한구석에 가져다놓은 러행 용트렁크에는 불원간 알라스카로 꼭 연어낚시질을 함께 가자고 철석같은 약속을 하신 주석님을 위해 지미와 로잘린에 성심성의로 마련한 고급낚시대가 들어있었다.

로잘린은 시원한 아침공기를 량껏 들이켰다.

그는 보고있었다. 어둠에 잠겼던 온 세계, 온 우주를 그리고 자기의 온몸을 한순간에 노을빛에 휩싸이고 광명천지로 내닫는 눈부신 빛의 격류를, 어둠을 집어삼키며 산악같이 밀려오는 빛의 파도를! 그 빛은 느끼고 깨달을수는 있어도 표현할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빛발로 푸른 산맥과 시누런 땅콩밭과 붉은 언덕을 비쳐주었다.

그 강렬한 빛발에 암흑에 묻힌 이 세상의 모든 위선과 불의와 악이 산산 깨어지고 부서지고 폭파되어 흩날려버린다.

이때 밖에서 귀에 익은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애틀란타에서 지미가 돌아온것이다. 한순간 가벼운 불안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지났다.

미국의 위정자들에게는 진실로 김일성주석님의 나라와 화목할 의지가 있을가. 쌓이고쌓인 미조사이의 적대와 불신을 가져내자면 주석님의 인간상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싶었다.

잊지 못할 평양에서의 그 마지막날밤처럼 그의 심중에는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히 차고넘쳤다.

## 안녕히 다녀오시라

장혜명

안녕히 다녀오시라  
이 시각도 먼길 걷고계실 우리 장군님  
전선길 그 험한 령은 어떻게 넘으시고  
공장의 구내길은 또 얼마나 이어가시는지...

우리 다 자는 깊은 밤에  
이른새벽 늦은저녁에  
때없이 먼길 떠나시니  
우리 모르게 맞는 눈비는 얼마이며  
우리 모르는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많으시라

험한 길 한지에 계시는 아버지를  
더운 방에서 기다리며 잠 못드는 자식들의 이  
마음  
바라노니, 비바람아 불지 말아

우리 장군님 옷자락이 젖지 말기를  
바라고 바라노니  
최전연의 전선길만은 부디 삼가하시기를

장군님 걸으시는 그 길이  
천리라면 천리를 따라서고  
만리라면 만리에 닿아있는  
간절한 이 마음 바라는 이 마음

아, 장군님 없이는 순간도 못사는 인민이  
가시는 길에 퍼드리는 이 진정  
결음걸음 안으시고  
부디 안녕히 다녀오시라!  
안녕히 다녀오시라!

## 정일봉의 우리소리

은 나라가 준전시상태에 들어갔던 주체82(1993)년 봄 어느날이었다.

이른새벽 맑게 개인 백두산밀영지구에 난데없는 먹장구름이 생겨나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더니  
런속 파르릉! 파르릉! 천지를 들었다놓는 우뢰소리와 함께 번개불이 번쩍거렸다. 전등과 번개는 낮에 이어 밤에도 끊치지 않았다.

밤 10시경에는 **정일봉**상공으로부터 백두산쪽으로 류다르게 눈부시고 땡기처럼 길다란 불줄기가 먹장구름을 가르며 건너가더니 잠시후에는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요란한 우뢰소리가 땅우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놓았다. 런속 터지는 우뢰소리와 번개불은 마치 하늘장수가 천지를 진동하는 불호령을 내리며 장검을 휘둘러 이 세상 온갖 불의를 모조리 짓부셔버리는 위용을 방불케 하였다.

현란한 번개불빛이 대낮처럼 밝히는 사이사이에 울리는 우뢰소리는 어찌나 요란하고 우람찼던지 숲속에서 잠자던 새들이 놀라서 공중을 향방없이 날아며며 온밤 울부짖었다.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 때마다 집요하게 밀려오던 광풍과 먹장구름이 사라지는 현상이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더니 아침 7시경 조각구름마저 말끔히 가셔지고 언제 그랬던가싶게 푸른 하늘이 환히 펼쳐졌다.

그로부터 2시간후인 9시경에는 **정일봉**상공에 찬란한 태양이 솟아올라 맑은 하늘가에 눈부신 빛을 가득 채우며 온 누리를 비치었다.

참으로 처음 보는 신기한 현상이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한지역에서 번개와 우뢰가 2~3시간씩 쳤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처럼 12시간이상 계속된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더우기 이번처럼 번개불이 진하고 그 형태가 류다를뿐아니라 우뢰소리 또한 요란하여 잠자던 새들까지 날려올린것은 누구나 보지도 듣지도 못한 천기현상이라고 하였다. 백두산밀영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세기의 창공놀이 거연히 솟아있는 **정일봉**상공에서 일어난 이 신기한 조화를 두고 백두의 번개와 우뢰와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담력과 기상을 자연이 대변하여 **정일봉**의 우뢰소리로 온 세상에 전해주는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정일봉**의 우뢰소리에 대한 노래와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창조되어 전해지고있다. 그중에는 이런 전설도 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서쪽변두리를 흐르는 포트백크강 건너 외딴곳에 5각형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악명높은 미국방성청사이다.

집모양을 따서 일명 그리스말로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이 집의 어느 한방에 브라운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는 강경파인물중에서 가장 지독한 호전분자였다고 한다.

직무도 군사청호도 알려지지 않은 브라운은 미군부의 두뇌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미군이 개입한 군사작전치고 이자가 관계하지 않은것은 거의 없었던것이다.

세계에 물의를 일으켰던 리비아에 대한 공습과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침공작전 그리고 만전쟁과 기타 대소군사작전들이 모두 브라운의 《총명》한 머리에서 꾸며졌다고 하니 확실히 흑막속의 거물임이 분명한것 같다.

지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날아가는 룡작전》이나 《세계의 화살작전》이니 《달리는 황소작전》이니 하는것을 짜놓았는데 여기서도 이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브라운이 관계한 모든 작전들이 다 미국의 뜻대로 되었는데 유독 조선에서만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자는 자주 동료들앞에서 《나는 성공하지 못할 작전은 애당초 내놓지 않는다.》고 회떠운 소리를 췌치군하였는데 웬일인지 조선에서만은 전혀 그것이 통하지 않아 오만한 이놈의 코대가 여러번이나 꺾어졌다고 한다.

선제타격을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일정을 작성하는데 참가한 브라운은 매번 실패를 거듭하였다.

《팀 스피리트80》 합동군사연습때에도 연습이 절정에 이른무렵 **김정일**장군님께서 분계선 가까운 지역으로 인민군부대들을 갑자기 기동시킴으로써 그 무슨 비상사태가 터지는줄 알고 부랴부랴 훈련비상으로부터 전투비상으로 이전하느라고 덤벼치며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다나니 놈들의 합동군사연습의 모든 계획도 순간에 형클어져 연습의 제일 중요한 대목에 이르러 흐지부지돼버리고말았다.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한 《팀 스피리트83》때에도 브라운이 작성한 작전은 큰 참패를 당하였다.

조선인민군이 먼저 선손을 써서 주동적인 타격을 가한것이였다.

불의에 조직되고 진행된 조선인민군의 기동훈련은 놈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로 되었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그으신 붉은 화살을 따라 하늘과 땅, 바다를 짹 채우며 위엄있게 도도히 굽이쳐가는 강력한 인민군의 장엄한 전투

서렬앞에 적들은 낮을 잃었다.

미국본토와 일본, 남조선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술한 병력과 장비를 뿌려놓고 막 훈련에 진입하려던 찰나에 선수를 빼앗긴 적들은 산악같이 덮쳐드는 파도앞에 선 신세가 되고말았다.

그러고보니 《선제타격》을 가상하여 기세를 올려보려던 적들은 오히려 제련에서 겁에 질려 소심하게 우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요란스럽게 준비했던 합동군사연습은 시작도 하기전에 우리의 위력에 압도당하여 김빠진 빨처럼 맥빠진 연습이 되고말았다. 브라운은 약이 오를대로 올랐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매번 질수야 없지 않는가?》

이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군사적지략으로 조선에서의 전쟁연습이 번번이 저지파탄되자 얼마후부터는 아예 조선문제에는 끼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대통령도 여러번 바뀌고 나이도 들어 은퇴할 때가 되어오자 무슨 생각이 났던지 또다시 조선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때는 주체82(1993)년 봄 새로 미국대통령으로 클린톤이 들어왔는지 얼마 안되었던 그무렵이었다.

핵무기를 적재한 신형전투기들과 함선,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 미본토와 괌도, 하와이,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들에서 《신속반용무력》을 비롯한 20여만명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진행한 《팀 93》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물거품이 되고만때라 누구도 조선문제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있었다. 이때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브라운이 조선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감히 나섰던것이다. 브라운은 그동안 조선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였다.

조선이 준전시상태선포로 이른바 《유일초대국》인 미국에 도전해나서자 이놈은 북조선의 핵시설들을 폭격하여야 한다는 화약내질은 망언을 철회하면서 그 작전을 꾸미었다.

어느날 이놈은 오래동안 고심참답하여 작성한 이 작전문건을 미국방부에 제출하기 위해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차를 타고가면서도 브라운은 눈을 감고 자기의 작전문건을 다시 하나하나 검토해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하나 흠잡을데가 없었다.

이놈은 옆에 앉은 부관에게서 문건을 받아 다시 펴보았다. 음모와 권모술수에 능한 브라운의 장기가 다 발휘된 작전은 조금도 빈구석이 없었다.

브라운은 속히 자기의 《명작전》을 제출하기 위해 운전수에게 《차를 좀 빨리 몰라》고 독촉까

지 하였다. 승용차가 집을 떠나 20분이 되었을가 말가 하였을 때였다.

포트백크강을 끼고 차가 달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병긋하고 섬팡이 일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딱!-》 하는 소리가 귀청이 찢지게 들렸다.

순간 이 어인 일인가? 브라운이 《악!》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불이 확 일었는데 그 바람에 브라운이 작성한 그 작전문건이 깡그리 타버렸다. 급정거하여 차를 세우고보니 브라운은 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어서 병원으로 갑시다.》

부관이 운전수에게 말했다.

병원에 입원한 브라운은 이름난 의사란 의사는 다 불러들여 치료를 하였다.

아흐레만에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좀처럼 완치가 되지 않았다.

《그 섬팡이 무엇일가?》

마른 하늘에 생벼락이라고 하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내린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어 원인을 해명하였으나 그저 벼락인것 같다는 추측만하였을뿐 확실한 해명을 못하고 말았다.

거의 1년이 되도록 병원에 불박혀있다가 겨우 바깥출입이나 할수 있게 되자 퇴원을 한 브라운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맞은 《벼락》이 이상하다고 여겨졌다.

왜 벼락이라면 나만 맞았을가? 운전수도 부관도 아무 일 없지 않는가? 지어 그들은 《딱!》하고 벼락치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고 하지 않는가?

인간피괴침으로 불리우던 미국 버지니아주 공원관리원이 일생에 일곱번이나 벼락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그 사람과 같단 말인가?

그는 끝내 벼락을 피해다니다가 자살해죽고말았다는데 나도 더 살수 없는게 아닐가?

그러다가 일년반이 거의 지났을 때 펜타곤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다가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조선의 백두산마루에 솟아있는 **정일**봉상공에서 신기한 번개가 일고 우뢰가 울었다는 자료였다.

《엉?》

브라운은 또 한번 놀랐다. 바로 **정일**봉에 번개가 일고 우뢰가 운 날이 자기가 벼락을 맞은 그 날과 일치한것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정일**봉마루에서 짹짹 뿜어나간 시퍼런 불줄기가 대양을 건너 미국땅에 날아와 불벼락으로 내리는 광경이 보이는듯하였다.

《**정일**봉의 우뢰소리! **정일**봉의 우뢰소리!》

브라운은 비명을 지르듯 이렇게 웨치면서 눈을 감고 두손으로 귀를 꼭 틀어막았다. 금시 번개의 섬팡이 보이고 우뢰소리가 들리는듯싶었다. 아니 우뢰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여 정말로 울려왔던것이다.

《악!-》

브라운은 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가 다시 치료를 달포나 받고서야 집으로 돌아온 브라운은 그다음에도 자다가 자주 헛소리를 치곤하였다.

**정일**봉의 우뢰소리가 자꾸만 귀청을 때리며 울려왔던것이다.

그후 브라운은 우리 나라 **정일**봉에서 일어난 신기한 자연현상이 발표된 신문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그날도 미국에서 일어난 신기한 현상들이 일치하기때문이었다.

그해 2월 16일 **정일**봉에 무지개가 비끼고 우뢰가 울었는데 그날 대서양과 면하고있는 미국의 중부주들에 폭설과 폭우가 동반한 폭풍이 들이닥쳐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버지니아주, 오하이주, 인디애나주, 오클라호마주, 아칸소주, 켄터키주의 일련의 지역들에 50센치미터의 눈이 쌓였다.

브라운이 벼락을 맞은 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폭우로 큰물이 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페네시주와 조지아주에서는 여러명이 죽고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그리고보면 **정일**봉상공에서 일어난 번개와 우뢰는 말그대로 하늘장수의 호령이요, 징벌의 불칼임에 틀림없는것이다.

그후부터 브라운은 다시는 조선문제에 끼여들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을 해칠 생각만해도 하늘에서 벼락이 또 떨어질가봐 겁이 났던것이다. 그러다가 종시 스스로 자살해죽고말았다고 한다.

김우경

## 인민의 목소리

김석천

기쁨의 꽃물결로 설레이고  
환희의 춤물결로 파도치는  
이 땅의 거리, 광장마다에서  
감격으로 터치는 인민의 목소리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조국이다!

행복이여라  
영광이여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그이를 높이 모신 행복의 날을 이어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그이를 다시 모신 끝없는 영광으로  
잠 못드는 인민이여 걱정넘친 산천이여

아, 그이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모두가 잘 아는분  
룡담산 푸른 언덕에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  
불같은 맹세를 새기시고  
이 조선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우리 혁명을 이끄시는분

그이를 내 삶의 기둥으로 믿고  
내 걸어온 나날에 깨닫지 않았던가  
그이를 따름은 곧 진리의 길  
그이를 따름은 곧 행복의 길

그이를 따름은 곧 조국번영의 길임을

비껴있어라 그이 모습은  
하늘이 가리우게 수풀처럼 일떠선  
저 무수한 창조의 기념비에도  
광장을 굽이치며 우뢰쳐나가는  
일심단결의 그 대하에서도

그렇더라  
제국주의 역풍을 쳐갈기며  
언제나 앞으로만 진군하는  
조선의 신념은 그이의 성격  
최후승리 봉우리를 신심넘쳐 내다보는  
조선의 의지는 그이의 담력

달리는 부를수 없어라  
수령님 세워주신 주체의 내 나라를  
수령님 뜻으로 만대에 빛내주실  
그이는 그 누구도 대신 못할  
원대한 우리 당, 우리 조국!

오, 휘날리는 공화국기의 이름으로  
지켜가는 사회주의 이름으로  
불패의 일심단결 이름으로  
영원한 승리자의 이름으로  
오직 그이만을 따르며 받들어갈 인민의 목소리여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조국이다!



# 붉은 눈보라

리희남

## 1

넓고도 높다란 층계였다. 마치도 천상의 경지에 이르는듯 아스라하니 올려다보이는 층계였다.

방금 전선길을 다녀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의 층계를 조용히 오르고계시었다.

정초부터 설달그믐날에 이르기까지 온 한해 출창 최전선길을 이어오신 장군님이시었다.

그 나날에 몸소 넘어오신 산탈은 얼마였고 건느신 강은 또 얼마였던가.

그이를 우러러 병사들은 주먹으로 눈물을 흠치며 《총폭탄》, 《결사옹위》를 웨치곤 했다.

시련의 해였던 주체85년은 이렇게 흘러갔다.

지금은 주체86년 새해 0시.

장군님께서 전선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곧장이 층계부터 찾으시었다. 이때따라 어쩐지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시었다.

지난해에 2만5천리장정도 헤쳐왔지만 이제 넘어야 할 심각하고 어려운 고비들이 또 얼마나 많은 것인가.

조선반도를 뒤덮고있는 봉쇄와 압살과 고립의 검은 구름은 아직 흩어지지 않고있다...

장군님께서 한계단한계단 력점을 찍듯이 천천히 계단을 오르시어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서시었다.

정중히 옷깃을 여미고 가슴을 치그시 누르고 발걸음소리를 죽이며 수령님곁으로 다가가시었다.

송엄하고 고결한 상봉의 순간은 왔다.

《수령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고요히 주무시는것만 같던 수령님께서 무엇인가 은근히 속삭여주는듯한 표정을 짓고계시는 것이었다. 봄날의 바람결처럼 부드럽고 푸른 하늘처럼 기쁨에 겨웁고 한줄기의 햇빛처럼 밝고 따스한 표정이시었다.

수령님께서 분명 최전선의 눈보라를 헤쳐온데 대해 치하를 주시고 새해의 결심을 묻는것만 같으시었다.

장군님께서 마음을 가다듬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만경대혁명학원부터 찾아볼 결심이라고 속으로 조용히 말씀드리시었다.

수령님께서 웅심깊으면서도 따스한 표정을 지어주시는 것이었다.

(나의 결심을 지지해 주시는구나!)

장군님께서 불시에 뜨거운것이 가슴에 그들해지시었다. 세상의 온갖 아름답고 귀중한 감정

들이 일시에 터지는듯 도저히 견잡을수 없는 심정이시었다.

장군님께서 빠른해진 가슴을 안으신채 금수산기념궁전을 나서시었다.

잠시 어둠에 잠긴 사위를 둘러보시고는 광장의 한복판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으시었다.

광장은 어슴푸레한 불빛속에 잠겼는데 밤하늘에서는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리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발목까지 폭폭 빠져드는 솟눈을 헤치시며 걸어가시었다.

광막한 공간에서는 수억만개의 눈송이들이 춤추는듯 아물거리고 사위엔 푸릿하고 기묘한 빛발이 운무처럼 흐르고있었다.

날이 새도록 음미해보고싶으신 새해의 설경이였다.

한갈피두갈피 덧쌓여지는 눈우에는 그이의 두줄기의 발자국이 깊이 찍혀지고있었다.

## 2

장군님을 모신 야전군용차는 만경대를 향해 달리고있었다.

수원들은 눈보라가 터질것 같다고 몹시 걱정들했으나 장군님께서 그러한 만류를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시었다.

수령님께서 한평생 헤쳐오신 눈보라를 자신이 어찌 마다할수 있단말인가.

파란많은 이 우주에 위대한 고고성을 터치던 그 순간에 그이의 귀에 처음으로 메아리쳐온것도 천치를 들부시는 눈바람소리였다.

그이께서는 요람가에 울린 그 눈바람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성장하시었다. 봄바람이나 뉘뉘 마른 땅이나 골라디디는것은 그이와 아무러한 인연도 없으시었다.

(력사의 온갖 비바람을 다 맞자!)

이것이 장군님의 변함없는 각오가 아니었던가.

야전군용차는 장군님의 이러한 의지를 따르는듯 훑날리는 눈발속을 헤가르며 거침없이 나아갔다.

하늘은 점점 더 낮게 드리우는데 거리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야전군용차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래주고있었다.

장군님께서 의자등받이에 몸을 젖히시며 눈을 치그시 감으시었다.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린 만경대로 향한 길에 들어서니 류다른 감회가 가슴에 파고드는 것이였다.

(아, 만경대...)

장군님께서는 속으로 조용히 뇌이시었다.  
문득 언젠가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가시던 때가 생각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만경대의 풍경을 바라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해마다 설날이 오면 만경대의 원아들이 날 기다리곤 하오. 내가 만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지 않는다면 그애들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소.》

원아들을 그토록 잊지 못해 하시던 수령님의 그 자애로운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옛시절은 저 멀리 가버렸건만 왜 이다지도 그리워지는것일가.

어느덧 팔팔과 칠팔을 지난 야전군용차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앞에 이르자 스트르 멎어섰다.

차마 그대로 지나칠수 없는 뜻깊은 집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모자도 쓰지 않으신채 뒤집을 지시고 휘뿌리는 눈발속에 뿌잇하게 드러난 거대한 품같은 궁전을 오래도록 부감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해마다 이 궁전에서 학생소년들과 함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하시였던가.

수령님을 모신것이 너무도 기뻐 일년 열두달 매일 설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노래부르던 행복동아들, 기쁨의 노래로 밤가는줄 모르던 그 모든 옛추억들이 반갑다고 소리를 치며 막 내달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간밤에는 견잡을수 없는 눈물로 설맞이 공연막이 열리지 않았는가. 수령님을 모시지 못한채 벌써 세번째로 진행된 공연이였다. 눈물을 머금고 노래를 부르던 어린이들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장군님의 안광이 흐릿하게 젖어드시었다.

불현듯 어느해 설날 만경대원아들의 노래이야기를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던 수령님이 생각난다.

그 노래이야기는 부모가 없는 자기들이 왜 수령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게 되였는가를 보여준 훌륭한 작품이였다.

《아버지의 사랑은 저희들의 젖줄기였어요. 자애로운 아버지를 모셨기에 저희들은 이리도 행복하답니다. 친근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천년만년 모시고싶은 아버지! 인젠 부디 늙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역을 담당했던 눈빛이 류달리 다감해보이는 그 총각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다.

수령님께서는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었다.

《저애들의 감정이 얼마나 절절하오. 난 저애들이 날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옛일이 생각나곤하오.》

수령님께서는 분명 유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그때를 회고해보는것만 같으시었다.

그것은 해방직후의 어느날 새벽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발밑에서 휘휘 감도는 새벽안개를 무겁게 헤치시며 정원을 거닐고 계시었다. 이슬에 젖은 나무잎사귀들을 살뜰히 만져도 보시고 여기저기서 지저귀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다정히 듣다가는 한숨을 토틀기도 하시었다.

《유자녀들때문에 정말 마음을 놓을수 없소. 술한 동지들이 나한테 자식들을 맡기고 갔는데 난 지금 그애들을 다 찾아내지 못했소. 어디서 뫼들하며 헤매고 다니는지... 생각하면 새벽이슬도 그애들의 눈물갈고 새들의 울음소리도 아버지를 찾는 그애들의 목소리갈소.》

그때 그토록 떨리시던 수령님의 음성과 그토록 흐려지던 수령님의 안색을 장군님께서는 잊을수가 없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신문에 손수 사람을 찾는 광고도 내시고 여기저기에 일군들을 파견하시여 방랑하는 유자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살길을 잃고 사방천지에 흩어졌던 유자녀들이 수령님의 품으로 구름같이 모여드는 전설같은 사연들이 생겨나지 않았던가.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과 유자녀들의 눈물겨운 상봉을 곁에서 수없이 목격하시었다.

혈벗고 굶주린 유자녀들은 수령님의 품에 안기자 앙상한 어깨를 떨며 서럽게 울기만 했다.

《됐다, 됐어... 울음들을 그쳐라. 인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를 대신할테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꼭 부둥켜안은채 뜨거운 눈물만 소리없이 짓곤하시었다.

눈물로 묻고 눈물로 대답하던 그러한 상봉이 과연 얼마나 많았던가.

세상이 처음으로 알게 된 유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는 이렇게 흐르기 시작했다.

수령님께서는 자신이 결심하신것처럼 유자녀들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여주시었다.

그이의 한생은 정녕 아버지로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한 참으로 인간적인 한생이였다.

이러한 아버지를 모셨기에 이 궁전에 깃든 그 모든 추억들이 것처럼 아름다와지지 않았는가.

별안간 전대미문의 전물을 안겨주는것만 같은 예리한 메아리가 가슴에 쩡 내려온다.

수령님께서 돌아가신 날 만수대언덕에서 비를 맞으며 아버지를 찾던 만경대원아들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때린것이였다.

그때로부터 3년세월, 자애로운 아버지는 결코 가시지 않았다고 원아들은 한결같이 말들 하겠지만 마음속의 상처야 어찌 가실수 있겠는가.

게다가 설날이 왔으니 아버지가 오죽 그립겠는가.

장군님의 어깨엔 어느덧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지고 그이의 존안에 척척 달라붙었던 눈송이들

이 눈물처럼 줄줄이 녹아내리고있었다.

### 3

장군님께서는 이윽하여 만경대쪽으로 돌아서시였다.

눈이 어찌나 퍼붓는지 사방을 분간할수가 없으시였다. 백설의 천지는 푸근하고 아늑한 정서를 풍기고있었다.

《눈이 온 강산을 메우는구만. 설날에 눈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걸 확실히 좋은 징조요.》

장군님께서는 수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야전군용차에 오르시였다.

야전군용차는 뒤바퀴에서 솟눈을 쉬임없이 튕겨올리며 천천히 미끄러져나갔다.

운전사가 그이의 사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될수록 차를 천천히 몰고있었던것이다.

뿌연 장막에 가리워진듯한 어지간히 먼저 앞쪽에 봉긋이 솟아오른 검스레한 룬딱이 드러났다. 만경봉이였다. 무수한 사연들을 품고 눈발속에 조용히 서있는 저 웅건한 자태, 신비롭고 조화롭고 우아하면서도 숭고한 봉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무엇인가를 웨치고싶으신듯 입술을 가볍게 떠시였다. 가슴속 깊은곳으로부터 잊지 못할 추억의 분화구가 터져오른것이였다.

그것은 진달래꽃이 한창이던 어느해 봄날이였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그날도 원아들은 눈물겹게 아버지라 부르며 수령님께 왁 달려와 안기였다.

그런데 꽃다발을 드리는 그 원아가 낮익어보였다. 언젠가 노래이야기의 주역을 담당했던 눈이 다감하게 생긴 바로 그 총장에였다.

《오 너로구나. 영철이! 그새 무척 컸구나. 인젠 사내대장부가 다 되구… 허허…》

그런데 영철이는 전보다 머리칼이 더 희숙해진 수령님을 뵈옵자 그만 입술을 떨며 가슴을 들먹이고말았다. 부디 늙지 마시라고 그렇게도 간절히 부탁했건만 왜 이리도 늙으시는가고 안타깝게 하소연하는것만 같았다.

《오, 됐다, 됐다. 영철이네의 노래이야기를 또 한번 봐야 할텐데 자꾸 울면 어쩐다?》

수령님께서는 살뜰한 애무와 깊은 자애가 비친 미소를 지으시며 영철의 어깨를 다독여주시였다.

그이의 생애에 원아들과의 수많은 상봉이 있었지만 그날의 상봉은 류달리도 인상적이고 정겨운 것이였다.

영철은 노래이야기에 출연하는 동안에도 마음속으로부터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꾸밈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영철의 마지막 대사가 인상적이였다.

《저희들은 사랑속에서 혁명을 배우며 자라났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저희들도 장군님을 따라 수령님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킵니다.》

하고는 한쪽의 붉은기를 펼쳐들었다.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박수를 쳐주시였다.

《보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철이 들었소. 그래서 내 이 애들과 함께 있는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하셔요.》

수령님께서는 상반신을 젖히시며 몹시도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원아들의 한결같은 요청을 받아주시여 그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동상앞에 경건히 마주 서시는 순간 감회깊은 생각을 금할수가 없으시였다.

수령님을 뵈고싶어하는 원아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어머니께서 내 나라땅에 제일선참으로 세워주신 동상이기때문이였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원아들이 마음속에 신념의 기둥을 튼튼히 세워놓곤했던가.

그것은 학원과 더불어 길이 빛날 어머니의 업적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생각에 잠기시여 오래도록 학원의 운동장을 거니시였다.

《여기에 오면 어쩐지 발걸이 쉬이 떨어지지 않소.》

걸고 또 거니시는 발걸음소리.

한동안이 지나서야 수령님께서는 운동장을 나서시였다.

이제는 떠나시는가고 생각하시였는데 수령님께서는 만경봉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시였다. 봄빛이 짙은 만경봉에는 해빛과 꽃들의 조화로 하여 신기한 정채가 비껴있었다. 마치도 그윽하고 아름다운 옛 추억을 그림처럼 펼치는것만 같았다.

《김정일동지와 함께 학원에 오구보니 어쩐지 만경봉에 오르고싶소.》

무엇인가 간절한 소망이 비친 그이의 음성이 장군님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왔다.

《원아들이 왜 그렇게 우는지… 아마 내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탓이겠지.》

만경봉을 향해 얼마간 걸으시자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저려나 견딜수 없으시였다. 자연은 푸르려지건만 수령님의 머리엔 왜 흰서리만 내리는것인가.

《오늘 김정일동지와 함께 나온게 참 잘된 일같소. 김정일동지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밝아



지더라 말어요.》

수령님께서 길옆에 피어난 진달래꽃송이들을 살뜰히 만져도 보시고 애무가 어린 눈길로 주위를 둘러도 보시며 천천히 걸으시었다.

해묵은 덤불밑에서 새파랗게 얼굴을 내민 햇풀들이며 물오른 나무가지들이며 통통하게 배가 부른 나무순들이 얼마나 흐뭇한 정취를 자아냈던가.

어디서나 고즈넉이 깔려있던 옛 추억들이 바빠 바빠 문을 열고 반기는것만 같은 만경봉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봉의 소나무아래에 서계시었다.

아득히 흘러간 그 옛날 김형직선생님께서 어리신 수령님을 곁에 앉히시고 《지원》의 뜻을 새겨주시던 바로 그자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뜻깊은 지점에 다시 서신것을 단순한 력사의 반복으로만 보고싶지 않으시었다.

이 땅에 흘러온 력사와 다가올 래일의 력사를 다시한번 안아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았는가.

력사의 증견자인 소나무는 웅심깊은 명상에 잠긴듯 조용히 서있었다.

《할 일이 많다나니 여기에 올라와보기도 쉽지 않소.》

만경봉에는 파스한 해빛이 깃들고 저기 발아래에서는 대동강이 은비늘처럼 반짝거렸다.

가슴을 활 열어젖히고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는 광활한 대지, 끝없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무한대한 우주.

《사향가》에 담아 그렇게도 절절하게 불러보시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해빛이 재글거리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시었다.

방금 떠나오신 그곳에서는 원아들이 즐겁게 뛰놀고있었다.

유서깊은 이 땅에 얼마나 의의깊은 생활들이 수놓아지고있는것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몇걸음 오고가시었다.

그이의 발치에서는 새파랗게 살아난 잔디풀들이 그 무슨 간절한 사연을 속삭이는듯 쉬임없이 하늘거리고있었다.

《이자리에서 만경대혁명학원을 내려다보니 참 생각이 많아지오. 옛일도 생각나고 <지원>의 뜻도 다시한번 새겨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 멀리를 내다보고 세운 학원이 었소.》

수령님께서서는 새삼스레 《지원》에 대해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지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린시절에는 그것이 만경봉에 비끼는 노을이나 만경봉에 꽃꽂이 서있는 소나무와 같은것이라 고만 생각한 수령님이시였다. 하지만 그 단순한

리치로부터 《지원》은 얼마나 아득히 먼 광야를 펼치였던가.

수령님께서서는 백두산에 들어가 피어린 싸움을 겪어보고서야 《지원》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혁명에는 반드시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는 법이다. 때문에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것은 사실상 얼마나 위대한 철학인가. 혁명의 시원도 《지원》에 있고 혁명의 과정도 미래도 《지원》에 있다. 혁명이란 바로 《지원》의 도상우에 놓여있는것이다.

《…그래서 나는 백두산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러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만경대혁명학원부터 세웠던거요. 만일 우리가 학원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 술한 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소. 개원식날 투사들이 날 찾아와서 눈굽을 적시며 하던 말들이 생각나오. 이젠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앞에서 몇몇해지게 됐다고…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경대혁명학원의 창립을 선포했었소.》

장군님께서서는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는 먼곳을 바라보시었다.

어머님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의 개원식을 목격하시였던 그 충격적인 날이 새로운 의미로 안겨오는것이였다.

그날 담청색하늘에서는 밝은 해빛이 넘치고 학원의 운동장에는 수많은 원아들이 대오를 짓고 엄숙히 서있었다.

바지에 친 붉은 줄과 붉은넥타이가 류달리 눈길을 끌고있었다. 수령님께서 깊은 의미가 깃들여있다고 말씀해주신 붉은 줄이였고 붉은넥타이였다.

바로 그러한 복장때문에 한결같이 회한하고 름름해보이는 그들은 러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그 어떤 굉장히 큰것을 안고있는듯했다.

력사의 축복을 받게 될 행복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순간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연단에 나서시여 엄숙한 목소리로 만경대혁명학원의 개원을 선포하시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나는 동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념원을 담아…》

커다란 긍지를 안으신듯 류창하면서도 저력있게 울리시던 수령님의 음성이 갑자기 갈리시며 이어지지 못했다. 후에 알고보니 수령님께서서는 눈물이 나와 연설을 제대로 할수가 없으셨던것이였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순간이였다.

원아들은 그날의 감격을 세상에 펼치듯 《만세!》를 웨치며 수령님앞을 행진해갔다.

척척 지축을 울리는 발걸음소리, 한결같이 씩씩해보이는 자랑스러운 모습들.

우리 당의 피줄기를 잇기 위한 새 조선의 대오가 붉은넥타이를 낄리며 세차게 굽이쳐가고있는 것이었다.

아, 얼마나 고대하던 시각이었는가,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렬들이 백두산야를 붉게 물들이었는가.

대오를 바래주시던 어머니의 안팎에는 이슬같은 눈물이 맺히었고 그이의 곁에 서계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원아들의 대오를 향해 이마에 손을 붙인채 오래도록 답례를 보내주고계시었다.

그때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으나 장군님께서서는 그 력사적인 순간을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놓고계시었다.

《내 여러번 말했지만 우리가 혁명학원부터 세운건 단순히 동지들에 대한 도덕적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소. 혁명의 피줄기를 이을 끝간들을 키우자고 세운건데 은을 낸단 말이요. 한때 리승만은 우리가 만경대에서 술한 호랑이들을 키운다고 비명을 지르기까지 했댔소. 그렇소. 우리는 세상에 보기도문 이 원종장에서 호랑이들을 키워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대를 이어가며 이기자는거요.》

수령님께서서는 커다란 흥분을 안으신듯 허리를 젖히시며 하늘과 땅이 맞붙은곳을 바라보시었다. 건들건들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에 그이께서 입으신 봄외투자락에 가볍게 날리었다.

명상에 잠긴듯 조용하게 서있던 소나무가 심호흡을 하는듯 웅글은 소리를 냈다.

장군님께서서는 사색도 감정도 한껏 넓어지시었다. 거창한 격량을 몰아오는것만 같은 그 음조, 그 숭고한 의미와 확신, 그것이야말로 력사앞에 하고싶으셨던 수령님의 말씀이 아니었는가.

혁명의 흐름위에 은하수처럼 그어진 하나의 뚜렷한 지향선이 절절하게 강조된 잊을수 없는 순간이었다.

혁명에서 혈통문제란 생명과도 같은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사활적인 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었다.

바로 이때문에만도 만민이 수령님의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있는것이다.

자신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수령님의 만세를 부르시지 않았던가.

그것은 지나온 세월의 저 기슭에 남겨두시었던 추억이었다.

온 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안고 뜻깊은 첫 설명절을 보내던 때 어머니와 함께 만경대를 찾으신 장군님앞에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생가에 귀중히 보관되어있는 한자루의 붓과 벼루를 내놓으시었다.

김보현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찌기 김형직선생님께서 이 붓과 벼루로 《지원》이라는 필적을 남기시였고 수령님께서도 역시 이것으로 《조

선독립》이라는 글을 쓰시었다는것이다.

《그래 우리 증손자는 이것으로 무슨 글을 쓰겠니?》

김보현선생님의 권고를 받으시자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해 잠기시었다가 붓에 먹물을 듬뿍 찍어드시고 서슴없이 《김일성장군만세!》라는 필적을 백지우에 남기시었다.

그 누가 시킨것도 아니고 귀찮해준것도 아니었다. 생가에 깃들어있는 거룩한 녀이 그리고 거기에서 풍기는 형용할수 없는 성스러운 분위기가 그이의 심장에 미친것이였다.

만경대의 일가분들은 어리신 장군님의 생각에 분명 운명이 준 그 어떤 숭고한 련관이 있다고 한결같이 찬탄을 금할수가 없으시었다.

《파시 네가 만경대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광명성이 분명하구나. 반만년 력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에 대통운이 텃어, 대통운이 !》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연거퍼 가슴을 두드리시며 속깊은 기쁨을 터치시었다...

《혈통이란 속일수도 없고 꾸밀수도 없는것이요. 또 강요한다고 해서 혈통이 이어지는것도 아니요.》

수령님께서서는 머리에 드리운 소나무가지들을 울려다보시었다. 양춘을 맞아 생생해진 푸른 잎사귀들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보시는것이였다.

(혈통이란 얼마나 숭고한 개념인가!)

장군님의 뇌리에서는 문득 이러한 충격적인 의식이 번뜩이시었다.

《김정일동지가 있기에 지금 우리의 혈통은 굳건히 이어지고있소. 난 우리 혁명의 앞날에 대해서도 마음을 폭 놓게 되요. 저 원아들이 김정일동지를 아버지처럼 따르는걸 보니 이런 확신이 더욱 생긴단 말이요. 래일이 담보되기에 이 땅에 이처럼 해빛이 밝고 꽃들도 다투어 피어나고 산천도 이렇게 아름다와지는게 아니겠소. 정말 한평생 혁명을 해온 보람이 크요.》

수령님께서서는 심중이 뿌듯해지시는듯 뒤집을 지시고 몸을 한껏 젖히시었다.

자연의 도처에서는 바야흐로 봄빛이 짙어가고 있었다.

숙연한 빛이 어리던 그이의 안광이 즐편히 젖어드시었다.

아마도 속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계시는 모양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해묵은 술일을 쥐어뜯으시며 속에서 치미는 용암같은것을 간신히 참아내시었다.

그 화창한 봄날은 이렇게 흘러갔다.

그런데 그것이 수령님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만경봉에 오르게 된 날로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가슴속에 안고계시던 비애의 상처가 다시금 툭툭 터지며 진하디진한 피눈물같은것이 봄물처럼

넘쳐나는 것이었다. 혁명의 운명과 미래를 두고 말씀하시던 그 절절한 음성, 그 뜨거운 눈물을 천만년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야전군용차는 허연 눈발이 아니라 그 잊지 못할 추억의 심연속을 헤가르며 나가는 것 같았다.

만경봉이 가까와지자 대화와 같은 눈보라가 허연 갈기를 날리며 맞받아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눈사태가 쏟아지는 것만 같은 장쾌한 눈보라였다.

심장을 뚫게 하는 격동적인 순간이 기어이 다가온 것이다.

사뭇치는 강물처럼 땅우에 태를 치기도 하고 솟구쳐오르기도 하는 눈보라, 맹수처럼 우우 울부짖는 그 함성, 그 기상이 얼마나 장관인가.

(만경대의 눈보라...)

장군님께서서는 속으로 조용히 뇌이시었다.

보면볼수록 만단사연을 불러일으키는 눈보라였다. 얼마나 많은 길들이 이 눈보라를 거쳐 장구한 미래로 뻗어갔는가.

처음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등불을 들고 일어나가시었고 다음에는 수령님께서 주체의 화불을 켜들고 헤쳐나가시었다.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마지막순간까지 대양을 향하여 파도치며 나아가시었다. 조금도 멈춰섬이 없이 부단히 투쟁하고 전진한 생애였다.

그 길을 따라 지금은 자신께서 헤쳐나가신다.

《지원》은 여전히 유일하고 정당한 진리로 남아 있다.

대를 이어 전진하는 그 숭고한 역사를 상징하는 듯 저기 뿌연 눈발속에 만경봉의 소나무가 우람하게 솟아올랐다.

어제도 오늘도 양춘을 그리는 저 푸르른 기상,

만경봉에 깃든 그 숭고한 뜻을 만천하에 떨치는 듯 소나무는 무수한 자기 잎새들에 부딪친 눈보라를 사방에 백발처럼 흩날리며 이 나라의 자연과 더불어 장엄하게 울부짖고 있다.

넋을 울리는 자연의 교향곡이었다. 만경대의 자연은 이 세상의 모든 선물들을 포괄한 장중한 면서도 미묘한, 아직까지 들어본적이 없는 그런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 음악속에 투쟁과 전진을 갈망하는 비상한 열정이 있고 이 땅의 눈보라와 어차피 길동무가 된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대한 호소가 울리고 대를 이어 안아와야 할 장구한 미래가 펼쳐지기도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토록 장엄한 만경대의 음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보시었다. 그이께서 지니고 계시는 그 천재적인 음감이 만경대의 음악과 조화되고 융합되면서 더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해 내는 것이었다.

#### 4

만경봉을 지나자 길옆에 눈을 뒤집어 쓰고 서 있는 장령이 야전군용차를 향해 정중히 경례를

드리고 있었다. 어찌나 눈을 《많이 뒤집어 썼던지》 길가에 굳어진 눈사람을 방불케 하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장이었다.

원장은 일찌기 아동단학교를 다녔을뿐만 아니라 또 전쟁시기엔 최고사령부의 전략군관으로 지내던 사람이었다.

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 그는 원아들의 실태를 알아볼데 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번 만경대혁명학원에 찾아와 당시 학원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계시던 장군님을 만나뵙곤 했다.

그때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안부를 묻고 또 자신의 생활과 학습 정형을 수령님께 보고드리도록 전략군관에게 정중히 부탁하시었다.

정말 지난날의 추억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원장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은 지금...》

원장은 차에서 내리시는 장군님께 정보로 걸어가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아, 뵙습니다. 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었다. 몹시도 차가웠다.

《오는 길에 좀 지체했더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학원까지 같이 걸읍시다. 눈내리는 이 설날에 로투사와 함께 걷는다는게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장령은 감격한듯 신음소리와 같은 거치른 숨소리를 뿜었다.

만날 때마다 눈물부터 앞세우는 그였다.

자신과 남다른 연고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오늘은 원장동무의 밝은 얼굴을 꼭 볼줄 알았는데 또 틀렸구만.》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지난날이 생각나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아동단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또 아동단학교를 찾으신 수령님한테서 <사향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그 준엄한 시기에 이 학원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시던 장군님의 활동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원아들은 지금 장군님의 그 잊지 못할 나날들을 대를 이어가며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원장은 가슴속에 간직했던 가장 중요한것을 말씀드렸다는 그렇듯 경건하고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장군님의 뒤를 따라 걸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다만 눈보라속을 응시하는 그이의 안광에 짙은 감회가 어려있을뿐이었다.

눈보라는 쉬임없이 몰아치고 있었다.

《정말 력사가 깊은 학원입니다. 아동단학교로부터 시작한다면 벌써 반세기나 되는 로정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간 만경대혁명학원에서는

우리 혁명의 골간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났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의 전선길에서 만나보시었던 만경대혁명학원의 졸업생들을 하나하나 그리보시었다.

이르는곳마다에서 그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골간을 이루고있을뿐아니라 돌격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있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었다.

그 믿음직한 세대들을 이어 오늘은 또 새로운 세대들이 준비되고있지 않는가.

후비군의 성장은 어제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계속되고있는것이다.

《만일 수령님께서 이 땅에 이런 혁명학원을 세워놓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오늘 어쩔뻔했습니까. 정말 멀리를 내다본 위인이시였습니다.》

윙윙 울부짖던 눈보라가 잠시 숨을 죽이었다.

대지는 그 무엇인가를 깊이 음미해보는듯했다.

《원아들속에 앓는 애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건강합니다. 원아들은 지금 설날에 장군님을 모시게 됐다고 얼마나 기뻐들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얼마전에 원아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나를 자나깨나 손꼽아 기다린다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격으로 원아들을 만나보자고 합니다.》

폭 젖어들고 떠는듯한 장군님의 음성이 함께 견고있는 사람들의 귀에 미치었다.

원장은 목이 짹 잠기여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

사색에 잠긴듯한 자연은 다시 눈보라를 일쿠며 설레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무슨 운명적인 냇이 대지의 심층을 세차게 격동시킨 모양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원아들에 대한 그리운 심정을 안으신채 만경대혁명학원의 운동장에 들어서시었다.

그러자 온 학원구내에 천리전선에 메아리치던 병사들의 함성과도 같은 장엄한 소리가 터져올랐다.

운동장에 펼쳐나와 눈을 맞으며 장군님을 기다리고있던 원아들이 두팔을 머리우에 높이 쳐들고 《아-버-지-》 하며 밀물처럼 밀려오고있었던것이다.

몇해전 수령님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찾아오셨을 때 《아버지-》 하며 수령님께로 달려와 안기며 울던 바로 그 원아들이다. 자신을 따라서 수령님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맹세다지던 바로 그 원아들이다.

엎어질듯 달려오는 원아들의 가슴팍에서는 붉은넥타이가 기폭처럼 펄펄 나뭇기고 바지에 찬 무수한 붉은 줄들이 눈발속에서 얼른거렸다.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조화가 일어났다.

흘날리는 눈발이 온통 붉게 물들었던것이다.

아, 붉은 눈보라!

장군님께서서는 설레이는 밀림을 대하실 때와 같은 벅찬 감정을 받으시었다.

준엄한 시절의 첫 기슭에서 시작되었던 혈통의 흐름이 오늘은 얼마나 거대한 폭으로 굽이쳐오고 있는것인가.

혈통의 흐름이란 세월이 가고 시련이 거듭될수록 더욱 장엄해지는것이다.

《아-버-지-》

저마끔 제나름대로 웨쳐대던 애어린 목소리들이 차츰차츰 하나로 합쳐지며 그이의 가슴을 연방 쿵쿵 때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눈앞이 뿌연게 흐려지시었다.

《보시오. 동무들! 붉은 눈보라가 몰아쳐오고있습니다.》

별로 높지는 않으나 아름다운 격정을 담은 음성 이시었다.

그렇다. 다시 보아도 달리 될수 없는 붉은 눈보라였다.

《만경대의 눈보라는 애초부터 붉은 눈보라였습니다. 우리의 혈통도 붉은 혈통입니다. 우리 혁명의 근본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혈통에서 언제나 힘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내 이해에 주체혈통의 시조인 수령님부터 만나뵙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눈물을 흠치는 원장을 떠올리시었다.

문득 김형직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쓰러지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장군님의 심중에서는 비상한 의지와 굳건한 결심이 파도처럼 굽이치시었다.

이해의 진군은 이렇게 붉은 눈보라를 펼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21세기는 붉은 눈보라를 가진 우리의것으로 될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머리를 높이 드시었다.

그러자 저기 하늘중천에 태양처럼 웃고계시는 수령님의 영상이 환하게 비끼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속에서 세차게 일어나는 환희의 종소리를 들으시었다.

승고한 자욱이 새겨진 어제와 오늘과 래일에 대한 감정들이 일시에 내달아오는 커다란 정신적인 승화를 느끼신것이였다.



## 9 월의 하늘가에 나뭇기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공화국기가 휘날린다.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 인양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공화국기가 힘있게 나뭇긴다.

푸르청청한 9월의 하늘가에 **김일성** 조선,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창공 높이 휘날리는 우리의 기발.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이하는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삶과 무궁번영할 미래를 안고 만수대의사당의 지봉우에서 세차게 퍼덕이는 공화국기발을 생각깊이 바라본다.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한평생 뜨거운 심장을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내 나라, 내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낮과 밤 따로없이 마음쓰시며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같은 애국의 의지가 뜨겁게 어려있는 공화국기발.

저 공화국기발에 삶과 운명, 미래를 맡기고 살 아온 지난 50년세월.

천대와 무권리속에서 지지리 짓밟히며 피눈물 나는 생활을 강요당해온 자기들에게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고 존엄과 영예를 떨치게 해 준 공화국정권의 고마움을 심장으로 폐부로 절감 해온 우리 인민이었다.

하기에 이 시각, 우리 인민모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서서 숭엄한 마음으로 공화국기발을 바라 본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나 라찾을 큰뜻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백두산야 피어린 천만리길을 헤치시여 조국을 찾아 주시고 대대로 락후와 빈궁만이 무겁게 서리였던 이 땅우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눈시울 젖어들고 수령님 한평생의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주시고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험한 길 굽은 길 가림없이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뜨거워진 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금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

게 하여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공화국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30대의 젊 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신 환희와 감격이 온 나라 강산에 파도치던 력사의 그날이 되새겨진다.

잊을수 없는 주체37(1948)년 9월 9일.

**김일성** 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 날 력사의 그날, 국기게양식에 나오신 위대한 수 령님께서는 몸소 국기를 게양하시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강산을 뒤흔들며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애국 가》의 선률, 서서히 게양되는 람홍색공화국기발.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삼천리강산이 피눈물에 젖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 자기 성과 이름마저 빼앗겨도 그 누가 알아주는이 없던 조 선사람, 바로 그 조선, 조선사람이 위대한 수령님 에 의하여 당당한 자기의 국호, 국기와 국장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태어나던 그 시각.

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떨치던 장엄한 그 시각, 백두의 기상이 넘치시는 80대의 청년장군 을 우러르며 자기들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였을뿐아니라 진정한 자기 조국, 삶의 요람을 안겨주시고 운명전환의 새 시대를 마련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뜨거운 눈물 흘러고 너무나도 젊으신 수령님의 그 모습에서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락관하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우리 인민들이였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우리 조 국을 찾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애국자의 성스러운 한평생이였다.

항일의 20성상 피바다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전화의 불바다를 헤치시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쳐물리치시고 조국을 지켜주신 백전백승 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

전화의 재더미를 헤치시고 이 땅우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세워주신 창조와 건설 의 영재 **김일성**동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집요한 반공화국고립 압살책동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붉은 기, 공화국기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영광을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녕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이 어려있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수령님께서 남기신 가장 고귀한 유산중의 유산이다.

인류력사에는 애국자도 많았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한 정도자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감과 끝없는 헌신성을 지니시고 위대한 생애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조국에 대한 가장 헌신적인 사랑과 복무의 역사로 것처럼 아름답게, 것처럼 빛나게 수놓아오신 그런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정도자를 역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진정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은 혁명의 붉은기, 공화국기발을 높이 추켜드시고 역사의 준엄한 폭풍우속을 뚫고 헤치시며 우리 조국을 승리와 영광,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성스러운 한생이였거니.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공화국기발의 영원한 기수가 되시어 그 기발을 모진 광풍속에서도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가게하신다.

일찌기 조국은 곧 수령님의 품이라고 하시며 아름다운 경치를 보시어도 그 경치를 찾아주시고 빛내주신 수령님의 은덕에 대하여 생각하시며 수령님의 뜻을 더 잘 받들어 조선을 빛내이실 굳은 결심을 다지군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공화국창건 34돐을 맞는 주체61(1972)년 9월 9일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30대에 국가수반이 되시었다고...

그처럼 젊으신 나이에 주권이 없던 이 나라에 자주적인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시고 세계 대소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위를 만방에 펼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30대의 모습을 그려보시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뜨겁게 격동되심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참으로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를 넘나드시며 강도 일제와 싸우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실 때는 30대의 위인이시였다.

일군들도 저마다 해방직후의 아버지수령님의 년세를 다시금 헤여보기도 하고 또 젊으신 수령님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며 저도 모르게 《야!》하는 탄성을 높이 울리였다.

그런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사실 말이 쉽지 30대에 국가수반이 된다는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잘해서 수령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고수하고 전통을 계승하여야 합니다라고.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간스승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수천년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국가수반으로 모신 뜻깊은 기념일에 수령님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은 이처럼 웅심깊으신것이였으며 결심 또한 확고부동한것이였다.

**김일성**동지의 영원한 품인 내 나라, 내 조국을 철벽같이 지키고 빛내이며 더욱 부강번영하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철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언제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것은 수령님의 뜻이였으며 위업이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는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품인 내 조국을 세상에 더 높이 펼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의지를 안고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의 상징으로 푸르청청한 하늘가에서 세차게 펼쳐이는 공화국기발.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웅대한 조국건설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우리의 공화국기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붙어대는 반공화국광풍속에서도 그 어떤 퇴색도 모르고 끄떡없이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며 기세차게 나뭇기고있는것이다.

아버지수령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 선렬들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휘날려온 공화국기발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자!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역사의 광풍을 뚫고 헤치며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날 희망찬 새 세기, 21세기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숨결이며 억센 의지이다.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세기에 펼치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나뭇기라, 휘날려라, 우리의 기발, 공화국기발이여!

본사기자 최용호

## 공화국과 더불어 50년

김익철

이 땅에서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때로부터 어언 반세기가 흘러갔다.

50년이란 한 나라의 역사로 치면 극히 짧은 토막에 불과하지만 인생의 길이로 치면 웅근 한생애 맞먹는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장장 반만년을 헤아리지만 공화국이 수놓아온 반세기는 그 이전시기의 모든 진보와 변혁을 다 합한것과도 대비할수 없게 거창한 사변들로 가득차있다.

나의 한생은 공화국과 더불어 20세기 후반기의 빛나는 년대들속에서 흘러갔다.

해방을 맞아 새 조국 건설로 들끓던 40년대말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 공화국이 창건되었다. 그때 내 나이 열네살이었다. 운두에 흰줄 두른 학생모를 쓰고 람홍색수기를 흔들며 줄지어 길거리를 행진했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

감격으로 터치는 힘찬 노래소리는 온 강산에 차넘치였다. 나는 이 노래의 힘찬 메아리속에서 일제통치로 말미암아 배우지 못했던 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리높이 외우며 성장했다.

그러나 공화국이 나 자신의 운명과 어떻게 결부되어있는지 그 참 뜻을 아직은 깊이 알지 못했다.

위대한 수형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었습니다.》**

50년대는 우리 조국의 역사에서 가장 준엄했던 시기였다. 이 년대의 문어귀에서 공화국을 요람기에 삼켜버리려는 미제침략자들과의 피어린 대결이 벌어졌다. 전쟁의 포화는 삼시에 온 나라를 뒤덮었다.

이제 다시 공화국을 잃는다면 쓰라린 식민지노예생활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소박한 자각, 아마도 이것이 조국에 대한 나의 첫 자각이었다고 생각된다. 온 나라의 청장년들이 마치고 낮과 붓대를 총대로 바꿔쥐고 용약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후령후령한 군복에 총가목이 정쟁이를 치는 보

총을 메고 총폭탄이 우박치는 전호가로 나의 생활이 옮겨졌다. 원썩을 무찌르며 진격하는 대오의 선두에는 람홍색공화국기가 휘날렸다. 그 기발을 지켜 무수한 전우들이 쓰러졌다. 바로 그 나날에 조국이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장 고귀한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50년대 후반기는 채터미만 남은 이 땅우에 새 생활을 창조하는 복구건설의 거창한 동음속에 흘러갔다.

조국은 은혜로왔다. 아직은 먹을것, 입을것, 쓸것이 부족하던 그때 조국은 군복을 벗은 나에게 대학생복을 입혀주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배움의 시간을 벌충하기 위해 밤과 낮이 따로 없는 학습전투를 벌렸다. 학업만이 아니었다. 어느때는 수풍발전소의 연제공사장에서, 살림집을 일떠세우는 건설장에서, 농사철에는 모내기전투장에서 힘을 바치기도 하였다.

나는 60년대가 시작되는 해에 대학교정을 나섰 다. 그때 조국은 수많은 기술인재들을 요구하였다. 기술교육이 초미의 문제로 대두한 시기였다.

조국은 나를 기술교육의 보람찬 교정에 세워주었다. 이리하여 60년대 나의 생활은 9년제기술의 무교육의 대강을 실현하는 영예롭고 보람찬 나날 속에 흘러갔다.

그러나 나에게에는 남모르는 가슴속에 품어오는 하나의 포부가 있었다.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공화국을 지켜 서슴없이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위훈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해야 할 의무감을 불비 쏟아지는 전장에서 스스로 지냈던것이다.

그 자각이 나로 하여금 교육사업의 드바쁜 나날에마져 창작의 붓을 놓지 못하게 하였던것이다.

조국은 다심한 어머니였다. 나의 소박한 소망도 그 품에서 피어났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교편을 문필로 바꿔쥐었다. 어제날 나라잃고 제나라 글마저 익힐수 없었던 소작농의 아들이 어엿한 작가로 되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친솔대오에 선 나의 보람과 긍지는 참으로 컸다. 그 대오속에서 어느덧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주체61(1972)년 9월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우리 문학이 나갈 길을 가슴벅차게 받아안던 그날은 나의 인생에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었다.

30대에 갓 들어선 젊고 정력에 넘친 모습으로 예지가 넘치는 안광을 빛내이시며 주체문학의 독창적인 사상들을 밝혀주시던 확신에 넘친 담담한

그 음성이 지금도 귀가에 쟁쟁히 울려오는듯싶다.

80년대초에는 제3차 작가대회에 서한을 보내주시었고 90년대초에는 우리 작가들에게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라는 분에 넘친 친필서한을 안겨주시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나의 보람찬 창작생활이 흘러갔다.

돌이켜보면 나의 한생은 공화국과 더불어 높은 인간적준엄속에 자신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온 긍지로운 한생이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준엄한 시련속에 강행군길을 걷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공화국을 수호하고 빛내이는 길에 우리 자신들과 후대들의 보람찬 삶이 약속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 받들어 **김일성**조선을 영원히 빛내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삶이 있다. 나는 뜻깊은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우리 혁명의 첫 세대인 항일혁명투사를 원형으로 하는 새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적으나마 기여할 결심을 다시금 가다듬게 된다.

## 공화국기발과 함께

송찬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 참가하여 환호를 올리던 일이 어제같은데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공화국창건 50돐을 맞고보니 생각이 깊어지면서 나의 한생에 나뉘어온 공화국기발이 떠올라 뜨거워오르는 가슴을 누를길 없다.

지금도 만수대의사당청사우에 승엄히 나뉘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볼 때면 해방후 만수대기슭에 새로 일떠선 내각청사우에 휘날리던 람홍색기발이 눈앞에 펼쳐이느것만 같다.

그때 내각청사 가까이에 있던 학교에서 공부한 행운으로 하여 때때로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멀리서나마 뵈옵곤하였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그 기발을 바라보면 어버이수령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이 떠올라 가슴울렁임을 금할수 없었다.

지금도 5.1절이 오면 공화국기발을 날리며 광장주석단에 계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해가던 그때를 잊을수 없다.

민주의 학원에서 마음껏 배우던 그때에는 공화국의 혜택을 시시각각으로 느끼면서도 새로 태어난 나의 공화국이 얼마나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자기의 첫걸음을 뚫으며 얼마나 소중한 품인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였다.

또한 공화국의 시책아래 이 땅에 일어나는 거대한 전변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미처 다 헤아릴수 없었다.

그것을 깨닫기엔 철이 아직 덜 들었고 조국을 위해 바친 나의 피땀이 너무도 적었던것이다.

후날 공화국을 지키는 준엄한 관가리싸움에 뛰어들어 불타는 전선길도 걷고 포화속을 헤치면서 고지에 휘날리는 포연에 그슬린 공화국기를 눈물속에 바라보면서야 그 참뜻을 제대로 느낄수 있었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그 나날 때없이 떠오른 수령님의 영상은 천갈래 만갈래 공화국기발이 휘날리고 환호성이 진감하는 광장에서 늘 뵈곤하던 태양같이 웃으시던 자애로운 모습이였다.

하기에 탄생 마흔돐을 앞두고 산속의 대학을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광장도 아닌, 주석단도 기발도 없는 백송리 밤나무골에 모시고 진달래꽃다발밖에 드릴수 없었던 그때의 기쁘면서도 송구스럽던 그 심중을 어떻게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하늘에서 적기들이 맴돌던 그날, 조국의 천년미래를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을 마디마디 새기면서 이제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기발이 날리는 전승의 광장에서 수령님께 영광드릴 그날이 머지 않아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이 가슴들먹이 차올랐다.

정녕 바라던 그날이 와서 밤새 평양으로 달려간 우리는 또다시 공화국기를 날리며 승리의 광장 주석단우에 원수복을 입으시고 손을 저어 흔드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마음껏 터침으로써 항시 품고품어온 소원을 가슴후련히 풀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전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재차로 공화국각지를 다니던 기자생활을 거쳐 본격적인 창작의 길에 들어섰던 주체56(1967)년 1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하신 공화국정부정강에 접했을 때 나의 감격과 흥분은 남달리 컸다.

나는 이 력사적인 정강을 작품에 담고싶은 충동에 못이겨 밤을 새우며 가사를 써나갔다.

그런데 제일먼저 이 노래를 들으시고 이렇게 당정책을 절가화하니 얼마나 좋은가, 이제 수령님께서 들으시면 기뻐할것이라고 하시며 신심을 안겨주시분은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이 미숙한 가사에 며칠후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이 새겨지고 독창곡도 아닌 민족관현악과 합창으로 된 긴 노래가 수령님으로부터 채청까지 받게 될줄 그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때로부터 근 20년이 지난후였다.

세월과 함께 사람의 기억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던 《10대정강의 노래》를 다시 소생시켜 어버이수령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리고 치하교시를 받도록 하여주시분도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그후 나는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며 가사 《내조국은 은혜로운 수령님 품이라오》와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을 받아안고 가사 《주체의 기치 높이 힘차게 앞으로》를 창작하였다.

이처럼 공화국과 함께 걸어오면서 당원으로 작가로 키워준 당과 수령, 조국을 노래한 시가작품들도 썼고 여러 혁명가극들과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창작에 참가하였던 나는 《피바다》식혁명가극창조를 승리로 이끄시고 무대미술형식을 새롭게 개척하신 위대한 령도자의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성을 온몸으로 체득할수 있었으며 자신의 온 심신을 바쳐 심장속에 품는 조국에 대한 송가를 마음껏 읊조릴수 있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다할 명곡 한편 내놓지 못하였다. 예순도 펴 지나고 머리에 흰서리가 늘어날수록 자책감은 더욱 깊어져 안타깝기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과 의도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는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바라는것이며 현실이 그 해결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문제이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형상적으로 원만히 구현할때만이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는것은 창작실천이 보여준 엄연한 진리이다.

나는 이 진리를 실지 창작과정을 통하여 체득할수 있었다.

주체84(1995)년 6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붉은기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오한 뜻이 담긴 말씀을 받아안게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붉은기를 높이 들 때이다.

백두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노래를 통하여 나의 조국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로 나가고있는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안고 가사 《높이 들자 붉은기》를 창작하게 되었다.

이 가사에 당의 사상과 의도가 적으나마 반영되었다면 그것은 장군님의 붉은기철학 즉 붉은기에 어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다소나마 형성적으로 구현되었으며 장군님따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드팀없는 신념이 어느정도 담겨졌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노래가 시대의 명곡으로 태어나 90년대의 《적기가》로 울려퍼질수 있는것은 그 어떤 개별적인 작가나 작곡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대를 향도하는 위대한 령도자의 손길아래서만 빛나게 이루어질수 있었다는것을 나는 체험을 통하여 절감할수 있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어있는 붉은기는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기치이며 우리 삶의 요람이고 어머니조국인 공화국의 기치이기도 하다.

정녕 우리의 붉은기를 떠나서 공화국기발을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붉은기를 내리운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의 엄중한 사태를 목격하면서 우리가 가슴치며 깨달은것은 붉은기를 내리우면 사회주의가 망하고 붉은기를 높이 들면 사회주의도 지키고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과 영예도 빛내일수 있다는 력사의 교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조국땅우에 처음으로 휘날려주신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은 어제와 그리했듯이 오늘도 래일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부강번영을 펼칠 **김일성**조선의 밝은 앞길에 붉은기와 더불어 높이 높이 휘날릴것이다.

## 반세기전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김삼복

공화국창건 50돐과 관련한 글을 써달라는 편집부의 청탁을 받고 펜을 들었으나 막상 왜서인지 글이 나가지 않는다.

무엇을 쓸것인가.

공화국과 나, 공화국과 작가...

모든 사람들을 따듯이 품어주고 안아키워주는 고마운 어머니품인 나의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없이 거대하고 자애로운 조국에 대하여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할수 있을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공화국정권이야말로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며 공화국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 때에만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굳은 신념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 왜서인지 나의 눈앞에는 내가 나서자란 내 고향 바다가 떠오른다. 바다가 모래불에서 동무들과 함께 발가벗고 뛰어다니며 해종일 장난에 취해있던 여섯살 철부지 어린 소년, 그것이 바로 공화국창건으로 온 나라 강산이 들끓던 그때의 나의 모습이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나가고 세월의 비바람에 씻겨 추억도 희미해지고 많은것이 잊혀졌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던 그 나날의 격동과 환희의 세찬 파도에 나도 어쩔수 없이 휘말려들었던 일이다.

그날도 나는 친구인 바우와 함께 방파제에서 계잡이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그물구렁에 고등어대가리를 넣어 방파제 바위잡에 밀어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있었다. 그물구렁을 꺼낼적마다 게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따라나오곤 했다. 그러면 그것을 뚜껑이 달린 양철그릇에 털어넣었다. 양철그릇안에서는 게들이 거품을 물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소란스러웠다.

그런데 한낮이 되여울무렵 마을 한복판을 꿰지른 큰길에 줄을 지어 노래를 부르고 만세를 웨치며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나타났다.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앞에 모시고 손에 손에 처음 보는 기발을 든 사람들은 힘차게 노래를 부르다가는 선창자의 구호에 따라 목청껏 만세를 웨치곤 했다. 북소리, 장고소리, 팽파리소리, 새납소리가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야, 굉장하구나! 바우야, 가보자!》

그 순간 벌써 계잡이에 흥미를 잃은 우리는 그물구렁도 양철그릇도 죄다 내버리고 달려갔다.

난생 처음보는 그 굉장한 인파속에서 나는 수산사업소에 다니는 나의 아버지와 바우의 아버지, 부두가에서 고기뿔을 따는 나의 누나들과 바우의 어머니 그리고 또 이웃사람들, 한마디로 나의 고향마을사람들의 낯익은 얼굴들을 모두 찾아볼수 있었다. 누구나 병실병실 웃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금시 등실등실 춤이라도 출것 같았다.

시위대렬뒤에는 나같은 꼬마들이 가득 따르고 있었는데 나는 그중에서 귀미라고 하는 내포래 계집애가 종이로 만든 기발을 흔들면서 방실방실 웃으며 걸어가는것을 보았다. 바우와 나는 꼬마들의 행렬에 지체없이 뛰어들었다.

나는 귀미에게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나도 한

번 흔들어보자.》고 졸라댔다. 귀미는 순순히 기발을 내주었다. 붉은색, 푸른색, 흰색의 고운 바탕에 오각별이 그려진 기발! 얼마나 곱고 마음에 들었는지 모른다.

《이건 우리 나라 기발이야.》 귀미가 나한테 대주었다.

《그래?!》

그것을 안다는것만도 나에게는 대단하게 생각되었다.

사실 귀미도 바우도 나도 이 기발이 무엇을 상징하는것인지, 이 시위대렬이 무엇을 경축하는것인지 다는 알수 없었다. 그저 사람들의 흥분에 우리도 덩달아 휘말려들어 시위대렬을 따라 맨발로 달리면서 두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웨치고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처럼 벌썬벌썬 웃었다. 다만 우리도 해방을 맞아 살기 좋아지고 근심걱정 없어진 우리나라에 무엇인가 큰 경사가 생겼다는것만은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후날 인민학교에 들어가 우리 글과 발을 배우게 되면서야 그날 그저 곱다고만 생각했던 그 기발이 무엇을 상징하며 그날의 격동적인 감격과 환희가 무엇을 경축하는것이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차례졌는가 하는것을 어렵듯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우리 나라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입니다.

이 나라를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너선생의 이 말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다는 알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날의 시위대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나라가 태어난것을 경축하는 행렬이였다는것, 그 기발이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것이였다는것만은 똑똑히 알수 있었다.

제 나라가 없었던탓에 해방전에 우리 집은 얼마나 가난에 쪼들리며 살았던가. 파도가 세찬 날에도 돈에 환장한 선주놈의 강요에 못이겨 나의 아버지는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항상 불안속에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심장병이 생기고 고기뿔을 따고 염장하는 고된 로동에 지친 어머니는 일찍 폐인이 되며버리고말았다. 아버지는 하는수 없이 입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둘째누나를 선주놈네 집에 하녀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도 자기의 나라, 우리 자신들이 주인인 우리 나라가 생기었다. 누나도 돌아오고 어머니의 병도 나아가고, 늘쌍 누데기를 걸치고 굶주린 개처럼 바다가를 오락가락하며 먹을것을 찾아 헤매던 나나 바우가 어엿한 학생이 되고...

하지만 그 시절 나에게 있어서 조국에 대한 표



상이란 기껏해서 배품지 않고 춤지 않고 마음껏  
배울수 있게 해준 고마운 품이라는것, 그 고마운  
나라를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세워주셨  
다는것,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조국에 대한  
나의 소박한 이 생각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  
욱 깊어지고 심화되어갔다.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와 간고했던 전후복  
구건설시기를 거치면서, 조국이 겪는 고난과 시  
련, 승리와 영광을 직접 체험하면서 나는 조국이  
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하는것  
을 깨닫게 되었다.

지나간 어린 시절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고향  
마을 사람들의 시위대렬속에 뛰어들어 목청껏 만  
세를 웨치던 그날의 그 추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귀중하고 값있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소중한 감정,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품인 나의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감정은 나로 하여금 창작의 붓을 들게 하  
였으며 나를 작가로 이끌어주었다. 또 그 감정은  
내가 써낸 모든 작품들의 밑바탕에 맥맥히 흐르  
는 기본정서로 되고있는것이다.

만약에 내가 써내는 글들에 반영하는 나의 조  
국, 바다가마을의 햇빛은 소년이었던 나에게 먹  
고 입고 쓰고 살 권리, 일할 권리를 주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당당한 작가로 키워준 고마운 어  
머니조국에 대한 나 자신, 아니 우리 가정과 고향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 인민모두의 깊은 애정과  
찬사의 감정, 참된 복무정신이 흐르고있지 않다면  
그 글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것으로 될것이다.  
그것은 지난날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것  
이다.

나의 전생애라고도 할수 있는 50년세월을 돌이  
켜볼수록 험벗고 굶주리는 소년이었던 나에게 진  
정한 삶의 보금자리-조국을 찾아주시고 인간의  
참된 존엄과 권리를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과 소  
박한 꿈을 지닌 문학청년에 불과했던 나를 내세  
워주시고 작가로까지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에 대한 한량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다. 정녕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  
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은 진정한 어머니의 품,  
조국의 품이었다.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찬 50년력사, 그것은  
나의 운명과 뗄수 없이 련결되어있으며 그 품을  
떠나서는 나의 작가적성장에 대하여 말할수 없  
다.

나는 잊을수 없는 어린 시절의 그날에 시작된  
사랑하는 나의 조국에 대한 소중하고도 귀중한  
그 감정을 내 심장속에 영원히 고이 간직하고 경  
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강성대  
국으로 솟아오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  
작하겠다는것을 결의하는바이다.

## 하늘

### 문동식

머리들어 바라보면  
가없이 푸른 하늘  
볼수록 보고싶은 하늘입니다  
내 마음 안겨사는 하늘입니다

땅에서도 발밑에 밟히며 살던  
한숨과 눈물밖에 모르던 인민을  
나의 하늘이라고 내세워주신  
수령님의 그 사랑 저 하늘에 비껴있어

바라볼수록 높기만 합니다  
주인의 담당한 권리로 빛나는  
인민의 도도한 존엄입니다  
무적의 힘을 지니고 사는  
인민의 푸른 기상입니다

사나운 설한풍과 불길도  
저 하늘만은 어쩔수 없었음은  
피바다 불바다를 다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 인민의 저 하늘에  
태양으로 솟아있기때문이어서  
희망이 넘치는 저 하늘에  
그림같이 피어나는 황홀한 무지개

태양의 품속에 행복만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생활을 말해줍니다

무한히 창창한 저 하늘에  
령롱하게 반짝이는 무수한 별빛은  
위인의 해빛에 영원히 빛을 뽐는  
인민의 지혜와 슬기입니다

광풍이 불어와도 무궁합니다  
불구름 밀려와도 불멸합니다  
태양이 솟아올라 하늘이 열리고  
맑은 하늘 비끼여 태양이 눈부시는  
우리의 하늘, 인민의 저 하늘

지구우에 얼음바다 덮인다 해도  
해와 하늘을 가를수 없듯이  
수령님과 인민이 만대에 함께 있는  
조선은 자자손손 인민의 세상  
만복이 꽃피는 자주의 락원임을

아- 저 푸른 하늘이 다 말해줍니다  
저 밝은 태양이 다 빛내줍니다

## 향도의 자욱을 따라 6 천리

김대성

### 장자산갈림길에서

장자산발전소로 가는 길옆에 펼쳐진 강녕이밭에서는 김매기가 한창이었다. 서로마다 승벽내기로 앞을 다투며 김을 매나가는 사람들.

공화국창건 50돐을 난알풍년으로 맞이하려는 일념으로 한여름의 피약벌아래서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나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후터워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강도에서는 전후 시련의 시기에 강선의 로동계급이 그러했듯이 오늘의 강행군의 앞장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 전국이 자강도를 따라 사회주의강행군을 힘있게 벌려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전국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그 사랑, 그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고자 오늘도 벌에서 살며 애쓰는 자강도사람들.

우리는 그들속에서 강계시당 책임일군 리득남동무를 만났다. 그는 뜻깊은 기행길에 오른 우리를 반갑게 대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계 시내에 있는 중소형발전소들을 돌아보시던 그날 강계 시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모두 떨쳐나서 주변농장들에 거름을 실어나르고있었다. 갑자기 승용차행렬이 나타났지만 대도로에 꼭 들어찬 그들은 미처 길을 내드리지 못했다. 바로 그 선두승용차에 오매에도 그림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실줄은 누구도 몰랐던것이다. 동행하던 일군들은 이 뜻밖의 정황에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강계사람들이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년초부터 모두다 떨쳐나섰다고 치하해주시며 차창을 내리우시고 그들을 손저어 고무해주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뒤늦게야 알아뵈게 된 그들은 꿈을 꾸는듯싶어 잠시 어리둥절해졌다가 일제히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쳤다. 그것은 정녕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

에서 위대한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된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모두가 떨쳐나서 농사를 본때있게 지으면서도 장자강하류에 건설중인 홍주발전소를 완공하고 여기 북천강상류에도 두개의 중소형발전소를 더 건설하려고 합니다.

저걸 보십시오. 벌써 새로운 발전소의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당책임일군이 가리키는곳에서는 붉은기가 힘차게 나뭇기는데 불도젤과 굴착기들이 우렁찬 동음을 울리고 삽과 곡괭이, 운반도구를 쥔 사람들이 붐비고있었다.

강하천에서는 이르는곳마다 발전소언제를 일떠세우고 논과 밭에서는 풍년작황을 가꾸어간다.

이것이 강행군의 앞장에 선 강계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강계시의 풍경이였다.

장자산발전소는 강계시와 장강군이 경계를 이루는곳에 자리잡고있었다. 갑문식언제로 북천을 막고 그결에 발전소건물을 휴양각처럼 멋지게 지었는데 1층은 발전기실이고 2층은 배전반실이고 로대식으로 시원하게 터놓은 3층은 장자산사적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즐겨 리용하는 식당이였다.

발전소옆에는 갈림길이 있는데 장자산사적지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표식판이 세워져있었다.

그 갈림길을 따라 골짜기로 5리가량 들어가면 장자산사적지에 이르게 된다.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리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남기신 자욱을 안고 우리 혁명력사의 증견자로 우뚝 솟아있는 장자산.

여덟살 어리신 나이에 여기 장자산에 오시여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장군의 담력을 키우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48년만에 다시 오시여 낮익은 산천, 장자산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심중이 얼마나 감개무량하셨으랴. 장자산발전소를 돌아보시고 아주 잘 건설했다고, 형식이 새롭다고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채 감회깊은 눈길로 장자산사적지쪽을 바라보시었다.

태어나 자라난 고향이런듯 그처럼 정답고 그림던 고장이었다. 가장 엄혹하고 시련에 찌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거기에 있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못잊을 장자산이었다. 그날에 자신께서 손수 심으신 두그루의 잣나무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무성한 숲을 이루었는데 어서 오시라고 소리쳐 부르며 감격에 설레이는듯싶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수행한 일군들은 도내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장자산사적지에 가보시자고 삼가 말씀드렸다.

하지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직 중소형발전소들을 다 돌아보지 못했는데 어서 가자고, 앞으로 자강도인민들이 모두다 전기난방이 된 살림집에서 잘살게 되면 그때에 와서 장자산을 돌아보고 조용히 말씀하시길 승용차에 오르시었다.

이미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이 가슴뜨거운 사연을 다름아닌 장자산갈림길에서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는 우리들은 솟구치는 걱정을 누를수 없었다. 장자산의 푸르른 잣나무숲이 설레이는 소리에 실리어 어디선가 서정깊은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듯싶어 우리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이였다.

광복의 피어린 길 헤쳐오시며  
스무해 긴긴세월 못잊던 고향집  
열려진 사립문을 지척에 보시며  
장군님 지나가신 만경대갈림길이어

귀전에 되살아나는 그 친근한 선물을 마음속으

로 따라부르노라니 우리의 눈시울은 후덥게 젖어 들었다.

오, 장자산갈림길이어!

아버이수령님 항일의 20성상 한시도 잊으신적 없는 그리운 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 새 조국 건설을 위해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가신것처럼 48년세월 언제나 그리시던 장자산을 곁에 두시고 인민들에게 더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중소형발전소들을 찾아 거룩한 자옥을 옮겨가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 6천리 길을 헤치시며 찾아주신 강계는 오늘의 강선이다.

해방후나 정전직후의 어려운 나날에 무엇보다 필요한것은 강재였지만 오늘의 강행군에서 무엇보다 필요한것은 전기이다. 자력갱생의 정신, 강계정신이 내려치는 장자강반에 일떠선 중소형발전소들에서 흘러나오는 전기는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다그쳐가는 내 조국의 심장을 더 세차게 고동치게 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돌격의 나팔소리처럼 울려퍼지는 발전기소리와 함께 우리 불빛밝은 락원으로, 최후승리의 상상봉으로 가리니.

집집마다 밝은 빛과 뜨거운 열이 흘러들어 행복이 더 활짝 꽃피날수록 우리는 잊지 못하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우리들에게 락원을 꾸려주시기 위해 그림던 장자산을 지척에 두시고도 중소형발전소들을 찾아가시였음을, 그날은 눈보라 몰아치는 사나운 겨울날이었음을...

## 가사

# 병사와 고운 새

## 최문식

소낙비 내리는데 병사들 천막에  
고운 새 한마리 날아들었네  
새야 새야 너 어쩌다 비를 맞았니  
병사는 따듯이 품어주었네  
아 고운 새

비개인 하늘가에 해빛이 넘칠 때  
병사는 고운 새 놓아주었네  
새야 새야 날아라 맑은 하늘에

한없이 자유로이 나래 펼치라  
아 고운 새

고운 새 저 멀리 날아가는데  
병사는 오래도록 눈길 못떼네  
온갖 새들 노래하는 산천 없이야  
병사가 따로 지킬 조국 있으랴  
아 고운 새

# 사령부와 함께

김영

아득히  
세월은 가고  
사람도 가고...

가는것이 세월이더냐  
높은 산 험한 령 넓은 강 거슬러  
거슬러오는 세월있나니  
어허, 못잊어 첩첩한 그 나날들을

어디이드뇨  
오산덕을 내려  
두만강 압록강  
푸른 물을 넘나드신  
피어린 자옥자옥은

구름너머 타향에서  
봄을 맞으며  
봄빛처럼 뿌리시던  
그 미소안고  
한생 걸으신 길은

오, 어디였드뇨  
백두의 밀림  
동패자의 눈덮인 산야  
초연속을 달리시던 대사하언덕  
건국, 건군의 초행길을 열어가시던  
해방산기슭은

사령부가 있는 하늘가쪽에  
눈발이 날리면  
어머님 마음에도 눈발이 날리더니  
그 눈발안고 가신 길은 얼마나 멀던고

사령관동지의 젖은 행전  
품에 넣어 말리시며  
백설을 헤쳐가시던  
이름모를 설령은 또 천굽이더냐 만굽이더냐

전설의 김대장을  
전설처럼 받드신  
전설의 어머니 행군로여

정녕 그 행군로는  
한생토록 사령부와 함께 계신 길!  
흰머리 한오리 없지 않은  
서른두해에  
3천년을 살아도 못걸을 걸음을 하신  
그 길은 사령부와 더불어  
사령관동지와 함께 걸으신 길!

아아, 못잊어  
광막한 백두의 칠칠야밤에  
충신의 등불을 켜들고  
김대장의 앞길에 빛을 뿌려가신  
오산덕의 어머니

어머니는 오늘도 계시여라  
빨찌산 군모아래  
백화같은 웃음을 담고  
우리의 최고사령부와 함께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최전선길에...

해와 달 흘러서  
높은 산 낮아져  
들이 되고  
들이 낮아져  
바다가 되여도  
어머니는 가는 세월에 계시지 않아

언제나 그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는  
김정숙어머니  
사령부의 어머니이시여!

## 내 눈가에, 내 마음속에

-영광군 자동리 성지골에서-

진춘근

숲이 설레니  
이 가슴도 설레는가  
금시 청솔가지사이로  
그날의 어머님모습 뵈울듯

백두산에서

성지골은 그 몇백리길래  
간고했던 항일전의 그날  
김정숙어머님  
여기까지 다녀가셨으랴

일제의 《철통의 경비진》

총칼의 숲을 헤치시며  
 걸어오시던 그 천리길에  
 어느 하루 잠인들 편히 주무셨으랴  
 때식인들 제대로 드셨으랴

도천리에서 신흥지구  
 적구에서 적구로  
 걸으신 그 걸음걸음은  
 갈길 몰라 헤매던 겨레의 가슴에  
 장군님의 해발을 안겨주시고  
 전인민적항쟁으로  
 천만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신 걸음

애오라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 길이라면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위험을 위험으로 여기지 않으시며  
 멀고 험한 길을 누구보다 많이 걸으셨거니

아, 숲도 이 가슴도  
 함께 뒤설레는 성지꽃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생각으로  
 이 심장 불태워주는곳

백두산에서 휘날려온 붉은기를  
**김정일**동지를 따라 끝까지 휘날려갈  
 내 눈가에 내 마음속에  
 어리어와라  
 혁명가의 위대한 귀감이신  
 어머님의 그 거룩한 영상이

## 빛나는 9월

### 까르멜로 가르시아

즐거운 이 저녁  
 상상의 책을 펼쳐드니  
 저 멀리 아득한 그곳에서  
 환희의 9월을 노래부르는  
 새들의 지저귀는 들려오고  
 순결한 이 내 마음  
 흙모의 시가 되어  
 금강산 산정에서  
 울려퍼지는듯하리라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그날은 얼마나 경사스런 날이었던가

나의 경모하는 대원수님  
 그이께선  
 오늘에 살고계시여라  
 그이를 높이 우러르는 이내 마음  
 무어라 감히 표현할길 없으랴

그이는 거짓을 잘라버리시는  
 장검  
 그이는 제국주의를 요정내시는  
 승리자  
 그이는 백전백승하시는  
 령장  
 그이는 새형의 인간의  
 육성자

나는 두렵지 않노라

붉은기를 계속 들고나가는것이  
 남들은 그걸 내리우겠으면 내리우라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죽기는  
 매일반이거니

**김일성**대원수님 당신께선  
 새형의 인간들에게  
 가장 빛나는 거울과 같은분이시여라

세월이 제아무리 흐른다 해도  
 당신을 흠모하는 나의 시  
 높이높이 울리리라  
 원수들을 단죄하는 장검이 되어

당신의 구상  
 생동한 현실로 꽃피남을  
 나는 보게 되리라  
 사람마다 한가정처럼 단란하게  
 여기저기 모여살고  
 통일렬차 질풍같이 달리고있음을

이날을 맞아 조선의 형제들  
 서로서로 열싸안고  
 거리와 마을마다에서  
 명절을 즐기고있을것이여라

당신께서는 오늘의 **김정일**동지가 되시여  
 벽찬 오늘을 살고계시여라

(필자는 꾸바시인임)



## 세월의 년륜속에

김영희

창밖은 벌써 어둑어둑해졌다. 어언 청명경이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쥐었다놓으며 횡행그레한 방안을 서성대인 서유정은 창결에 우두거니 선채 질어가는 어둠속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울타리결에 쌍보초처럼 서있는 두그루 백양나무사이에서 무언가 자꾸만 희끗거렸다. 저게 뭘가 하고 눈총기를 모으던 그는 널어놓은 빨래에 생각이 미치자 허구쁜 미소를 지으며 급히 마당으로 나갔다.

꽤 널찍한 정원에 빈틈없이 심어 가꾸는 강녕이포기들이 싱싱한 잎새를 와실렁거리며 어리광치듯 그의 치마폭에 감겨든다. 여기서 딴 꽃강녕이를 가지고 만경대혁명학원에 갔을 때 이렇게 웃자락에 매달리며 좋아하던 원아들의 모습이 떠오르자 마음이 후더분해졌다. 그제 말년의 락인지도 모르지 하고 그는 아까 전화가 오는바람에 고랑에 놓았던 호미를 다시 집어들었다.

사위네가 강녕이밭에 극성인 그를 위해 손짜게 잘 버려서 보낸 호미다. 칠순의 늙은이가 허리 아플세라 자루도 긴것, 짧은것 여러가지로 만들어보냈다. 올해에는 딸과 사위가 있는 전연구분대 초병들에게도 꽃강녕이맛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는 풀 한대 없는 이랑을 벉벉 긁어나갔다. 하지만 그렇게도 성수나던 일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었다. 그의 귀전에선 여전히 아까 전화에서 울리던 당력사연구소 일군의 목소리가 같은 곡을 되풀이하는 소리판처럼 뽕뽕거렸다.

《저 주체38년경에 중국 치치하루에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해외동포영접총국에서 제기된 문제인데 로씨야에서 온 교포 한분이 그때 치치하루에 다녀온 일이 있는 옛 빨찌산 녀대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교포는 북만에서 살다가 어린 딸을 친척집에 맡기고 쏘련으로 들어갔는데 그 딸을 찾자고 그 고장에 가서 두루 수소문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 내가 데려온 옥금이가 혹 제 딸이 아닌가 해서 예까지 찾아왔다는것인가?)

푹 하고 실하게 자란 강녕이대가 너부러졌다. 와뜰 놀란 유정은 제손으로 찍어넘긴 강녕이포기를 아프게 들여다보았다. 부러진 대밑에는 껌진한 진물이 방울방울 맺힌다. 그는 마치 이제는다 아물어 덕지가 앓은 제가슴의 상처를 예리한 호미날로 꼭 찍어놓은 느낌이었다. 거기서도 역시 진물이 흐르고있었다.

손맥이 풀린 유정은 겨우 몸을 일으켜 백양나

무밑 의자에 가앉았다.

초여름의 상긋한 바람이 그의 창백한 두볼을 쓰다듬자 달큰한 피나무꽃향내가 물씬 풍겨온다. 달빛이 부서지는 은빛잎새를 야들거리며 백양나무가 설레인다. 올려다보니 별많은 조국의 밤하늘이 가없이 펼쳐졌다.

별많은 밤하늘을 류달리 사랑하는 그였다. 그 사랑은 백두산 녀대원시절부터 시작된것인지도 모른다. 숙영의 밤, 우등불가에 누우면 수림속 아슬한 나무우듬지사이로 손바닥만한 밤하늘이 보이군했었다. 그것은 마치 찢겨진 손수건조박같았으나 그래도 거기에선 파아란 별이 웃으며 정답게 내려다보군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역의 하늘이었고 타향의 차거운 별들이었다. 유정은 그때 별이 빛나는 조국의 밤하늘을 얼마나 그리웠던가.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을 때 녀대원들이 장군님택에 모인적이 있었다. 모처럼 모인김에 빨찌산 시절에 먹고싶었던 음식을 해먹자고들 하였다. 그날 녀대원들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어머니로 불리운 김채순이 모랭이에 무득이 밭깃한 송기떡을 해왔다. 검은 버섯을 잘게 찢어 문양을 놓고 노란 참깨를 뿌려 고명을 한 송기떡은 정말 먹음직스러웠다. 모두들 그의 수고를 치하하며 하나씩 들었다.

《이제 어째 이리 맛이 없소.

우리가 처창즈에서 먹던 송기떡이 생각나오. 그제 얼마나 별맛이었소.》

맨나중여야 하나 집어 맛보던 채순어머니의 말이였다. 그는 말없이 웃고계시는 김정숙동지를 건너다보았다.

《그러니 우린 억만장자 부럽잖게 이 세상 별미란 별미는 다 맛본 사람들이예요.》

그이께서 함뻑 웃음을 담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녀대원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나란히 누워 별많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인생의 진미란 진미는 다 맛본 빨찌산시절을 그림계 추억하였다. 밤하늘의 별들도 부러운듯 그들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유정에겐 안타깝게 감빡이는 그 별들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눈동자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별 하나, 나 하나... 를 읊조리던 동요시절처럼 그 별 하나하나에 그리운 전우들의 이름을 붙여보았다.

저 별은 오중흙동무, 저 별은 최희숙동무, 저 별은 《12련발》, 요 별은 《꼬마신랑》, 저기 저

별은 석지대장일거야. 불시에 눈앞이 뽕얇게 흐려들었다. 별들도 더는 견딜수 없는듯 그리운 조국땅으로 왈각 쏟아져내렸다.

그때 곁에 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셨었다.

《유정이, 치치하루에 갔다와요. 딸애를 찾아야지. 석지대장이 남긴 일점혈육인데 꼭 찾아와야겠다고 장군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유정이 치치하루로 떠난것은 동북해방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장개석군대가 해남도까지 밀려가던 무렵이었다. 만주의 주요 도시들중의 하나이고 교통의 요충지인 치치하루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었지만 거기서 다시 항일무장투쟁시기 12지대의 활동지역이었던 철러현, 통화현 일대로 가는 길은 멀고도 위험하였다. 동북은 해방되었으나 아직 채 질서가 잡히지 않은 때였고 여기저기서 국민당잔당들의 소요가 드문하였다. 요행 무사히 철러현에 당도하니 현당서기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미 기별을 보내시여 자기들도 그의 딸을 찾고있었다고 하면서 다 수소문해놓았으니 러독부터 풀라고 하였다. 유정은 딸애를 맡겼던 마을에 가보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그 마을은 쏘만국경쪽이 더 가까운 길은 산골에 있었다. 현당서기는 산속에 패잔병들이 육식거리는데 그게 어디라고 가겠는가고 펄쩍 뛰었으나 유정의 결심은 그 무엇으로써도 변경시킬수 없었다. 현당서기는 손을 내져더니 마차도 얻어주고 길안내자도 붙여주었다.

마차는 황도빛 흙타래를 말아올리며 광야를 질주하였다. 멀리서 락타의 뭉실뭉실한 산들이 연줄연줄 마주 달려왔다.

한때 밀영이 자리잡았던 마구동 깊은 골안에 들어서니 마차는 더는 갈수 없었다. 흙냉쿨, 고사리, 인동덩굴이 풀길없는 머리타래처럼 일기설기 뒤엉킨 잡관목숲을 헤치며 유정은 앞서서 걸었다. 잊을수 없는 전장, 낮익은 수림속에 들어선 것이었다.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지하공작 나갔다고던 그를 기다려주던 그때처럼 어느 이팔나무밑에 지대장이 서있는것만 같았다. 유정은 그때처럼 세차게 뛰는 가슴을 꼭 누르며 이 나무, 저 나무사이를 안타까이 누볐다. 잣송이를 물고가던 청서 한마리가 인적기에 흠칫 놀라 곁에 선 분비나무우로 살같이 올라갔다. 유정은 청서가 떨어뜨리고 간 잣송이를 집어들었다. 그들의 결혼이 선포되던 날이 잣송이와 솔방울로 멋진 축담을 쌓아주던 전우들생각이 못견디게 났다. 가루가 푸실 푸실 이는 군감자를 한버치 담아 내놓으며 《자, 감자잔치요.》 하던 사람좋은 후방부관이 금시 숲속에서 나타날것만 같았다. 소슬한 가을바람이 군감자냄새마저 실어오는듯싶었다. 타오르던 우등불, 군감자를 하나씩 들고 노래와 춤으로 그들

의 결혼을 축복해주던 전우들, 이제 밀영에 가던 그네들과 만날수 있길라도 한듯 덩굴풀에 걸채이며 넘어지며 숲을 헤쳐가던 유정은 그만 우뚝 멈춰섰다. 앞에는 피방울같이 빨간 열매가 다닥다닥 열린 마가목 한떨기가 있었다. 그는 빨간 열매 하나를 따들고 뉘엿이 들여다보았다.

그게 어느때였던가. 갑자기 적들이 밀려들었는데 딸애가 자지리지게 울어댔다. 그는 마가목열매를 따서 아기 입에 밀어넣고는 적들을 맞받아 나갔다. 전투가 끝난후에 와보니 딸애는 파랗게 질린채 숨이 없었다. 마가목열매가 목에 걸렸던 것이다. 그걸 우버내자 아이가 피어났다. 지대장은 그애 볼에 거칠한 뺨을 비비며 흐느껴울었다. 그것이 그에게서 본 처음이자 마지막눈물이었다. 딸애가 아빠얼굴을 가려보고 방싯방싯 웃기 시작했을 때에 지대장이 후방밀영으로 왔다. 그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훈련기지로 이동할때 대한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전달하고나서 유정과 마주앉았다. 그들사이에는 주먹을 빨며 발쭉거리는 딸애가 누워있었다.

《대오를 따라가겠소 아니면 적구에 내려가 애를 키우겠소?》

지대장의 낮은 목소리가 유정에겐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심중한 말을 할 때면 더 목소리가 낮아지는 지대장이었다.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대오에서 떨어지는가 아니면 아이를 떼어놓고 대오를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두 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것을 알았다.

15살때 유정은 앓는 어머니와 오롱조롱한 동생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중국토호네 집에 점으로 팔려가야 할 운명이였었다. 가혹한 운명의 낭떠러지앞에서 그는 자기의 존엄도 지키고 엄마, 동생도 구원하는 길이 혁명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길에서 물러설래야 물러설수 없는 몸이였고 다른 길로 갈래야 갈수 없는 몸이었다. 설사 이제 평백성으로 가만히 숨어살자 해도 적들은 결코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것이다. 죽이든가 반혁명의 길로 내몰것이었다. 그는 딸애와 헤어지는수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다.

그들은 인가를 찾아 떠났다. 밀영에서 멀지 않은곳에 나나이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 말사슴사육과 산짐승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목민들인 그들은 천성이 어질고 마음이 후해서 유격대를 언제나 성의껏 도와주곤하였다. 그 마을에는 살길을 찾아 이 북만의 막바지까지 굴러온 조선사람들도 몇집 있었다.

멀리에 단풍은 활엽수가 드문드문 섞인 질푸른 수림의 가냘픈 하얀 덩기오리같이 휘감은 강이 보였을 때 유정은 지금 자기가 딸애를 안고 나나이인 마을로 가는것인지 아니면 그애를 찾으러 가는지 가늠할수 없어 어리둥절해졌다. 그사이의

세월이 응축되어 추억과 현실이 하나된듯싶었다.  
(눈강이구나!)

흰눈이 햇빛에 반짝거리는것 같아 그렇게 부르는지도 모른다.

한달음에 강기슭에 이른 그는 성급히 물에 들어섰다. 물이 얼마나 찬지 뼈속까지 저려들었다. 그때도 이 강을 건넜는데 물이 이렇게 찬줄을 왜 몰랐을가. 아니, 그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넜던지 기억해낼수 없었다. 그저 나나이인마을의 첫집, 지붕우에 빨간 고추가 이채롭던 조선초가집 토방우에 아이를 내려놓고 황황히 돌파서던 일만이 가슴아릿이 떠오를뿐이었다.

...강을 거의 건넜을 때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졌다. 찬 비방울이 얼굴을 때렸을 때에야 그는 정신이 펴져 들었다.

《에그, 애가 비를 맞겠네.》

유정은 책 돌파서 강물을 차며 돌부리를 차며 정신없이 달렸다. 먼저 강을 건너섰던 지대장이 달려와 그의 어깨를 잡아제겼다.

《와요, 와요. 애가 비를 맞는데...》

난 죽고말겠어요..》

그는 억센 손아귀에서 벗어나보려 몸부림을 쳤다. 순간 눈앞에서 불이 번쩍 일었다. 지대장이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던것이다.

그는 강바닥에 퍼터앉아 목놓아울었다...

유정은 부상자들을 인솔하고 먼저 떠나게 되었다. 헤어질 때 지대장은 손을 댔던 그의 불을 아프게 바라보았다. 그의 큰 손이 서서히 그리로 다가왔다. 유정은 눈을 꼭 감고 위로와 애무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무척 낮은 목소리만이 속삭임처럼 울려했을뿐이었다.

《자기를 이겨낼줄 아는데 혁명가이지. 몸조심 하오. 애는 후에 꼭 찾을시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리별이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훈련기지에서 유정은 남편이 적들의 포위에 들어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비보를 들었다.  
...

내물은 그의 아픔을 달래려하는듯 종아리를 살살 어루만지다가가는 어쩔수 없다는듯 저갈데로 가버렸다. 추억의 내를 건너 산우로 오르니 꿈에 자주 보이던 그 나나이인마을이 내려다보였다.

이제 어찌된 일인가. 산중턱에 말사슴대거리같은 바위가 있는것을 보면 분명 그 마을인데 몽골사람들의 파오같은 나나이등글집도 없었고 지붕우에 빨간 고추며 누런 호박이 이채롭던 조선초가도 온데간데 없었다. 시꺼먼 구들장들이 들쭉날쭉한 집터만이 시체처럼 누워있을뿐이었다.

(《토벌》을 당했구나. 마을사람들이 다 잘못되었을가? 요행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있을가?) 유정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현정부에 돌아오니 뜻밖의 희소식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나나이인마을에서 살던 계집애를 찾

아냈다는것이였다. 마을이 《토벌》을 당한후에 숨구이하는 사람들이 물독안에서 울고있는 계집애를 하나 구해냈다는것이였다.

유정은 가슴을 울렁이며 그애를 찾아떠났다.

소녀는 팬찮게 사는 중국집에서 돼지몰이를 하고있었다.

해가 기울무렵에 너털너털 찢어진 바지우에 흉하게 꿰맨 짐승가죽을 걸친 여원 계집애가 돼지떼를 몰고 나타났다. 때가 재질재질한 얼굴에서 눈만 반들거리는 소녀는 겁질린 표정으로 유정의 나뭇기는 고름꿀을 닦듯이 바라보고있었다.

유정은 어머니의 육감으로 그애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물었다.

《몇살이지?》

《여-여덟살.》

딸애도 지금쯤 이또래일것이다.

《이름이 뭐지?》

유정은 딸애와 헤어질 때 그에 옷깃에 《석옥금》이라고 새겨주던 일을 떠올리며 다시 물었다.

《쑈저.》

중국말로 새끼돼지란 뜻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계집애가 너무나 애처로와서였다.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을 아느냐.》

계집애는 머리를 저었다. 문득 그 멍청하던 눈이 생기를 띠고 유정을 말끄러미 올려다보더니 그의 귀에 대고 재빨리 소곤거렸다.

《우리 아버지는 유격대에 갔대요.》

《그럼 넌 누구와 살았니?》

《아줌마하고 살았어요.》

《그 집이 생각나니?》

《응, 아줌마가 자는 칸(구들)밑에는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난 그것들과 자곤했어요.》

(그러니 나나이인의 집에서 자랐구나.)

나나이인들은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 풍습이 있었다. 대체로 침상밑에 돼지우리가 있었다. 방안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지만 그들은 거기에 습관된듯싶었다.

마지막기대마저 꺼져버리자 유정은 맥이 탁 풀렸다. 계집애는 제가 안할 말을 했는가싶어 눈이 울롱해서 유정의 침통해진 얼굴을 올려다보며 오돌오돌 떨고있었다. 그는 소녀를 개울로 데리고가서 말끔히 씻어준 다음 딸애에게 입히려고 가져왔던 털실세타를 입혀주었다. 훈련기지에서 조국해방작전을 위한 군사훈련을 하던 나날에 그는 짹짹이 이 세타를 뗏었다. 작아지면 또 풀어뜨고... 그러기를 몇번이나 거듭했었다. 딸애도 이해처럼 요행 살아남아 이름모를 고장, 낯선 사람의 손에서 눈치밥을 먹는게나 아닐가. 그 순간 가슴이 빠개지는듯한 아픔에 숨이 꺾 막혔다. 그는 이제 계집애를 부둥켜안고 오열을 터뜨릴것

만 갈아 얼른 돌아섰다.

어쩐지 발에 모래주머니가 매달린것 같았다. 몇걸음 옮기던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제 저애한테 뭘 줘드라?... 응, 그래, 빨간 세타. 저애한테 필요한게 그걸가?)

저애 아버지도 유격대에 갔다고 하였다. 아마 희생되어 딸을 찾으러 오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저애한테 필요한건 세타보다도 육친의 사랑일것이다. 그를 지켜주고 품어줄 영원한 사랑의 품일것이다. 유정은 돌아섰다.

소녀는 아직도 그자리에 오도카니 서있었다. 그는 소녀에게로 달려갔다. 딸애를 남의 집 토방 위에 눕혀놓고 떠날 때는 되돌아설수 없었던 그 길을 딸에게로 돌아오는 피어린 로정이 함축되어 있는 그 길을.

빨리, 어서 더 빨리.

그는 분명 지대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달음에 달려가 소녀를 와락 그리안았다.

《내가 네 엄마다.》

소녀는 새처럼 파들파들 떨며 그의 품에 파고 들었다. ...

그때로부터 어언 근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 돼지몰이소녀가 이제 러단장의 안해요, 세자식의 어머니가 되었다. 석옥금이라는 친딸의 이름을 가진 그가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언제 한번 해본적 없는 유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찾는 사람이 나타난것이다.

그 교포가 정말 옥금이 친아버지일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유정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백양나무마저 그럴수가 있느냐고 항변하는듯 아지를 휘저으며 와와 설레었다. 하여간 그 교포를 만나보아야 하였다.

유정은 막연한 불안에 몸을 움츠린채 점도록 그자리에 앉아있었다.

×

로씨야에서 왔다는 교포와의 상봉은 고려호텔에서 있었다.

서유정이 응접실에 들어서니 쏘파 한끝에 앉아있던 거울진 사나이가 엉거주춤 일어섰다. 길게 내려덜인 머리카락도 두툼한 입술을 반쯤 덮은 코수염도 밀짚처럼 누르끼레하게 세여버린 로인이었다.

첫순간 유정은 몸을 움칠 떨었다. 로인이 낮익어보였던것이다. 이 로인과 옥금이의와의 혈연을 보여주는 그 어떤 공통성, 같은 피가 흐르는데서 나타나는 용모의 친근감이 그를 놀라게 한것은 아니였을가. 그는 눈을 홑뜨고 상대를 여겨보았다. 부엌계 세여버린 장미가 수북한 얼굴에서 좀 불거져나온 휘둥그런 눈이 그를 마주본다. 유정은 그옆에 초생달처럼 가느스름한 눈이 늘 새물거리는 옥금을 세워보았다. 젊어서는 펍 강대했을기뜰에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한 로인에 비해서

옥금이는 뼈대가 가늘고 나부죽한 얼굴에 자름자름한 눈, 코, 입이 이뻐장스럽다. 로인을 닮은 데라고는 없다. 인간이란 참 이리도 리기적인것인가. 왜서인지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을 민망스럽게 여기며 그는 로인에게 수인사를 하였다.

《제 서유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자 그와 시선이 딱 마주친 로인의 눈이 화등잔같아졌다. 입이 항 벌어지더니 두툼한 입술이 푸들푸들 떨기 시작했다. 갈퀴같은 손으로 양복주머니의 조끼주머니를 더듬더니 마침내 차탁 위에 있는 안경을 찾아 황황히 코에 걸었다. 밤빛의 색안경이었다. 그제서야 로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자기 소개를 하였다.

《박 니콜라이올시다.》

어쩐지 그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 그러나 니콜라이란 처음 듣는 생소한 이국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처음보는 물고기예 저가락을 대었을 때처럼 깨름직한 그 무엇이 막연한 기대를 허물어내리며 연기처럼 그물거렸다. 유정은 이름할수 없는 심정으로 쏘파에 웅송그리고앉은 로인을 바라보며 화제를 찾았다.

《조국엔 여러번 오셨습니까?》

《아-니, 한번입니다.》

《처음이군요.》

그는 로인의 서툰 말을 고쳐주며 고향은 어떤가고 살갑게 물었다.

《선친들은 남해바다가 어디선가 살았다고 하는데 나는 어머니가 만주로 가는 기차에서 낳았더니 고향을 어디라 해야 할지.》

한 인간의 생애에도 민족의 력사가 비껴있는 법이다. 유정에겐 망국노로 태출을 끊은 이 로인이 걸어왔을 인생길이 짐작되었다.

《그러니 조국엔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없겠군요.》

로인은 대답이 없다. 한동안 궁싯거리더니 머리를 수그렸다.

(있을리가 없지. 그러니 애오라지 딸을 찾아보자는 일구월심으로 고향에 어려운 걸음을 하였구나.)

그러자 로인이 이를데없이 측은해졌고 그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해졌다.

유정은 그에게 만주 어디서 살았으며 딸과는 어떻게 헤어졌는가고 직관 물었다.

로인은 뜨직뜨직 단편적인 과거사를 이야기했다. 남북만주 어디라없이 떠돌이생활을 하다가 겨우 발을 붙인곳이 통화라고 한다. 안해가 산후탈로 잘못된후 갓난애를 형수에게 맡기고 정처없이 떠났는데 그후로는 소식을 모른다는것이였다.

로씨야에는 언제 갔는가고 하였더니 《1945년 가을...》 하고는 말끝을 가무리었다. 그때라면 왜 해방된 조국으로 오지 않고 로씨야행을 했을가 싶었으나 로인이 달아버린 말문을 굳이 열고싶지



는 않았다. 유정은 로인의 현재생활에로 말머리를 돌렸다. 《로씨야에는 가족이 있겠지요?》

《너편네를 얻긴 얻었겠지요. 다 저갈데루 갑디다. 새끼 하나 낳아주지 않구서요. 죄많은 놈에게 내린 하느님의 벌이지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처량했든지 유정은 말년에 살뜰한 살붙이 하나없이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끝없는 고독속에 인생의 마지막시간을 보내고있을 로인에 대한 찌릿한 편민을 어쩔수 없었다. 만주로, 조선으로 딸을 찾아해매는 로인의 심증이 십분 리해되었다. 이제 그에게 있어 로인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로인에게 차를 권하며 더 살뜰히 물었다.

《한데 제가 1949년도에 치치하루에 갔던 일은 어데서 아셨는가요?》

《저승에 갈 날이 가까와오고보니 젊어서 팽개치고온 자식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엘 찾아보지 않고 가면 지옥문도 열릴것 같지 않더군요. 그래서 형수가 살던 고장에 찾아갔었습니다.》

《형수는 어데서살았게요?》

《철려현에서 쏘만국경쪽으로 인적없는 수림속에 나나이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형이 그곳 나나이너자에게 장가들었겠거든요.》

유정은 가슴에서 돌이 덜경 떨어지는 감을 느끼었다. 로인의 목소리는 아득히 먼곳에서 들려오것만 같았다.

《가보니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두루 수소문하니 그 마을에서 살아남은 계집애가 하나 있었는데 조선서 딸을 찾으러 왔던 너투사가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유정은 발밑이 허공 꺼져내리는것 같아 응접탁 모서리를 으스러지게 부여잡았다.

어린 옥금을 키워주고 위기일발의 시각에 물독에 숨겨 살려낸 나나이너인이 이 로인의 형수라는것을 꼭 찍어 말할수 있는 근거는 없었지만 그는 굳이 그것을 확인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예감을 믿었다. 그것은 로인이 옥금을 직접 만나보면 될 일이었다. 지금 그의 심혼을 옥죄이고있는것은 여직껏 나의 딸이였던 옥금이 불쑥 나타난 이 로인의 딸이 된다는 어이없는 실감이었다. 이 로인의 이름을 박 무어라고 했던가. 그러니 석옥금이 아니고 박옥금이라. 결국 석지대장은 자기의 피와 녀를 이을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쓰라림이 못견디게 가슴을 훑어내렸다.

(이건 너무하구나. 너무나 모질어.)

으깨여지게 틀어잡은 응접탁우에서 차잔이 싼음하듯 덜덜 떨었다. 그것처럼 덜덜 떨고있는 로인의 애처로운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에야 유정은 자기를 되찾았다.

과거사야 어쨌든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로인이 마지막으로 딸의 손목이라도 잡아보고 저세상으

로 가려는 일루의 희망을 안고 고향에 불원천리 먼먼 길을 헤매고 다니는 동포로인이 그앞에 죄지은듯 웅송그리고앉아 하회를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그에게 있어 딸은 인생의 마지막기쁨이요 마르고 탄 가슴을 적서줄 한줄기 샘일것이였다. 이제 그는 로인을 부축하여 그 샘으로 가야 할것이며 달디단 샘물을 한쪽박 정히 떠서 그에게 드려야 할것이였다. 유정에게 있어서도 그 샘물은 양보할수 없는 생명수였으나 그는 자기가 달리할수 없으리라는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로인님, 난 우리 옥금이가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낳은 정보다도 기른 정이 더 크다고 하지 않나요. 그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살붙이예요.》

그의 눈굽에 맑은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요. 난 그애가 친아버지를 찾는다면 더없이 기쁘겠어요. 그리고 풍파많은 로인님이 제 딸이 지어올리는 더운밥을 자시며 복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면 더 바랄게 없겠어요.》

눈귀에 고였던 눈물이 잔주름이 열기설기한 두볼로 주르르 그울러내렸다. 그는 로인에게로 바투 다가가 그의 손을 감싸쥐며 가슴에 파고드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옥금이를 만나보세요.》

별안간 로인이 지못게 끼고있던 색안경을 벗어 들었다. 낮으나 격한 목소리가 유정을 놀라게 하였다.

《날 그렇게도 모르겠소?》

로인의 얼굴이 커다랗게 바투 다가온다. 두볼에 오목 패인 저 낮익은 허물자리 그제 누구였더라.

《내 백전병이요.》

×

백전병, 유정이네 부대에 그런 이름을 가진 대원이 있었다. 주체28년 겨울엔가 서북하목재소를 쳤을 때 로획한 물자를 지고 부대를 따라왔다가 입대한 신입대원이였다. 허우대가 커서인지 노상 배가 고파서 헐헐하면서 《에라, 전병을 한 백개쯤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희떠운 소리를 하군하여 누군가 달아준 별명이 백전병이였다.

유정은 그의 본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중대가 달라서 같이 생활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는 부상을 입고 얼마간 후방밀영에 와있었던것이다. 그는 전투에서 아주 묘한 부상을 입었다. 위만군놈들에게 《총을 내던지라.》 하고 함화를 하려고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에 총알이 량볼을 꿰뚫고 지나갔던것이다. 기막히게도 이발 한대 상하지 않았다. 량볼의 상처가 아물고나니 아무렇지도 않았다. 유정이 부상자들을 인솔하고 훈련기지로 떠날 때 대오에서 성한 사람이란 그들 둘뿐이였다.



그 길에서 두사람은 평생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북만의 원시림에 푸득푸득 떨어지던 주체29년 겨울의 첫 눈송이, 타고 넘을 기력이 없어 빙빙에돌아가야 했던 밭상스런 진대통들, 담가의 뒤채를 메고 허청허청 따라오던 백전병의 모습, 그 모든것이 어제일처럼 생생히 떠오르는데 어언 반세기가 흘렀단 말인가. 그 담가의 앞채를 메고 숲눈길을 헤쳐가던 유정의 어깨에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실려있었던가.

식량이 떨어지자 밭구를 메워 증상자를 태우고 오던 말마저 잡지 않으면 안되었다. 장작개비처럼 언 말고기를 대패밥처럼 얇게 밀어 조금씩 구워먹으며 행군하였는데 그나마도 얼마 가지 못하였다. 그 당시 적들은 산개가옥들을 다 집단부락에 몰아넣고 산간오지의 사냥군막, 숲구이막, 아편막같은데도 저들의 밀정을 박아넣어 유격대에 식량이 흘러나갈 바늘구멍만한 틈도 남기지 않았다. 산짐승을 잡자해도 놈들이 산야를 그물처럼 덮고있어 서둘러 총소리를 낼수 없었다. 전투를 해야만 식량을 얻을수 있겠는데 부상자들을 데리고는 승산없는 모험이었다.

유정은 속이 타다 못해 솟이 되는듯싶었다. 골똥한 생각에 잠겼던 유정은 뒤에서 담가채를 잡아채는바람에 비칠거렸다. 돌아다보니 백전병이 눈우에 주저앉은채 단숨을 헉헉 내뿜었다.

유정은 휴식구역을 내렸다. 그는 눈을 움켜삼키는 백전병결로 다가갔다.

말없이 품속에서 성냥갑만한 비상식량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말가죽을 푹 삶으면 아교처럼 되는데 거기에 풀을 넣어 끓여 식히면 목이 된다.

그것을 성냥갑만하게 잘라서 비상식량으로 나누어주었던것이다.

아마 이 사람은 반자마자 먹어치웠을것이다.

유정은 자기가 준 비상식량을 한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백전병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서북하목재를 치고 올 때는 힘이 얼마나 장사였는가. 밀가루 세포대를 층층 쌓아 지고서도 벌죽거리며 성큼성큼 걸었다.

아, 그때 밀가루를 얼마나 많이 로획했던가. 말파리가 두번이나 왕복운반을 했었지. 그러자 번개치듯 피곳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두번째 행에 말파리는 빈것이 왔었다. 적들의 추격을 받게 되어 부득불 깊은 소에 밀가루포대를 집어던지고 왔다고 하였다. 후에 후방부관이 소에 가서 밀가루포대를 건져왔는데 겉층이 1센치메터쯤 젖었을뿐 속은 생생하였다. 그래서 후방부관은 그 소를 유격대의 특수식량저장고라고 했었다. 지금 대오는 서북하강줄기를 따라가고있다.

이 강 상류에 소가 있을것이다. 거기에 분명 밀가루포대가 남아있을거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늘 비상미를 남겨두군한 우리 후방부관이니

까...

《살았어요. 이젠 살았어요.》

유정은 너무 기뻐 어안이 병병해있는 백전병의 팔을 마주잡아 흔들었다.

유정은 바와 갈구리를 준비해가지고 백전병과 함께 떠났다. 무사히 소부근에 당도했으나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소가 있는 벼랑우에서 적들이 포대공사를 벌려놓고있었던것이다. 놈들은 소에 내려와 모래도 퍼올리고 물도 길어 올리느라 옥실거리고있었다.

그들은 구멍이를 파고 들어앉아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깃들자 공사장은 좀 조용해지는듯하였다. 그러나 벼랑우에는 모닥불이 타올라 대낮처럼 밝았고 쌍보초가 오락가락하고있었다. 공사는 밤에도 계속되고있었다. 그대신 등잔밑이 어둡다고 벼랑밑은 더 캄캄하였다. 행동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 유정은 백전병에게 소근거렸다.

《동무는 여기 남으세요. 내가 소에 내려가겠어요. 만약 내가 발각되면 적들을 달고 판방향으로 갈테니 그땐 동무가 소에서 밀가루를 건져내야 해요. 우리 두사람중 하나는 꼭 살아서 밀가루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배밑으로 소 가까이에 다가붙은 유정은 갈구리를 조심히 물속에 던졌다. 아무리 요리조리 훑어도 걸리는게 없었다.

빈 소바닥을 뚫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머리칼이 곤두섰다. 몇번이나 갈구리를 다시 던졌지만 여전히 허탕이었다.

빈손으로는 돌아갈수 없는 그였다. 겉옷을 벗여 눈속에 밀어넣은 유정은 갈구리가 달린 바줄을 허리에 동인후 그 한끝을 가까이에 있는 나무에 비끼려매었다. 자맥질로 물속에 들어가려는것이였다. 송화강가에서 자란 그여서 헤엄이나 자맥질엔 자신이 있었지만 물은 빠져리게 찰것이였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었다.

썸뽕! 그가 물속에 뛰어드는 찰나 벼랑우에서 보초가 고함을 쳤다.

《누구야!》

뒤따라 숙영하던 놈들이 뛰쳐나온듯 불몽치가 일제히 벼랑아래로 내리치었다.

유정은 물속에서 숨을 죽였으나 갑자기 불빛휘황한 무대에 알몸으로 선 느낌이였다. 순간 총소리가 물방으로 터졌다. 뜨거운 탄알이 쇠쇠하며 그의 앞뒤 좌우에 우박 떨어지듯하였다.

총소리가 뜸해지더니 점점 멀어져갔다. 백전병에게 무슨 일이 생긴지나 아닐가 하는 불안이 갈마들었으나 그 찰나에 발끝에 물큰하는 촉감이 왔다. (있구나!)

심장은 엄청난 기쁨에 터질듯하였다. 수면우로 몸을 솟구친 유정은 깊은 숨을 토크고나서 다시

자맥질해 들어가며 바닥에 갈구리를 푹 박았다.

물위로 솟구쳐올라 바줄을 잡아당기니 밀가루한포대가 걸려나왔다. 그는 한번 더 들어가 또 한포대를 건져내왔다.

두포대를 가까스로 끌고 약속된 지점에 오니 백전병이 없었다.

그사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총소리를 듣고 적들을 유인해갔는가?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 잠이 들어서?... 허기진 사람이 깜박 잠들면 영낙없이 얼어죽는다. 그는 무독한 눈무지들을 정신없이 파헤쳤다. 손끝에 곳곳한게 마칠때면 피가 마르는듯하였다. 눈무지란 눈무지는 다 파헤쳤지만 백전병은 땅속에 갇아든듯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새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더 지체할수 없었다. 그는 밀가루포대를 바줄에 매달고 눈을 기면서 끌었다. 젖은 옷은 갑옷처럼 찝찝해져서 온몸을 칼질했고 상처에서는 시각마다 생명이 빠져나갔다. 그저 그자리에 쓰러져 자고만싶었다. 그는 한정없는 암흑의 나락에 떨어져내리며 《엄마》하고 부르짖었다.

전우들이 아우성치며 손을 흔든다. 팔애가 발버둥치며 울어댄다. 유정은 기를 쓰고 그 어둠의 나락에서 기어오른다. 팔애의 앙증스런 손이 그를 부른다. 가까스로 그 손을 잡는 순간 유정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보니 동지들의 품에 안겨있었다. 걱정어린 얼굴들이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그 얼굴들중에도 백전병은 없다. 부대로 먼저 온것이나 아닐가 하는 마지막기대마저 사그라지자 유정은 다시 정신을 잃었다. ...

《어디로 갔됐어요?》

유정은 마치 그를 애라게 찾아 헤매던 서북하강변에서 백전병을 불쑥 만나기라도 한듯 안타까이 물었다. 그것은 반세기의 긴 세월을 두고, 한대원의 원인모를 실종을 두고 무시로 속을 썩여온 그의 마음속에서 수백수천번 울리던 질문이었다. 탈을 쓴것 같은 얼굴에서 절망이 가득한 눈이 유정을 애원하듯 울려다보고있었다. 갑자기 오한이 이는듯 이를 딱딱 맞조았다.

변절했는가? 유정은 입안이 말라들었다.

《난 그때 총소리를 듣고 다... 당신이 잘못된줄 알고...》

갑자기 그는 말끝을 잊지 못하고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공포가 어린 큰 눈이 초점을 잃고 허둥거렸다. 그는 공공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때 난... 난 총소리를 듣고 전투가 붙은줄 알고 도우려고 달려가다가 그만... 그만 발을 헛디더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졌댔소.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활짝 밝았는데 다리뼈가 빠였는지 걸을수가 없었소. 요행 산전막사람들을 만나 목숨은

건졌지요. 걸을수 있게 되었을 때는 부대의 행방을 찾을수가 없었소.》

그러니 변절은 하지 않았구나. 유정은 안도의 숨을 후 내쉬었다.

《참 동무두, 기어서라도 대오를 찾아왔어야지요. 우린 동무를 기다리느라고 포위에 들어 다 죽을번 했었어요.》

《용서하십시오.》

자책과 회한의 굵다란 눈물이 그의 주글주글한 두볼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유정은 그가 적의 개가 되지 않은것만으로도 한시름이 놓였다. 그새 속을 태운 생각을 하면 종아리를 쳐도 시원치 않으면 늦게라도 이렇게 찾아와준것이 고맙기만 하였다. 그가 부대와 떨어져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랴싶어 반세기나 품어왔던 한이 스르르 녹아내리는것 같았다.

《됐어요. 그래두 이렇게 살아있으니 만나는군요. 우리 집으로 가시자요. 옥금이도 만나보구. 긴긴세월 쌓이고 쌓였던 회포도 풀어보자요.》

백전병은 얼굴을 싸쥐었다.

×

기별을 받은 옥금이 집에 당도한것은 이틀날 저녁이었다.

그가 들어서자 언제나 그런것처럼 조용하던 집안이 떠들썩해지고 명절날처럼 흥성거렸다. 그의 청높은 웃음소리가 이방저방에서 울리고 가구를 옮겨놓는다, 부엌의 늪그릇을 닦는다 부산을 피우고 돌아가는 날렵한 자태가 여기저기서 얼씬거렸다. 그의 도두룩한 입도 놀지 않았다.

《우리 려단장님 말이에요.(그는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걸 좋아했다.) 어머니가 적적해하실거라구 절더러 어머니곁에 있으래요. 자긴 뭐 나보다 전사들과 함께 있는게 더 좋단가요.》

딸은 입을 삐죽 내민다.

《그럼 애초에 려단에 장가들것이지.》

어이딸은 재미있는듯 깔깔 웃어댔다.

《하긴 저도 은근히 걱정이에요. 어머니 년세가 이젠 얼마예요. 그 나이에 혼자 계시는건 좋지 않아요.》

《분이가 있지 않니.》

분이란 지금 데리고있는 손녀애다.

《그 철딱서니 없는게 뭘 알아요. 어머니께 부담만 끼치지.》

《오록을 쓰기 힘들 땐 너한테 가자꾸나.》

유정은 마음속에 품어오던 생각을 쏟아놓고는 그만 아연해졌다. 백전병의 처량한 얼굴이 밝혀왔기때문이었다. 그제서야 그에게는 옥금이 친아버지를 찾았다는것이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비로소 실감으로 느껴졌다. 안다는것과 실천한다는것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는것처럼, 옥금이가 친아버지를 찾았다는 사실과 옥금이가 그의 딸이 된다는것사이에선 건느기 힘든 감정의 심연이 있

음을 그는 깨달았다.

못어머니들은 제 피를 갈라주고 제 살의 한부분을 떼어내어 자식을 얻지만 그는 남의 피, 남의 살의 한부분이었던 옥금을 자기의 피, 자기의 살로 만드는 어렵고도 기나긴 과정을 통하여 그 딸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 제 살점이 된 그것을 썩도록 잘라내야 하는것이다. 거기서는 피가 팔팔 쏟아질것이다. 이제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어낼것인가.

밤늦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분이를 잠재우고난 옥금은 유정의 침대로 오더니 그의 이불속에 기어들며 철부지소녀처럼 어리광을 부렸다.

《나 오늘은 엄마 팔 베고 잘래요.》

실직한 몸이 유정의 품에 실렸다. 이애가 정말 그의 품에 새처럼 파들거리며 파고들던 그 돼지몰이소녀일가 하고 새삼스레 생각하며 그는 딸의 풍부한 몸을 쓰다듬었다. 딸은 그의 얼굴에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속살거렸다.

《난 아이적부터 이렇게 엄마 팔을 베고 자는게 무척 소원이었어요.

생각나요? 엄마, 한번은 내가 학원에서 몰래 집에 왔었지요. 어머니 팔베고 자고싶어서. 한데 어머니 그 자리에서 날 돌려보내시더군요. 못쓰다, 그럼 아버지가 욕하셔, 하시면서.

어머닌 절 꾸짖을 때마다 <아버지가 그런 너를 보면 뭐라고 하시겠니>, <아버진 그걸 바라지 않는다.>하셨지요. 그래서 난 늘 아버지가 곁에 계신다는 생각에 습관되며 자랐어요. 난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알것 같아요. 엄마.》

딸은 그의 목을 꼭 그러안는다.

(이것이 오늘은 왜 이렇가.)

처음 데려왔을 때 옥금은 조선말을 한마디도 몰라 유정의 속을 무던히도 태웠다. 학원에도 학교에도 보낼수 없었다. 새 조국 건설의 드바쁜 나날에 유정은 출창 그애를 데리고다니면서 말을 배워주고 우리 글을 배워주었다. 체소하고 약골인 그를 위해 마당에 목봉대를 세우던 일, 거기에 매달려 바들거리는 애처로운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것 같아 눈을 감고 하나, 둘 구령을 치던 일. 유정은 애모쁜 추억의 갈피를 끝없이 번지었다.

손녀애가 베개를 안고 쪼르르 달려왔다. 그애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자는 제 어머니를 보자 심술을 피우며 그 가운데로 끼어들었다. 그의 량팔을 하나씩 베는것으로 분쟁은 끝났으나 이번에는 저마끔 그의 얼굴을 제쪽으로 돌리려고 또 신경이질이였다. 조잘거리다 어느새 잠들었는지 조용해졌다.

량팔에 끼안은 딸과 손녀의 체온이 그의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안고있었다. 이것이 인생말년에 누구나 바라는 행복인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남을 위해 바

치는것이 투사의 생이라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혁명가들도 인간이다. 그들도 보통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기를 이어갈 후대가 있기를 바라며 그들이 자기들의 생을 잊지 말아주기를 원한다. 지금 유정은 자기의 피를 나눈 자식, 자기들의 넋과 심혼을 이은 자식이 곁에 있어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것이라.

눈귀로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백전병에 대해 생각해야 하였다. 그의 운명에 대하여,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여생에 대해 마음써야 하였다.

돌이켜보면 혁명가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바로이끌어주는것이였다. 자기자신을 이겨내는것도 어려웠지만 남을 이겨내도록 하는것은 몇배나 더 어렵고 품이 드는 일이었다. 그는 백전병이 혁명을 중도반단하고 불행한 인생마무리를 하게 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신입대원인 그가 절해고도에서도 자기를 이겨내도록 하지 못한 책임을 그와 마지막지휘관이었던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 무엇으로써도 그가 덧없이 흘러보낸 반세기를 다시 찾아줄수는 없었다. 이제 그가 할수 있는 일이란 무엇 하나 걸어걸것이고 없고 빛없이 캄캄하기만한 그의 여생에 삶의 온기를 주는것이였다. 그것은 옥금이를 주는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아무리 아프고 견디기 어려워도 백전병의 인생을 전져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였다.

유정은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였다.

《어마, 이 눈물!》

딸이 발딱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 웬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근심이 가득한 눈이 그를 내려다본다.

《너 아직 안잖니?》

유정이라도 몸을 일으켰다. 이렇바치고는 아침까지 미물것없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딸의 손을 제 무릎위에 감싸쥐고앉아 나직이 말했다.

《옥금아, 너의 친아버지를 찾았다.》

그의 잠안에서 딸의 손이 푸들쩍거렸다. 엷은 창가림을 비집고 들어온 달빛탓인지 딸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창백해보였다.

유정은 뉘스록 간단히 담담하게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어째서 이제야, 이제야 오신거예요.》

옥금의 청높은 목소리는 세차게 떨고있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유정은 유격대에 간 아버지에 대한 긍지감으로 살아온 옥금이란테 그의 과실을 말하고싶지 않았다. 그건 차차 알게 될것이였다. 중요한것은 이제 말하고저 하는것이였다.

《그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년로한분이다. 이제 네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뭐겠니? 그일 잘 모시는거야.》

《그건 무얼 의미하는거예요? 잘 모신다! 내가 로씨야에 갈수야 없지 않나요.》

딸은 분명 이제야 나타난 친아버지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듯하였다.

《그를 조국에 데려다 모실수도 있지 않느냐.》

《어머니 그건 안돼요. 그이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난 어머니결을 떠날수 없어요. 아버지 찾았다해도 난 어머니 딸이에요.》

딸은 진정으로 항변하였다.

《옥금아!》

유정의 목소리는 엄하게 울렸다.

《넌 어머니가 무엇을 위해 일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너는 어미가 바라는 딸이 되어줄수 없느냐.》

《어머니 일생이 어떠했는지 제가 왜 모르겠나요. 사실없이 자기를 깡그리 바쳐온 어머니의 한생, 난 거기서 혁명이라는 말을 깨달았어요. 그런 어머니이기때문에 난 어머니결을 못떠나요.》

유정은 무릎에 엎부러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기서는 향긋한 비누냄새가 났다. 그는 그것을, 딸의 체취를 탐스레 들이마셨다.

《그때, 우린 민족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중 한사람이 조국과 멀리 떨어져 불행속에서 모지름을 쓰고있는데 그걸 모르는채 할수 있겠니. 항차 그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냐.

그 사람에게 있어 너는 그저 딸인것이 아니라 조국인게야.》

《어머니!》

×

아침해빛이 야들거리는 백양나무잎새사이로 알락까치가 짹짹 울어댔다. 유정은 창문을 열어젖히고 시원한 공기를 가슴 그들먹이 들여마셨다. 꽃내음, 싱싱한 풀향기가 습배인 공기가 이렇게도 맛스러울수 있을가, 그것은 고배를 마신후에 맛보는 생활의 단맛일것이였다.

유정은 딸과 함께 백전병을 맞이할 준비를 성의껏 하였다. 그가 좋아하던 전병도 손수 구웠다.

이제 기다리기에 지쳐 오늘은 틀렸는가부다 하였는데 대문밖에서 차소리가 났다.

안내원의 부축을 받으며 백전병이 마당으로 들어서다 망두석이 되였다. 몇걸음 마주나가던 옥금이라도 말뚝처럼 굳어졌다.

뜨락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꽃밭에 날아드는 벌만이 뽕뽕 자기 노래를 계속 하고있다.

그 침묵을 깨뜨린것은 뒤뜰안에서 달려나온 손녀애의 출현이였다.

소매없는 달린옷을 입은 손녀는 낯선 할아버지를 보자 나비처럼 인사를 하였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백전병은 인사를 하는 손녀애를 얼싸안았다. 손녀는 이발이 빠진 입을 벌리고 해죽거리는데 로인의 수북한 코수염에 마음이 끌린듯했다. 백전병은 그애의 눈, 코며 입술, 발깃한 두볼을 쓸어만지더니 북받치는 걱정을 어쩔수 없는듯 와락 그러안았다.

《으흐흐.》

그는 갑자기 황소울음을 터뜨렸다. 옥금은 당황하여 그들결으로 다가갔다.

백전병은 누가 손녀를 앗아갈가 겁내는듯 더 으스스리게 그러안으며 눈물, 코물이 쏟아지는 볼을 아이의 옷에 마구 비벼댔다. 낯선 로인의 폭발적인 애무에 겁질린 손녀는 구원을 바라듯 《엄마!》하고 애처롭게 부른다.

유정은 달려가 백전병을 부축하여 정자밑에 놓인 대나무의자에 앉히였다. 그리고 그의 설음이 다 쏟아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나면 속이 좀 시원해질테지. 옥금의 눈엔 벌써 로인에 대한 련민이 함뿍 고였다. 백전병이 다 울고갔을때 유정은 딸에게 물었다.

《너 아버지의 모색을 알겠느냐?》

알길없는 옥금은 그저 해죽이 웃는다.

《전병동문 어때요? 제 피줄은 옥감으로 아는건데.》

그는 그저 옥금을 물끄러미 바라볼뿐이다. 며칠새 폭 꺼져내린 그의 눈엔 이름 못할 상념이 어렸다. 어째서들 이러는걸가.

《참, 옥금아, 너를 길러준 아줌마의 이름을 기억하고있지?》

유정이 그들사이에 다리를 놓아준다.

《네, 어머니, 그 아줌마를 나나이말로 유르파라고 부르던것 같아요.》

백전병의 흐린 눈이 한순간 번쩍하더니 두툼한 입술사이로 《아, 유르파아주머니.》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어 그는 《나나이사람들은 승이라는 나무로 무은 배를 유르파라고 하지요.》라고 동당지 않은 말을 하며 계면쩍게 웃었다.

유정은 빛나가는 얘기를 얼른 제값에 돌려세웠다.

《전병동무, 형수의 이름이 맞지요? 정말 고마운 녀인이예요.》

그 아줌마가 왜놈들이 마을을 불사르고 불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총창으로 찔러죽일 때 너만은 물독에 숨겨 살려내지 않았니.》

옥금이는 머리를 끄덕였다.

《아줌마는 날 물독에 숨기면서 <너의 아버지 유격대에 갔다. 넌 꼭 살아서 아버지 만나야 해.>



라고 말했어요.》

옥금은 이제 금시 《내 딸아》 하는 소리가 울리길 바라듯 백전병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의 두툼한 입술은 짝 닫힌 돌문같다.

옥금이 참지 못하고 불같은 말을 내뿜었다.

《절 정말 그 아줌마에게 말했잖아요? 나의 친아버지이신가요?》

백전병은 기관총런발사격을 받은듯 흠칫흠칫 몸을 떨더니 옥금의 얼굴을 만져보려는듯 목직한 두손을 쳐들었다. 그것은 허공중에서 맥없이 툭 떨어졌다.

마침내 돌문이 열리고 탄 사람의 목소리같은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유정동무, 이 부인은 내 딸이 아니요.》

그는 머리를 푹 떨구었다. 그는 옥금을 지나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듯하더니 다시 웅얼거렸다.

《우리 애한텐 귀방울밑에 엽전만한 검은 기미가 있었다오.》

옥금이 그 구원을 청하듯 유정을 쳐다본다. 물론 그의 귀밑엔 그런 기미가 없다.

유정은 그 어떤 불가사의한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유정의 시선을 자꾸만 피했다.

떠날 때 백전병은 옥금의 손을 지그시 잡고 당부하였다.

《어련하겠소만 훌륭한 어머니를 잘 모셔주소.》

그날밤 유정은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마음이 개운치 않았고 어정쩡하게 굴던 백전병의 일이 마음놓이지 않았다.

옥금도 분명 자지 않고있었다. 자꾸만 뒤치락거리던 그가 발딱 일어나더니 유정을 흔들었다.

《어머니, 그 로인이 왜 우리 분이를 불안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유정에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는 손녀의 모습에서 어렸을적 딸의 모습을 본것이 아니었을까? 손녀는 꼭 제 어머니를 닮았다. 그러나 옥금이 자기 어머니 백전병의 이해와 신통히 닮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첫순간 망두석처럼 굳어졌을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차마 유정에게서 딸을 가질수 없어 제 딸이 아니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유정은 펄쩍 정신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유정은 옥금과 같이 고려호텔로 찾아갔다.

그가 들었던 방으로 가니 청소를 하고있던 관리원이 《그 로인님은 새벽에 비행장으로 나가셨는데요. 오늘 돌아가시는가봐요.》한다. 유정이 비행장으로 가려고 승강기를 호출하는데 관리원이 편지한통을 가져다주었다.

《그 로인이 투사어머니께 전해달라던것입니

다.》

유정은 봉투를 떼고 속지를 꺼내어 급히 읽어 내려갔다.

《유정동무! (이렇게 부르는걸 용서하시오.)

나는 인간으로서 동무앞에 나타날수 없는놈이었소. 어느때든지 당신에게 결산받아야 할것이 있었소. 그래서 운명이 우리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한것인지도 모르오.

진실을 말하건대 나는 그때 서북하강변에서부터 발걸음을 잘못짚었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나는 당신이 적들에게 잘못된것으로 단정해버렸소. 내가 대신 소아래로 내려가자니 오금이 떨리고 등골이 서늘해서 몸을 움직일수가 없었소.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엉금엉금 기다보니 소와는 퍼그나 먼거리어로 피해온 자신을 깨닫지 못하였었소. 그래도 식량은 구해가지고 가자는 생각으로 산전막을 찾아가니 거기엔 동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던대로 밀정들이 틀고 앉아있었소.

낭떠러지우에서 한발 잘못 디디면 끝모를 나락으로 사정없이 굴러떨어지듯이 내 운명도 달리 될수 없었소.

<토벌>대놈들에게 끌려간 나는 사냥군이라고 뻔대였지만 적들은 유격대의 행방을 대라고 차고 때리고 별의별 행패질을 다하였소. 놈들은 반주검이 된 나를 저들의 병영 영창에 처넣었소.

나는 묵묵히 죽음을 기다렸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걸 왜 동무가 말한대로 소에 내려가 밀가루를 건져내다 죽지 못했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소.

정신을 차리자 놈들이 이번에는 뒤간을 치고 마구간의 말뚝을 쳐내라고 나를 내몰았소. 굴욕은 체적보다 더 사정없이 나를 매질했소. 굶주림과 혹한, 고생이 막심했어도 동지들곁에 있던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사무치게 깨달았으나 동지들의 믿음을 저버린자에게 차려질것이 무엇이겠소.

왜놈병영에서 탈주하려다가 다시 붙잡힌 이 몸은 쏘만국경쪽의 방어공사장으로 끌려갔소.

대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놈들은 공사장에 끌어왔던 사람들을 총알받이로 내몰았소. 우리가 쏘련군대쪽으로 들고뛰자 악귀같은놈들은 우리 등뒤에 대고 기관총을 갈겨댔소. 복부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던 내가 의식을 차리고보니 쏘련군 후방병원에 누워있는것이 아니겠소. 원래 치명상이다보니 회복되는것이 몇년 잘 걸리었소. 완쾌된후 조국으로의 길은 열렸지만 나는 돌아올수 없었소. 부끄러워서 울수 없었소. 가장 어려웠던 때에 제 하나만을 생각하며 대오에서 떨어졌던놈이 어찌 당신들이 피로써 찾은 조국으로 올수가 있었겠소.

저승길이 가까와오자 딸생각이 나서 견딜수 없



있소. 그애를 찾아 많지 않은 재산이나마 물려주고 싶었소. 그러면 죄많은 인생을 다소나마 속죄하고 쉬이 눈을 감을수 있을것 같았지요. 참 어리석기도 했지. 투사의 딸이라는 궁지로 사는 그애한테 그게 서퍽값에나 가는것이였겠소. 그에게 소중한것이 정신적유산일진대 아버지의 불미스런 과거는 어찌한단 말이요. 나는 몸부림쳤소.

그러나 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싶은 욕망을 억제할수 없었소. 그래서 갔지요. 달려와 내 품에 안기는 손녀는 꼭 어렸을 때 딸의 모습이었소. 그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자식들앞에 서니 자신이 너무나도 추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말을 차마 할수 없었소.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란 그에게서 영영 사라져버리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깨달았지요.

서북하강변에서 한발자욱 빗디딘탓에 나는 이렇게 엄청난것을 잃었소. 조국도, 딸도...

그게 량심을 버린자에게 내린 형벌이지요. 아, 한번 더럽혀진 량심은 넓어진 속옷처럼 빨아입을수도 없고 잘못쓴 글처럼 지워버릴수도 없구려.

세월이 흘러도 인생이 남긴 자욱자욱은 그것대로 뚜렷하구려. 훌륭한것은 훌륭한것대로, 너절한것은 너절한것대로.

고쳐살기엔 너무나 늦었습니다...

어디선가 비행기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다. 그저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유정은 창가로 다가가 푸르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양이 빛나는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을 뚝뚝이 바라볼수 있다는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잃는것이 없이 지킬수 없는것이 깨끗한 량심이고 바치는것이 없이 얻을수 없는것이 인생의 결실인것이다.

유정은 아득한 저 하늘가 흰꼬리를 남기며 아슴푸레 사라지는 은빛점을 점도록 바라보고있었다.

## 그날이 다시 온 밤에

홍문수

북장단 멋이 나고  
새납소리 또한 좋구나  
춤을 추자 노래를 부르자  
경축의 광장에 밤은 깊어가고  
마주잡은 손과 손 놓을수 없구나

바람도 맑다  
별도 많다  
우리 장군님  
더욱 높이 모시여 행복한 이밤  
넘치는 감격을 춤가락에 담으며  
이대로 몇밤을 새운들 어떠랴

생각난다 삼짱문도 달을새 없이  
맨발로 달려나갔던 열광의 거리  
**김일성**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올리여  
삼천리가 들끓던 그날이

그때처럼 목청껏 만세를 부를 날이  
그때처럼 해빛이 눈부시고  
그때처럼 미래가 가까이 보이는 날이  
다시 왔구나

왔구나  
대를 이어 받아안은  
위대한 수령복이 우리에게 있어

이 강산에 그날과 똑같은  
민족대경사의 날이 다시 왔구나

오르라 축포여  
오르고올라 오늘의 이 영광  
가없는 저 하늘가에  
더 많은 별꽃으로 수놓으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그날이 다시 오고 그날을 다시 맞은  
민족의 이 궁지 이 자랑을 담아  
우리의 당기  
우리의 국기를  
어디서나 보이도록 더욱 높이 게양하라

아, 마주잡은 손과 손 놓고싶지 않구나  
내 어느덧 검은 머리 희어졌어도  
차넘치는 환희에  
목메이는 걱정애  
아이적 그때처럼 어깨 절로 들썩이거니

가야 할 머나먼 혁명의 길에서  
그날과 오늘을 하나로 빛내이며  
억년토록 장군님 모실 그 마음 안고  
무궁토록 장군님 따를 그 맹세 다지며  
우리 함께 춤을 추자  
우리 함께 노래를 부르자

## 어머니에 대한 생각

김석평

### 어머니들에겐

어디로 가시는가  
무슨 일로 오시는가  
묻지 말자 어머니들에겐

어서 오시라  
먼저 가시라

비켜주자 어머니들에겐

자식을 위해 한생을 사는  
어머니의 걸음보다  
더 중하고 바쁜 길 없거니

### 어머니 말씀

타이를 때에도  
내 등을 두드려줄 때에도  
조용하고 부드럽기만 하네  
어머니의 말씀

조용한 그 음성 한번 스쳐들으면  
백발에도 홀리리 후회의 눈물  
다정한 그 음성 어리광속에 들으면  
보답할 한생을 영원히 잃으리

### 어머니 마음엔

어머니 등에서 내려 걷는다고  
어머니의 몸이 가벼워졌던가

어머니결을 떠나 제구실한다고

어머니의 시름이 덜어졌던가

자식이 자라 어른이 되어도  
어머니 마음엔 언제나 어린애

### 어머니로 태어나신듯

어쩌면 그리도 잘 아실가  
이 세상 모든 리치를

어쩌면 그리도 잘하실가  
세상일 하나도 막힘없이

누구한테 배웠을가 그 모든걸  
그 언제 해봤을가 그 모든 일

아마도 아마도 어머니는  
애초부터 어머니로 태어나신듯

### 어머니에 대한 생각

내 지금껏  
걸어온 길 되돌아보니  
눈물겹게 어려오네  
아 어머니의 한생  
자신을 위해 남긴것 무엇이던가

아 어머니는  
주시기만 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삶  
바치기만 하려고  
약속한 한생

## 어머니의 한생

등근 밥상우에  
식성맞춰 차려주고도  
너무 멀어 미처 못봐 못들듯  
밀어주고 당겨주는 어머니

때론 집떠나 멀리 갈 때면  
빠짐없이려장을 꾸려주고도

걸음걸음 따라서며  
간곡히 새겨주는 당부

결에서 멀리서  
한생 바래주며 기다리며  
못다주신 사랑으로 마음쓰시는  
아 어머니의 하늘같은 한생

## 어머니의 사랑으로

내 태어나  
자랄 때는 근심만 끼쳐드렸건만  
힘겨워 지친 모습 볼수 없었네

간절한 녀원과 사랑을 안고

값음과 보답을 바란적 없는  
어머니 사랑으로 내 조국을 섬긴다면

아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우랴

## 승리

차영도

누구는 이것을 위해  
애절한 삶의 가슴으로  
불뿔는 적화점을  
주저없이 덮었다

누구는 이것을 위해  
웃으며 땅크밀에 뛰어들기도 했고  
서슴없이 이 땅의  
한줌 흙이 되기도 했다

더 말해 무엇하랴  
살아 돌아오지 못한 아들대신  
승리라는 이 말을  
백발이 흘러내린 가슴에 불안고  
이날까지 살아온 어머니도 있다

정녕 이 나라 그 어느 집엔들 없으리  
오로지 승리를 위해  
산 사람의 피와 목숨을  
성스러이 바친  
그 무수한 아들들과 남편들과 아버지들...

이제는 색이 다 바래  
누렇게 된 그들의 옛 사진에

삶의 빛발은 오히려  
영생의 불꽃인양 생생히 살아  
때없이 나를 지켜보나니

내 오늘 준엄한 행군길에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 바치는 땀이  
어찌 선대들 피보다야 더 진하랴만  
그래도 그것은 그들앞에 나를 비취보는  
량심의 피방울 피방울!

알아다오  
이 땅에 피를 바친 영웅들앞에서  
부디 부끄럽지 말자고  
시련많은 조국의 무거운 짐을  
한모퉁이라도 덜고저 들이민  
이 아들의 땀젖은 어깨는  
내 살아선 부서뜨리지는 못하리니

장군님의 아들들이  
조국을 받들어 들이민 이런 어깨  
산악을 이룬 이 땅에서  
나는 벌써 너를 보고있다  
승리, 승리, 우리의 최후승리여!

## 강성대국건설에 헌신분투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최연경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한생이 어려있는 우리 조국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확고부동한 결심을 지니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새로운 일대 부흥번영의 길로 이끌고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자기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사회주의를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강성대국, 여기에는 진정 우리 인민에게 이 위대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하여 80여성상을 하루와 같이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이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으며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가슴벅차게 차넘치는것인가. 《시일야방성대국》에 몸부림치는 우리 겨레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려 일찌기 10대의 그 시절에 일제백만대적을 향해 항일대전을 선포하시고 장장 20여성상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신 백두산청년장군 김일성동지.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땅우에 람홍색공화국기발로 상징되는 존엄높은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주시고 기나긴 반세기의 세월 내 나라, 내 조국을 룡성번영의 한길로 이끄시여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이 간고하고도 영광에 찬 나날에 세계제국주의의 아성인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종파사대주의와의 투쟁, 대국주의, 기회주의와의 투쟁... 진정 우리 수령님께서 넘기 어려운 시련의 언덕, 사선의 고비를 그 몇만번 넘으시였으며 참기 어려운 천만가지 인생의 고초 또한 한가슴 깊은곳에 묻어두지 않으시였던가.

그러시고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사람들은 내가 인민을 위해 해줄수 있는것을 다 해주었다고, 하지만 자신께서는 아직 인민들에게 주자던것을 다 주지 못했다고, 나는 아직 인민들에게 나라의 절반땅을 찾아주지 못했다고, 통일을 주지 못했다고 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1994년의 나날에도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조국의 룡성번영

을 위해 고귀한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아주신 문건도 조국통일을 위한 문건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인민들앞에서 백살은 문제없다고 하시고 항일투사들을 만나시여서는 우리모두 백살까지 살면서 김정일동지를 받들어나가자고 하시며 80고령의 몸으로 예나 다름없이 험한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1994년 7월 5일과 6일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경제부문 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몸소 지도해주시였으며 조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울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것을 절대적 신념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투쟁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는대도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한생이 어려있는 우리 조국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철석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거룩한 애국애족의 뜻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이 땅우에 룡성번영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는 사람만이 명실공히 우리 시대의 참된 충신, 진정한 애국자로 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와 구상, 당의 정책과 로선을 열렬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자기의 제일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문학은 마땅히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에 헌신분투하는 우리 시대의 참된 주인공들을 훌륭히 형상하는데 붓끝을 모아야 한다.

물론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그린다곤 하여 그것이 현실주체의 다른 작품들과 동떨어진 특이한 별개의것으로는 될수 없다.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다 달리는 될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참된 충신들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나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는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몇가지 문제들이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세상이 열백번 뒤집힌다 해도 우리는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기어이 아버지수령님께서 넘원하신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만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 낫과 뜻을 그대로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지, 자기의 낫과 뜻으로 받아안은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 살아서 그이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고 죽어도 그이 품에 영생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참된 전사, 제자로 그 성격을 빛나게 형상하는것이다. 마음의 기둥이 없이는 살수 없는것이 사람이다.

마음을 의지할 든든한 기둥만 있으면 천만리 아득한 험로도 웃으면 갈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지척도 천리로 멀어질수 있다. 하물며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운명을 의지할 마음의 기둥을 더 찾게 되는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리치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역사는 거꾸로 갈것으로 생각하였다.

튼튼한 마음의 기둥이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냈으며 약해진것이 아니라 불사신처럼 천백배 강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의 로고를 바쳐 세워주신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혁명의 정세는 참으로 엄혹하고 난관과 시련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하고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힘겨운 강행군이 있을수 있다. 생사판가름, 사생결단의 최후결전에도 준비되어야 한다.

어려울 때 충신을 알고 간신이 허울을 벗는 법이다. 곤잘 만세를 부르던 가련한 변절자들이 서푼도 못되는 본색을 드러내놓았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수 있게 하는 마음의 기둥, 신념이 없기때문이다.

허나 오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봉쇄와 압살 책동도 다 물리치며 천만가지 난국을 박차고 성강의 봉화따라 또다시 천리마의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것은 말그대로 기적이다.

하다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억척같이 자리잡은 신념과 의지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드눌지 않는 강철의 의지와 신념,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 천하제일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의 진두에 서계신다는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고부동한 철의 신념, 이것이 억년 드눌지 않는 우리 인민의 마음의 기둥이며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성격의 핵이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김리돈 작)은 이러한 필승의 신념에 대한 가장 빛나는 화폭이다.

소설은 나라안팎의 정세가 그처럼 복잡하고 우리 당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그 시기에 오로지 자기 수령에 대한 믿음을 드눌지 않는 철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이 땅위에 천리마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은 영웅적 강선로동계급에 대한 잊을수 없는 불멸의 서사시적화폭이다.

소설은 그 어려운 시기 누구보다도 우리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몸소 제강소에 찾아오시여 1만톤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고 하시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을 철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온갖 난관과 원수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짓부시고 이 땅위에 천리마대진군의 시원을 열어놓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에 대한 궁지높은 력사적화폭이다. 우리 문학은 오늘의 《철의 신념》, 다시말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성강의 봉화따라 다시 한번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고있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신념에 대한 빛나는 서사시적화폭을 창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우리 조국을 부강하게 일떠세우자면 사회의 핵심력량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부대인 로동계급부터 분발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령도자의 이 뜨거운 믿음에 화답하여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로동계급의 불굴의 의지와 철석의 신념을 담은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가고있는 자강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 강계정신에 대하여 힘있게 노래하여야 한다.

강계정신이야말로 이 땅위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강행군전투에서 승리를 거둘수 있게 하는 우리 인민의 참다운 투쟁정신이다.

오늘 우리는 총포성없는 전쟁속에서 사회주의 보루를 지켜싸우고있다. 이러한 난국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은 보통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다면 하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지이고 담력이며 싸우면 이긴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신념이다.

우리 시대 주인공들을 장군님의 이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을 자기의 피, 자기의 땀으로 간



직하고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 참된 충신의 전형으로 형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인간학적문제의 하나는 신념과 의지, 그것을 량심, 의리와의 통일속에서 그리는것이다.

강권으로 심어줄수도 빼앗을수도 없는것이 신념과 의지이고 량심과 의리로만 지켜질수 있는것이 또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량심에 대한 문제를 우리 문학앞에 가장 긴요한 인간학적문제로 내세우고있다.

량심, 그것은 당과 혁명 앞에 바치는 티없이 깨끗한 마음이며 나아가서는 수령에 대한 사심없는 충효의 마음이다. 량심은 오직 스스로만 우리 나눌수 있고 지켜질수 있다.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순결한 충효의 량심으로만 해결할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응당 말로써가 아니라 량심과 의리로 지켜지고 빛나는 신념과 충성에 대하여 심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강한 신념은 혁명적락관주의와 통일되어있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만이 락관주의자로 될수 있다. 혁명적락관주의에 대한 생활적형상은 우리 문학이 강한 혁명적신념을 지닌 주인공형상에서 해결하여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미학적문제이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보자,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이것이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닮은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이고 배짱이다.

혁명적 량만과 락관에 넘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주인공들을 빛나게 그려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은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 참된 충신인 동시에 또한 열렬한 애국자로 형상되어야 한다. 진정한 애국애족을 떠난 참된 충성이란 있을수 없다. 참된 충성이 곧 애국애족인것처럼 진정한 애국애족만이 참된 충성으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숭고한 애민의 사상인 동시에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와 민족은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되게 되었다.

다부작에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다.

자기의 운명을 참담게 개척하려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삶의 터전으로 행복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인민의 이 자랑스런 애국애족의 전통은 오늘 위대한 장군

님의 령도하에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전통을 계승하여 나라와 민족의 근본리익을 한몸바쳐 지키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한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한몸바쳐 관철해나가는 열렬한 애국자로 형상되어야 한다.

민족성과 주체성도 참다운 애국애족에서만 꽃피날수 있다.

우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을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하며 조선민주제일주의정신이 투철한 열렬한 애국자로,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해나가는 주체가 확고히 선 열렬한 애국자로 훌륭히 형상하여야 한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군인정신을 잘 그리는것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정신인 동시에 오늘의 준엄한 현실이 요구하는 필수불가결의 혁명정신이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자력갱생하여 살아가는것, 이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일관한 혁명방식이다.

자력갱생은 난관극복을 전제로 하며 난관과 시련은 투쟁없이 극복될수 없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잘 보여주려면 현실을 미화분식하고 리상화하는 경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생활의 본질에로 깊이 육박하여 그것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엄혹한 현실은 심각한 극을 동반한다.

난관이 크고 시련이 많을수록 온갖 잡사상들이 나타나며 나아가서 간신과 반역자들도 생길수 있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예리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만난 극복의 철의 인간들로 준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의 참다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혁명적군인정신이며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한가운데 믿음직하게 서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참된 전사들인 우리 인민군대이다.

우리 문학은 조국보위와 함께 사회주의건설을 앞장에서 떠메고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 성격형상에 더 많은 힘을 돌리며 그것을 통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몸바쳐 헌신분투하는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빛나는 형상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우리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우리의 행군길에서 부르는 노래

김창근

### 사랑하노라 조국이어

조국이어 내 지금껏  
그대를 사랑한다 말하였노라  
아름다운 대동강반 버들숲을 거닐며  
릉라도 수영장에 시원히 몸잠그고  
좋은것만 골라주는 그대가 고마워...

좋은 길을 걸을 때는 다 몰랐던것  
힘겨운 오늘에는 사무치며 깨달아  
조국이어 내 오늘은 진정  
그대를 더욱 가슴뜨거이 안노라  
어려운 행군길 걸으니  
그대가 더더욱 소중한...

강낭밥에 시래기국을 먹어도 좋다  
으시대는 원썬들을 발치에 굶어보며  
할소리 탕탕하고  
받아낼것 다 받아내는  
조국이어 그대가 장하고 장해...

내 그대에게 더 바라지 않노라  
아직은 우리에게 부족한것 있어도  
형포한 역풍을 맞받아 쳐갈기며  
어느놈도 우리를 손끝 하나 못다치게

살펴주고 지켜주는 그대가 있으면  
아 그대만 있으면 더 바랄것 없는 우리

사랑하노라  
힘겨운 행군길  
천리라는 만리라도  
미더운 그대가 우리에게 있어  
웃으며 열백번도 가고가리니

사랑하노라  
든든한 그대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 땅의 천만자식 몇몇이 고개들고  
아름답고 고운 내 나라 이름  
누리에 떨치며 세기에 빛나리니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엄엄하게 도고하게  
지구상의 온갖 잡것들 짓눌러 딛고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서있는 조국이어  
우리가 멀지 않아  
최후승리의 환호성 높이 터칠적에  
세계는 그대가 못견디게 부러워  
넋을 잃고 바라보리라

### 흥이로다 멋이로다

흥이로다 멋이로다 이 강변-  
드세찬 장기군들 저기에서 맞붙고  
연분홍저고리 남색동치마  
꽃같은 녀인들이 하늘을 난다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릉구장에 《번개》치고 《폭풍》이 일고  
《결》이야 《뜰》이야 웃음소나기  
웃개도 반공중에 솟구치누나

오늘의 혈치 않은 행군길  
웃으며 우리 간다 신심높이 우리 간다  
보아라 내 나라 푸른 하늘에  
귀여운 아이들의 하얀 연이 뿔구나

연분홍저고리 어엿싸- 방울을 찼다  
웃놀이터에 야- 하- 한판이 났다  
릉구장에 풀잉이라 장기판에 통장이다  
이것이 래일이 있는 내조국의 희망넘친  
참모습이다

## 온실에서

덩굴마다 잘도 자란 오이를 따며  
처녀들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한개 또 한개 정답아 따며  
얼굴에 함뿍 웃음입니다  
묻지 마십시오 처녀들의 마음  
오늘은 왜 그리도 즐겁기만 합니까  
비닐박막 저 밖엔 눈이 하얀데  
오이 쭉갓 부루 배추  
신선히 자래우는 태양열온실  
푸르싱싱 열매를 정답아 따서  
집집마다 보내는 기쁨만이 아닙니다  
묻지 마십시오 처녀들의 마음  
샘물처럼 맑은 웃음이  
고운 얼굴마다 찰랑입니다  
즐겁기만 합니다

기쁘기만 합니다  
저기 움속에선 실한 버섯이  
뽕양게 솟아나며 키다잡니다  
지난봄에 생겨난 멋진 발전소에선  
파아란 전기불을 마을에 보내주고  
양어장 얼음밑에 잠자는 물고기는  
올해에 두세뿔씩  
놀라게 자라날 꿈을 키우겠지요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기운차게 걷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명하신 우리 장군님 진두에 계시여  
우리의 이 행군길에서  
보십시오, 조국이 더 부유해졌습니다  
처녀들의 마음 즐겁습니다

## 오늘

단군의 이름과 함께 5천여년  
유구한 우리 력사 자랑만 말자  
수령님 존함으로 영원할 조선  
강성대국 건설이 오늘에 있다

좋은 날에 굳게 다진 백날의 맹세보다  
오늘날에 지키는 하루가 빛나거늘  
내 나라 후손들 만년토록 기억하리  
장군님 받드는 우리의 오늘의 하루!

## 조국이어 믿어다오

조국이어  
그대앞에 우리들이 섰노라  
다그쳐가야 할 이 행군길에  
우리를 믿어 앞자리에 세워준 그대  
믿음에 찬 그 눈길로  
조국이어 우리 세대를 사열해다오

우리 어이 모르랴  
힘차게 달려야 할 이 행군길에서  
새 세대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피어린 자옥자옥 빨찌산의 이야기를  
우리 무심히 옛말처럼 듣지 않으리라  
가렬한 전투의 그 언덕길과  
재더미에 일떠세운 거리와 마을을

우리 즐거운 노래로만 부르지 않으리라

조국이어  
그대가 바라는곳에 이 아들은 있으려나  
최후승리자의 든든한 배심으로  
아름별게 우리의 래일을 안아보는  
이 아들을 조국이어 믿어다오

오늘도 보여오는 피어린 그 자옥에  
전우의 원한 씻으러 달려간 저 언덕에  
희한하게 일떠선 이 거리와 마을에  
믿어다오 불같은 새 세대의 뭉으로  
우리의 래일을 멋있게 세우리라

진정 피끓는 우리의 젊음  
오늘의 행군길에 다 바치지 못한다면

잠시라도 뒤편에서 머뭇거리며  
오늘에 내가 세운 위훈 없다면  
언제인가 오게 될 인생의 저물녘에  
아마도 이 백발은 점직하리라

조국이어  
어려움을 즉차며 가고가는 이 길에서  
후날에 우리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그대의 박동속에 이 시절을 우리 살아  
후대들의 자랑속에 뚜렷이 남으리라

믿어다오 조국이어  
그대앞에 자각한 우리 세대이기에  
전야에는 꺼지게 난알이 여물리라  
소리치며 빛을 뿜는 발전소의 타빈을  
폭포치며 솟구치는 검은금의 산더미를  
장쾌하게 울려가는 벽찬 기적소리를  
노래같은 출강의 아름다운 종소리를  
조국이어 기쁘게 들으시라 바라보시라  
믿어다오! 믿어다오! 조국이어!

## 조국의 품이어 외 1편

리덕진

하늘에 해가 있어  
내 해빛을 알고 자랐던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어  
내 어머니 다심한 사랑을 알고 자랐던가

밤하늘에 달이 유정하여도  
내 그 유정함을 모르고 자랐노라  
나를 품안아준 아버지가 있어도  
내 아버지의 웅심깊은 사랑을 모르고 자랐노라

풍만한 어머니의 가슴이 뿜어주는  
그 달디단 젖맛을 알기도전에  
턱수염많은 볼로 애무하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도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  
가랑잎처럼 길가에 속절없이 덩굴던  
나는 그 아이

해빛 따사로움이란 모르고  
별빛 달빛 유정함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란 말조차도  
꿈속에서나마 어렴풋이 불러보던 나를  
꽃처럼 활짝 피라고  
사랑과 애무를 다심히 다 안겨준  
둘도 없는 어머니조국의 품

노을 지는 저녁녘  
두리상에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고  
집집마다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애정에 찬 녀인들의 정다운 목소리  
그리도 어린 가슴을 허비던 나를  
해빛넘친 요람가에 안아키워준 사랑의 품이어

귀뚜라미 서럽게 울던  
지주집 소외양간 담벽밑에  
거적을 깔고 고달픈 꿈으로 시달리던곳이  
내 자라난 집이었다고  
그래서 하늘에 추녀를 얹은  
불밝은 창가의 요람가에서 시름없이 잠들게  
하고...

아, 그 품에서 어언 50여년  
그 긴긴 세월에  
자애로운 사랑으로  
배움의 꽃길에 세워주고  
성스러운 람홍색공화국기발에 나를 감싸안아  
고귀한 삶을 안겨주었나니

철없던 그 시절에  
철이 없어 내 다 물랐던가  
백발이 성성한 오늘에도  
헤아릴길 없는 어머니조국의 그 사랑

어머니의 포근한 젖품에 안긴 아이와 같이  
정다운 그 미소 떠나서 순간도 살수 없는  
내 운명을 모두 맡긴 품이어

정녕 그대는  
별이 좋다면 저 하늘의 별을  
은하수가 좋다면 은하수를 따오는  
끝없는 어머니 그 사랑으로  
내 생의 숨결을 보살펴주고  
보람찬 삶의 창창한 미래를 준 어머니시여라

어머니조국이어  
나는 행복한 그대의 아들

애먹이던 자식이 철이 들면  
 숙태우던 어머니 그 마음 알아주듯이  
 어머니조국을 위해 못다한 일을 두고  
 왜 이리도 뜨거운 추억을 더듬게 되는것인가

내 아직 늦지 않았노라  
 설사 늦어서도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한 길에서라면  
 돌에서도 꽃을 피우리

조국을 지키는 판가리 결전장에서  
 최후돌격의 만세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조국의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리니

아, 어머니라 부르면  
 돌도 없는 나의 어머니이고  
 아버지라 부르면  
 웅심깊은 아버지품인  
 조국이며 나의 조국의 품이여

## 내 사랑 능귀강의 흐름아

색날은 병사시절 배낭을 메고  
 매덕령을 내리는 정다운 고향길  
 즐겁구나 능귀강의 흐름아  
 네 먼저 나를 반겨 출렁이느냐

너를 지켜 초소에 섰던 이 마을  
 너처럼 끝없이 설레누나  
 기쁜듯 솟구쳐 은구슬을 뿌리며  
 내 품에 안겨드는 고향의 강아

어디더나 철 없던 유년시절에  
 해종일 종이배 띄우며 놀던곳  
 부드러운 풀잎 깔린 너의 기슭엔  
 물장구치며 해저무는줄 모르던  
 내 작은 발자욱 또렷이 남아있으리

수정같은 맑은 물에  
 때묻은 내 얼굴 씻어주던  
 어머니의 다심한 그 손길  
 이끼덜인 바위들에 울리던  
 어머니의 가락맞는 빨래방치소리  
 오늘도 어디선가 들려오는것만 같구나

내 처음 토끼무늬 책가방 메고  
 내 모습 너의 수면에 비쳐보던 날  
 네 맑은 물위에 그림자 남기며  
 저기 흰구름 피여오르는 산봉우리너머  
 점같이 사라지던 삭도바가지  
 오늘도 똥똥 떠가는구나

잔파도 일으키는 너의 물결우에  
 흥겨운 노래도 한곡조  
 내 서투른 자작시도 실어보낼 때  
 너는 씩없이 흘러가더니  
 오늘은 내 발목 부여잡고  
 무슨 이야기 그리도 조잘대느냐

내 정든 고향의 강 능귀강아  
 너를 지켜 밤을 새우던 전호가에도  
 너의 맑은 흐름은 굽이쳐왔더라  
 애뜻한 고향의 숨결처럼  
 내 가슴에 뜨겁게 흘러들었더라

성스러운 조국보위초소에 나를 불러준  
 조국의 목소리도  
 내 총을 메고 초소로 떠나던 날에  
 조국앞에 다진 병사의 첫 맹세도  
 다시 되새겨주는 이 기슭  
 너의 맑은 수면을 거울삼아  
 오늘 또다시 내 모습 비쳐보나니

오, 사랑하는 능귀강아  
 내 부끄럽지 않노라  
 사랑하는 나의 고향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위해서라면  
 천리 불속도 웃으며 헤쳐갈  
 병사의 신념, 병사의 각오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제대병사

고향을 꽃피우는 무거운 짐을  
 이 어깨우에 실어다오  
 너의 물줄기가 굽이치는 저 풍요한 발을  
 내 한껏 땀흘려 가꾸리라  
 더 아름다워질 너의 기슭에서  
 위대한 장군님 령도따라  
 사회주의가 완전승리한 그날을 맞이하리라

오, 이 아들의 인사를 받아다오  
 오늘 이 상봉의 기쁨을  
 성실한 로동의 나날로 이어  
 내 한생을 너와 함께 살리라  
 더 좋은 래일 더 아름다운 생활을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너의 기슭에 펼쳐놓으리라



# 우리에게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

리석

따르는 마음 끝이 없어  
받드는 신념 변함없어  
9월의 이 아침 우리의 가슴속에  
더더욱 뜨겁게 불타는것은 무엇이던가

그것은 혁명의 첫 기슭에서  
1세들이 간직한것  
고난의 눈보라 천리를 넘으며  
시련의 피어린 만리를 헤치며  
2세, 3세들이 맥맥히 이어온 혈통

그것 없이는 오늘이 없고  
그것 없이는 래일도 없어  
정녕 조국도 사회주의도 존재할수 없어  
우리 스스로가 량심으로 의리로 간직하는  
좌우명!

그것은 가고가는 길에 진펄도 있고  
허리띠를 조여매듯  
만탄창된 무기에 탄알을 더 달듯  
심장속에 더 억세게 다져야 하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

오, 준엄한 혁명이 바라고  
시대가 엄숙히 요구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그렇다 이 정신만 있으면  
그 어떤 봉쇄의 장벽도 한갓 물먹은 담벽  
그 어떤 압살의 핵탄두도 한갓 헌쇠불이  
이 정신만 확고하면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보다 억센것 없으라  
이보다 강한것 없으라  
이 힘으로 혁명의 붉은기를 들었고  
이 힘으로 붉은기를 지켜온 혁명  
그래서 혁명의 수뇌부는  
천만의 심장우에 받들려  
언제나 백전백승하거니

이 세상의 원썬들이 아무리 발광한다 하라  
형형색색의 바람이 지꼇게 분다 하라  
사상의 강자가 패한 일 없고  
신념의 강국이 저본 일 없거니

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목숨으로 옹위할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이 하나의 정신만이 있다!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이 하나의 정신만이 있다!

백시

## 피와 땀

백의선

병사는 조국에 바친다  
전쟁에서는 피를  
건설에서는 땀을  
어느것이 더 무거운가?!

피와 땀중에서...

오, 묻지 말라  
조국의 마음엔 저울이 없다!

# 력사는 판결하리라

김영락

《국민의 정부》라는  
기만의 간판을 이마에 달고  
추한 물골을 내민지 겨우 석달에  
민중의 삶의 터전은 거덜이 났다

살기편 신탁통치의 검은손은  
국민의 숨통을 바싹 조이고  
악독한 정리해고제로 함창하는  
역적들의 역겨운 추태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소리 홍수처럼 터져나온다

생존의 권리가 짓밟히고  
실업과 자살의 《자유》만이 란무하는  
황폐화된 마른 땅우에  
독버섯마냥 솟아난  
너는 분명 국민을 죽이는 《국민의 정부》

구결에 미쳐도 더럽게는 미쳐서  
외자애걸, 국제금융의 신탁애걸  
이것저것 섬겨 바치다 못해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마저 팔아먹는

너는 분명 식민지예속 《정부》

날이 가고 달이 간 참혹한 석달은  
민생의 통탄과 구슬픔이 쌓여진 날과 달  
파쑈의 본색을 드러낸 매국노들을 때려부시려  
반항의 거세찬 불길을 지퍼올린 날과 달

그렇다  
정의를 웨치는 무산대중들이  
통일을 부르짖는 의로운 청년대학생들이  
거치른 포도우에 흘리는 뜨거운 피로  
한자한자 너의 죄를 써가고있다  
너의 죄를 고발하고있다

력사는 지나간 세월앞에서만  
심판관이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겨우 석달, 국민을 죽여온 그 석달로  
살벌한 흔적만 남긴 역적의 무리들에게  
준엄한 판결은 이미 내렸다!  
력사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1998. 6. 17)

# 괴수는 너울을 벗어던졌다

장원준

더럽다  
껍질을 벗어놓고 기여가는 뱀과 같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너 《국민의 정부》 괴수

나는  
아름다운 말을 골라  
소박한 노래를 짓는 젊은이  
허나 오늘은 이 신성한 붓으로  
더러운 그 행적을 분노에 차 단죄한다

태여날적부터

위선의 강보에 싸여  
가면무도회를 연출해온 인간추물들이  
입을 모아 떠들던  
너절한 《국민의 정부》

애당초 너에게 기대를 건 사람은  
7천만중에 단 한사람도 없었다  
더럽게 늙은 비렬한 그 백발이  
오리오리 《국민》의 목을 조에는 바줄이 되고있다

거리가 좁다하게 분주탕을 피우던  
소위 《민주》의 그 《기발》이

오늘은 산 송장을 감싼  
현 《정권》의 수의가 되어 흔들거리고있다

오, 홍물은  
허울속에 있어도 홍물  
독사의 혀끝에선 독이 나오기마련 -  
력대 탈바꿈의 《신수들》 다름없이  
또 한회 막을 올리자마자  
《국민의 정부》라는 겹질을 벗어던졌거니

진정  
분노한 남녘의 모든 거리와 거리들이여

자주와 민주를 위하여  
민중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거세찬 불길의 바다여!

집어던지라  
허울을 벗어던진 《독사》의  
그 더러운 몸뚱아리를  
력사의 담밖으로 아예 집어던지라  
이 행성우에서 해비치는 땅을  
더는 기여다니지 못하게 하라!

## 우리가 승리한 그날엔

정은옥

그날엔  
우리가 승리한 그날엔  
수고많은 이 나라 녀인들을  
얼싸안아 꽃수레에 앉혀주자

그날엔, 승리의 그날엔  
때로 우리  
자기의 생일은 잊을지라도  
그들의 생일만은  
잊지 말고 성의껏 차려주자

시련의 나날에  
길도 많이 걸었고 고생도 많았건만  
온갖 아픔 묻어안고  
밝게도 웃어준 녀인들

큰일 작은일 다 말아안고  
늘 잠이 그리웠던 우리의 안해들을  
승리한 아침엔 날이 밝아  
중천에 해가 뜰 때까지 깨우지 말자

종일토록 머리에 해별을 이고 산 그들  
승리의 날엔 오리오리 해빛으로 천을 찢서

땀에 젖고 별에 탄 그 어깨들을  
따뜻이 감싸주자

전쟁이라 해도  
그들이 헤친 날들보다 더 준엄할수 있으랴  
정녕 우리가 승리한 그날엔  
아버이장군님 높이 모신  
열병식의 맨 앞줄에 그들을 세워주자  
우리 축배의 잔도 그들을 위해 들자

아, 나라가 정말로 어려웠던 날에  
그 작은 어깨로  
조국의 한쪽 수레를 힘있게 떠밀며  
우리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에  
삶의 깊은 자욱 남긴 이 나라 녀인들

그날엔  
정녕 우리가 승리한 그날엔  
모진 고난앞에서도 오히려 높이 들던  
무쇠같은 사나이들의 머리를  
그들앞에 깊이 숙여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리자  
어머니들에게, 안해들에게, 누이들에게!

## 공화국기 휘날리며 한생을

림종상

벌써 새벽잠이 없어진 나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자리에 누워 허무한 시간을 보내던 버릇을 버리고 글을 쓰고있다.

화전머리에서 태어난 내가 말년에 이르도록 지나온 보람찬 생애를 더듬어보며 쓰는 글이어서인지 시간가는줄 모르고 붓을 달리곤한다.

나는 이 글에 흘러간 생의 온갖 잡사를 다 적어넣지는 않는다. 그러나 잊을수 없는 일이거나 교훈으로 될만한것은 빼놓지 않고 쓴다.

오늘저녁에도 나는 서재에 들어앉아 공화국기 발에 대해서 쓴 글을 다시 보고있었다.

이때 안방에서 텔레비존을 시청하고있던 손자녀석들이 일제히 《할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바람처럼 달려왔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와요-》

《할아버지, 외삼촌, 외삼촌이...》

다섯살난 친손자녀석이 설레발칠 때에는 마치 불이라도 달린듯 헤뽀뽀한다. 이럴 때면 소년단네타이를 맨 외손녀, 외손자도 덩달아 들끓듯 뿔뿔해댄다.

《네 아버지가 어쩔다는거냐?》

보던 글에서 눈도 떼지 않고 물었으나 아이들은 나를 잡아끌어 텔레비존수상기앞에 앉히었다.

저 먼 이역하늘에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애국가, 서서히 오르며 필력은 람홍색공화국기발...

군대에 복무하던 아들이 체육단의 사격선수가 되어 영웅조선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펼친 자랑높은 화면이 방영되고있었다.

벌써 여러번 방영된 장면이다.

하건만 손자애들을 무릎에 앉힌 나의 가슴은 몽클해졌다. 자식에게 차례진 영예도 비길데 없이 큰것이지만 그보다도 지난날에는 지도에조차 알려져있지 않았던 내 나라, 내 조국의 당당한 상징인 공화국기발이 창공높이 솟아오르는 장엄한 모습에 가슴이 달아올랐던것이다.

(아, 만약 저 아들에게 조국이 없었더라면 저런 영예를 어떻게 바랄수 있었으랴!)

불쑥 전쟁때가 떠올랐다.

조국앞에 각자는 자기를 검증받아야 하는 준엄

한 시기가 닥쳐왔던것이다.

내가 전선으로 떠나던 무더운 7월초 아버지는 작은 수기인 공화국기를 안겨주면서 《네가 늘 노래부르던것처럼 이 기발을 제주도 휘날리고 돌아오너라.》 하고 바래워주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수반으로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던 그날 아버지는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시위대렬앞에서 그냥 《만세!》를 부르며 나아갔고 나는 학생가창대에서 목청껏 노래부르며 뒤따랐다.

나는 아버지가 안겨준 그 수기를 총창에 달고 승리한 고지마다에서 하늘높이 휘날렸다.

전선에서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봉분앞에서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수 없었다. 아버지의 희생이 너무도 고결하고 숭고하고 값비싼것이였기때문이다. 전략적 일시적후퇴가 닥쳐오자 그 많은 현물세를 산에 날라간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왔다가 그만에야 마을에 들이닥친 미국놈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휘날렸다는 공화국기.

어찌하여 아버지는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최후를 마쳤던가?

주체37(1948)년 초여름이라고 기억된다.

당시 중학생이였던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녁상도 치우지 않고 어디론가 급히 나가는것을 보았다. 여느때는 없었던 일이었다. 동생들에게 물어보니 벌써 며칠째 거둬뒀었다는것이다. 장난이 심하고 데설국기만 하던 나였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 따라갔다. 산이 막힌 화전마을이라 같은 리위원장네 앞마당뿐이었다.

모여앉으면 기껏해야 뉘집 암탉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웃어대며 흥성거리던 어른들이였는데 그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 조용하였다.

이따금 리위원장이저씨가 무엇인가 한대목 읽어주고 《의견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하시우.》 하며 이 사람 저 사람 휘둘러보곤하였다.

듣자니 나라에서 헌법초안을 전국적인 군중토의에 붙이고있다는것이다.

나는 피마주기름등잔밑에 엎디어 의견을 받아쓰려고 하는 서기아저씨곁에 가서 주저앉았다.

중체로 입을 벌리지 않자 그 아저씨는 연필끝에 침만 묻히고있을뿐이었다.

왜 그런지 송엄한 감정에 휩싸인 나는 어른들의 심각해진 낯빛을 살피며 연필을 깎아 아저씨의 손에 쥐여주었다. 비록 색을 입히지 못해 나무책그대로인 싯허연 우리의 첫 연필 《삼천리》를. 밤이 깊어지자 어느덧 나는 멍석우에 코를 박고 잠들어버렸다. 얼마나 잤는지...

동녘하늘이 희붉해졌을 때 깨어난 나는 그만 깜짝 놀랐다.

겨우 문명퇴치를 한 화전민들이 밤새껏 성수가 나서 헌법초안토의를 하느라 벽작 고아대고있지 않는다.

《아니, 그 조항에 무슨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성미끝은 아버지가 의견을 내놓은 우물집 친구를 나무리자 증구난방 갑론을박하다가 종당에는 웃음판이 터졌다.

《모두 이러지들 마오. 내 벌써 몇번이나 말했소. 나라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지난날 사람값에도 쳐주지 않던 우리 화전민들에게까지 헌법초안토의에 참가시키는줄 아오? 해방된 인민모두가 나라의 정사에... 정사를 의논하는...》

팔을 뻗어 휘젓는 리위원장은 목이 메여 말을 삼키고말았다.

《우물집 의견을 적어넣습메다.》

서기아저씨가 몽툰 손가락에 연필을 잡았다. 이윽하여 초안토의가 끝났다.

《이번에는...》

리위원장은 헌법초안에 붙어 있는 국장과 공화국기 도안을 펼쳐놓았다.

도안설명을 듣고난 어른들은 박수를 쳤다.

《모두 절대찬성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우리 기발을 보란듯이 하늘높이 휘날리며 살아가잔 말이에요!》

리위원장의 석싯한 목소리가 어째서인지 우렁찬 웨침처럼 들렸다. 그때 나는 며칠밤을 지새우면서도 피곤을 모르고 웃고 떠들고 손뼉을 치며 흥분하였던 아버지, 어머니, 온 동네 어른들의 심정을 미처 다 알수 없었다.

승리한 고지우에서 총창에 매단 수기를 휘날릴 때에야 나는 그때 사람대접을, 아니 나라의 주인대접을 받은 어른들의 진정을 비로소 알수 있었다.

아버지는 땅을 주고 나라의 정사에 참가시켜준 참된 인민의 나라, 이런 내 조국이 목숨보다 귀중하기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생을 마쳤다.

앞날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가져볼수 없었던 식민지소년이었던 나에게도 고마운 조국은 운명개척의 광활한 길을 열어주었으니 복받은 새 세대로 누구나 다 누려온 빛나는 삶에 대하여 더 말해 무엇하랴.

나는 아버지가 넘겨준 그 기발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총알에 송송 뿔리우고 포연에 그슬려 퍼그나 색바랜 공화국기발이다. 아버지세대와 나의 전우들이 피로 지켜낸 공화국기발이다.

이 기발을 지키면 우리는 살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민모두가 노예로 죽어야 하는 신성한 기발이다. 자자손손 이어가야 할 성스러운 기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늘높이 휘날려주시는 공화국기발은 **김일성**민족의 영원무궁한 상징이다.

(아이들아! 신똥을 맞는 공화국창건 기념일에, 아니 백똥, 천똥, 만똥, 해와 달이 다하도록 맞이할 우리의 경축광장에 저 기발을 힘차게 휘날리며 나아가자. 나도 너희들도 그리고 우리의 먼 후손들도...)

《애들아, 우리 나라 기발이 아름답지?》

나는 화면에서 펴럭이는 기발에 심취되어있는 손자애들에게 물었다.

《예, 제일 아름다와요.》

중학생이 된 외손녀가 대답하자 애들은 손뼉을 쳤다.

《애들아, 아름다운것은 모두 좋은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의 기발을 끝까지 지켜내고 빛내여야 한다.》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

티한점없는 아이들의 랑랑한 목소리가 나의 고택을 쳤다.

그렇다! 달리 살수도 없고 달리 살아서는 안될 우리다.

나는 내가 쓰는 글에서 후손들모두가 각자 자기에게 차례진 한생을 수령님의 제자, 수령님의 전사로 영원히 참되게 살아가라고 부탁하고싶어서 붓을 달리군한다.